금주의 법구-〈법구경〉
항상 새벽처럼 깨어 있어라.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을 즐겨라.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켜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02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5월 14일) 2018년 6월 27일 수요일



"생전예수재 복원은 우리가" 영산재 · 수륙재와 함께 불교 3대 재의식 중 하나인 생전예수재는 49재 등의 천도재와 달리 살아있을 당시에 죽은 뒤 지내게 될 재를 미리 치르는 재의식이다. 최근 생전예수재의 무형문화재 등록을 위한 노력이 여러 사찰서 이어지면서 천태종 총본산 단양 구인사 역시 6월 18일 충북 문화재위원 등을 초청해 '구인사 생전예수재의 복원과 보존을 위한 시연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천태종 스님들이 바라춤을 추며 생전예수재 의식을 하는 모습. 글=윤호섭 기자 · 사진제공=금강신문

불교 기부 新키워드 수혜자 중심

불교 기부단체 집행 변화와 과제

단체 모연 후 선정 · 지원
'니즈' 파악 중요성 높아져
"주는 입장서만 생각하면
일종의 '자선 갑질' 행위"

착한소원 · 나눔 장터 '눈길'
세심한 요구 파악 위해
수혜자 소통 네트워킹 필요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내가 기부한 물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전달될까? 기부를 받는 사람은 이 물품을 필요로 할까?'

기부를 하면 한번쯤 드는 생각일 것이다. 그동안 일괄적으로 기부물품을 전달하는 기부자 중심의 기부집행이 수혜자 '니즈(needs)'를 먼저 파악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수혜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맞춤형 기부집행으로의 변화에 맞춰 불교계 기부 시스템 변화도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회에서는 이미 수혜자 중심으로 기부문화가 변화하고 있다. 기부 수혜자가 필요한 식자재를 직접 구할 수 있는 푸드마켓이 유행하고 있다. 집행뿐만 아니라 모금단계까지 수혜자의 '니즈'를 먼저 설명하고, 수혜자의 사례를 보고 기부하는 프로그램도 나온 상태다. 심지어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등에 수혜자들이 직접 사연을 올리고 필요한 물품을 기부받기도 한다.

이런 변화는 불교계에서도 감지된다. 불교계 대표 공익법인인 아름다운동행은 2015년 3월부터 한부모 가정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평소 갖지 못하거나 이루지 못한 소원을 들어주는 '착한 소원' 위시박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또 올해 하반기 지역 어르신들이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불교가 쏜다, 아름다운 공양'(가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도 2017년 9월 서울시 거주 미혼모 150여 명을 초청해 아동용품을 미혼모들이 직접 선택해 받아갈 수 있도록 했으며, 불교여성개발원(원장 노숙령)도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개최한 제10회 나눔 바자회를 앞두고 이전 바자회와 달리 기획단계에서 수혜자 파악을 한 달간 진행해 한부모 자녀들의 장학금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이송 조계종 중앙신도회 주임은 "미혼모 지원 당시 가정에서 바로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점이 미혼모들의 호응을 얻었다"며 "이웃종교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품 기증 등이 적은 불교계는 기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혜자의 요구를 파악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교계에서는 올해 초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연꽃향기가 이 같은 수혜자 중심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연꽃향기는 2016년부터 '행복한 나눔장터'를 개최하고 있다. 나눔장터는 기부를 받는 이들이 직접 생활용품을 골라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탈북이주여성을 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여성들은 당일 행사장에 집결해 약 7만원 상당의 임시화폐를 발급받고, 나눔장터에서 필요한 것을 구입한다. 올해 나눔장터 행사는 6월 30일 수원사에서 탈북이주여성 약 100여 명을 대상으로 열린다. 여기서는 의류와 속옷, 화장용품, 목욕용품 등 28개 품목의 3000여 점이 전달된다.

이종철 연꽃향기 조합장은 "수혜자 중심으로의 변화는 수혜자들이 자칫 느끼기 쉬운 상대적 박탈감이나 자존감 상실 등을 막기 위한 노력도 포함되기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수혜자 중심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혜자와의 소통을 통한 요구 파악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재춘 가치혼합경영연구소장은 "한 고아원에서 아이가 '한 달에 롯데월드를 네 번 갔다. 가기 싫다'고 일기를 써 논란이 인 바 있다. 자선에도 받는 이가 필요한 것을 주지 않고, 주는 입장에서만 주는 이른바 '자선 갑질'이 있다"며 "받는 이는 을의 입장이기에 내밀한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못한다. 불교계 기부집행에서는 특히 이런 마음을 세심하게 헤아리는 지혜가 발휘됐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아름다운동행 유미란 팀장은 "기부 규모가 큰 불교계 단체일수록 직접 사업보다는 간접 지원 사업을 진행하기에 수혜자와의 소통의 기회가 많지 않다"며 "허브 형식의 기관이 많은 상황에서 수혜자와 소통할 수 있는 일선기관과의 네트워킹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라졌던 원측 주석서 영인으로 돌아왔다

동국대 ABC사업단, 〈무량의경소〉 최초로 영인

원측 저술한 〈무량의경〉 주석서
日 사이쿄지서 발견… 국보 지정
불교고전 원본 영인사업 첫 성과

신라 원측(613~6%) 스님이 저술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 사이쿄지(西敎寺) 소장 〈무량의경소〉가 원문 그대로 영인됐다. 일본 국보인 〈무량의경소〉가 원문 영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ABC사업단은 "일본 사이쿄지에서 소장돼 있는 원측 스님의 저술 〈무량의경소〉가 수년 간의 노력 끝에 처음으로 영인 · 간행됐다"고 6월 19일 밝혔다.

원측 스님이 편찬한 〈무량의경소〉는 법화삼부경 중 하나인 〈무량의경〉에 대한 주석서로는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문헌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라졌다가 최근 사이쿄지 소장돼 있는 중세 일본 사본 대장경에 포함된 〈무량의경소〉가 원측 저술임이 밝혀지면서 소재가 확인됐다.



일본 오츠시 사이쿄지에 소장된 원측 저술 〈무량의경소〉. 동국대 ABC사업단은 수년 간의 노력 끝에 처음으로 원본을 영인하는 성과를 냈다.

日승려, 연구위해 원측 저술 필사

사이쿄지에 소장된 〈무량의경소〉가 원측 스님의 저술일 것이라는 추정은 이미 1960년대에 일본의 천태 학자인 다이라 료쇼(平了照) 씨에 의해 제기되었지만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이후 일본 유식학 연구자인 기츠가와 도모아키(橘川智昭) 씨가 그 주장을 보다 심화시켜 지난 2008년 5월 한국학계에 보고하면서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무량경의소〉는 일본 천태종 승려인 린쇼가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두 학자들의 발표를 통해 사이쿄지의 〈무량의경소〉가 원측 스님의 저술이라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사이쿄지의 〈무량의경소〉는 895년 린쇼 스님과 그 제자들이 필사한 책으로 원측 스님이 찬술한 때로부터 약 200여 년 후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가장 오래된 필사본일 뿐만 아니라 거의 유일한 사본으로 확인된다.

日훈점 연구 중요자료

린쇼 스님은 〈무량의경소〉를 필사하였을 뿐 아니라 책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붉은 색으로 교정을 하고 특히 해석을 명확하게 해야 할 곳에는 역시 붉은 색의 훈점(訓點, 한문 문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붙인 점으로 된 부호)을 붙였다.

린쇼 스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책의 내용을 깊이 있게 연구하기 위해 붙인 이 훈점은 일본의 훈점 관련 자료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사례 중 하나로서, 일본 훈점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무량의경소〉는 1937년 일본 국보로 지정됐으며, 최근 안전한 보존과 관리를 위해 오츠시 역사박물관에 관리를 위탁했다. 이후 이 책은 일반인은 물론 연구자들에게조차 공개되지 않았다.

국내 학자 노력 끝에 영인 결실

이런 상황 속에서 동국대 ABC사업단이 〈무량의경소〉의 영인을 할 수 있던 것은 최연식 동국대 사학과 교수(ABC사업단 부단장)의 역할이 크다. 최 교수는 2008년 학술회의 현장에서 기츠카와 씨의 발표를 듣고 지속적으로 〈무량의경소〉에 관심을 갖게 됐다.

지난 2016년 동국대 ABC사업단에 참여하게 된 최 교수는 해외에 전해진 한국 불교고전의 원본을 영인 · 간행하는 사업을 제안했다. 정승석 단장(불교학술원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으로 도왔고, 〈무량의경소〉 영인본 간행 사업이 추진돼 올해 결실을 맞게 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측은 "일본의 국보를 한국 연구기관에서 영인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사업"이라며 "영인본 간행 이후에 사진 자료가 무작위로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처음부터 일본의 태도는 냉랭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이번에 발행한 원측 스님 저술 〈무량의경소〉 영인본은 관련 분야의 전문 연구자는 물론 관심 있는 불교학자들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인재 양성 실천… 이 시대 '수달타 장자'

주영운 행원문화재단 이사장 6월 19일 별세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1991년 행원문화재단 설립
승가 · 재가 장학사업에 주력
경전 독송 등 수행도 철저
"승속 떠나 불교계 큰 어른"



평생을 불교 인재 양성 불사에 힘썼던 주영운 행원문화재단 이사장〈사진〉이 6월 19일 95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주 이사장은 1924년 경기도 개풍군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영특한 아이였지만, 집안이 어려워 상급학교를 진학하지 못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일본인 교사가 자신이 학비를 줄 테니 개성상업학교를 다닐 것을 권했지만, 부모님은 "일본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 안 된다"고 거절했다. 이후 주 이사장은 독학으로 학문을 이어갔다.

해방 이후 한국운수주식회사를 거쳐 한일시멘트공업주식회사 창업 초기 경리과장으로 입사해 25년 동안 재직한 주 이사장은 퇴직 이후 아산레미콘 대표이사와 개풍시멘트주식회사 사장 등을 역임하며 대표적인 불자 기업인으로 이름을 알렸다.

"나눔은 자신을 돕는 것"

주 이사장은 '한국의 수달타 장자'로 불렸다. 석가모니 부처님 재세 당시 불교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자신의 재원을 보시한 수달타 장자와 닮았기 때문이다.

대표적 사례가 행원문화재단 설립이다. 주 이사장은 노후를 위해 용인에 마련한 밤 농장을 처분하면서 생긴 재원 2억 원을 흔쾌히 재단을 설립하는 데 내놓았고, 1991년 당시 승가대가 있던 개운사에서 행원문화재단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후 행원문화재단은 역경 · 학술 ·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불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행원문화상'을 제정해 매년 시상해왔다. 이를 통해 주 이사장은 각 분야 전문 인력을 독려하고 숨은 불교 인재를 발굴했다.

불교 역경 사업을 이끈 월운 스님, 한국불교 대표 강백인 무비 스님, 원효학대가 은정희 서울교대 명예교수, 음악으로 불교 대중화에 앞장선 박범훈 불교음악원장, 강형진 니르바나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장 등 수상자들의 현재 면모를 봐도 행원문화상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다.

주 이사장은 평소 "나누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돕는 것"이라고 말해왔다. 남을 위하는 것 같지만 자신을 위해 저축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성공한 사업가가 될 수 있던 것은 주위 사람들이 도움이 컸기 때문이며, 이를 회향하는 것이 불자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이에 대해 주 이사장은 생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술회했다.

"나에게 도움 준 사람들에게 신세진 것을 갚는 방법은 나 역시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방법을 생각하다보니 장학금을 보시하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눔을 위한 재단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자금을 증자시킨 것도 더 나누기 위한 방법이었다. 그래서 2억 원으로 시작한 재단은 증자를 거듭해 2014년 기본재산이 25억1000만원으로 늘어났다.

'근검절약' 신조인 신실한 불자

행원문화재단의 이름인 '행원(行願)'은 주 이사장의 법명이다. 주 이사장은 1972년 부처님오신날 독산동 심원사에서 관응 스님에게 '행원'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불심이 돈독했던 불자였던 그는 꾸준히 독경 수행을 했다.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천수경〉과 〈반야심경〉을 독송하고 저녁에도 〈천수경〉과 〈반야심경〉 독송으로 일과를 마무리했다.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누구보다 근검절약의 삶을 살았다. 흔한 생일은 고사하고 회갑과 칠순잔치도 하지 않았다. 대신 관련 축하 비용을 승가원, 연꽃마을, 보육원, 양로원 등에 보냈다.

주 이사장과 인연이 깊은 주위 인사들의 평가도 다르지 않았다. 행원문화상 심사위원인 최정희 前 본지 편집이사는 "근검절약 몸에 밴 분이었다. 그리고 누구보다 이웃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하셨다"며 "행원문화상 이외에도 중앙승가대, 종립학교 등에도 꾸준히 장학금을 희사했다. 불교 인재 양성에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행원문화재단 창립 당시부터 인연을 맺은 서울 성북동 전등사 주지 동명 스님은 "승속을 떠나 불교계의 훌륭한 어른"이라고 상찬하며 "개인적으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거사님"이라고 세속의 연이 다함을 안타까워했다.

동명 스님은 "양말을 기울 정도로 근검절약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재가자 혼자 마지막까지 불교 장학사업을 이끈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며 "마지막에도 가족에게 '아무 흔적 남기지 말라. 가족끼리 장례 지내라'고 유언했다. 그래서 불교계에도 부고조차 돌리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참불자였다"고 고인을 추모했다.

"종조 가르침, 지혜의 빛 삼아 정진"

조계종, 종조 도의국사 다례 조계사서 봉행

조계종이 종조인 도의국사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정토세계 구현에 매진할 것을 서원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설정)은 6월 15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서 '조계종조 도의국사 다례'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원로의장 세민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설정 스님, 종의회의장 원행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조계종은 6월 15일 서울 조계사서 조계종조 도의국사 다례를 봉행했다.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

이날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원로의장 세민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후손들이 도의국사께서 보이신 전등의 무량공덕에 보답하는 길은 국사의 정수를 알아 각자의 마음광명을 밝히는 것"이라며 "국사님의 정토염원이 사바세계에 가득해 온 국민의 평안과 한반도 평화통일이 속성취하여지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추모사에서 "뭇 중생의 고통을 보듬고 정토세계를 구현하는 지름길은 수행하는 종단으로 바로 서는 것임을 잘 알고 실천하겠다. 청정한 승단을 이루고 화합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종문을 여신 국사의 공덕에 답하는 것임을 명심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포교사 옷, 전법 편하게 바뀐다

포교사단 단복 현대화 추진… 21일 TF 첫 회의

조계종 포교사단이 한복 양식인 현행 포교사단 단복의 개편을 추진한다.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윤기중)은 6월 21일 서울 포교사단 교육관에서 열린 제3차 임원회의에서 '포교사단 단복개선 TF'(팀장 장용숙)를 구성했다. 단복개선 TF는 임원회의 직후 첫 회의를 열고, 기존 포교사단 단복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일부 개선 및 전면 개편의 의견을 수렴했다.

포교사단 단복은 2000년 도입된 이후 근 20년간 재가자 전법 포교의 상징으로 자리했다. 감색 색상으로 통일된 단복을 입은 포교사들은 불자들의 일치단결된 힘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일선 포교사들은 그동안 단복에 대한 불편함을 감내해야 했다. 전통 한복 양식으로 단복 하의는 끈으로 묶어야 해 여성포교사들이 입거나 벗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여름단복 상의의 경우 앞트임이 없어 바람이 통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날 단복개선 TF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고려해 단복 하의에 고무줄 밴드를 도입하고 여름 상의 앞트임을 더한 개량 단복을 선보였다. 하지만 TF 내에서 "젊은 사람들의 유입을 고려해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TF내 의상 전문가를 충원해 개선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기중 포교사단장은 "최근 포교 행정시스템 전산화에 이어 단복 현대화를 통해 전법 포교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와 함께 포교사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6월의 노래와 염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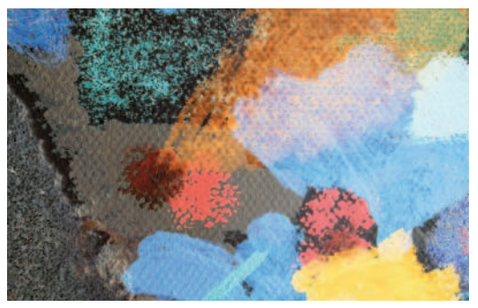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일심칭명 '아미타불' 합시다.

우리 국민에게는 6월에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에 제일 먼저 부르는 노래는 6월 6일에 부르는 '현충일 노래'입니다.

"겨레와 나라 위해 목숨을 바치니 그 정성 영원히 조국을 지키네. 조국의 산하여 용사를 잠재우소서. 충혼은 영원히 겨레 가슴에 임들은 불멸하는 민족혼의 상징, 날이 갈수록 아~ 그 충성 새로워라"

조지훈 작사 · 임원식 작곡의 이 노랫말을 6월이 가기 전에 한 번 더 음미합시다.

조국을 위해 산화한 젊은 넋들에 게 우리는 얼마나 깊이 감사하고 있는지, 그 꽃다운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제대로 기리고 추모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호국충혼-영가천도 그림 · 조향숙

호국충혼 영가천도는
조국수호 정신 이어 받아
평화의 길을 여는 발원

6월 25일에는 '아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로 이어지는 '6.25의 노래'를 부릅니다.

68년 전 그 날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평화,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의식 노래는 아니지만 6월의 애창가곡이 있습니다. 무명용사에게 헌정하는 '비목(碑木)'입니다.

6월 15일은 제1연평해전일이며, 6월 29일은 6명의 해군이 전사한 제2연평해전일입니다.

육군 17사단 군악대는 인천시립합창단 정기 연주회에서 군가 '전우야 잘자라'를 연주했습니다. 우리의 피맺힌 아픔과 민족의 비극이 담긴 6월의 노래는 기도이며 염불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는 호국영령들이 목숨바쳐 지킨 희생의 댓가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추모와 감사의 빛이 바랠까 염려됩니다.

우리 삼천사에서는 하안거 결제일부터 우란분절인 백중까지 호국충혼과 선망부모 유주무주 고혼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영가천도 100일 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대부분 절과 사암연합회에서는 호국영령 천도 기도를 합니다.

산승이 소임을 맡고 있는 서울 은평구 사원연합회는 매년 6월에 나라와 은평구민을 위한 '호국 충혼 대법회'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 제29회였는데 추모법회와 함께 상이 군경 가족과 모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한 분들을 구청장이 표창했습니다.

*영가는 몸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피지도 못한 젊은 영가들의 집착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호국영령들이 맺힌 한을 풀고 밝은 곳, 즉 극락에서 이고득락하도록 천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나라를 위해 산화(散華)한 용사들에게 감사하고 보은하는 도리입니다. 충혼들의 극락왕생을 축원하고 또 축원하며 조국수호 정신을 이어받아 지역사회를 가꾸고 평화통일의 길을 여는 발원입니다.

"삼혼(三魂)은 한(恨)이 되어 아득한 어둠속에 헤매이며 칠백(七魄) 또한 갈 길을 잃었도다. 호국 충혼 영가들이시여 일심칭명 '아미타불' 하시고 극락왕생 하소서. 남북이 화합하는 평화의 빛으로 다시 오소서.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삼천사 회주 · 동국대 석좌교수〉



베스트셀러
카르마 100일 보현스님의 행복체크카드
부처님마을

추천도서!
좋은사람!
좋은책!

[타래] 베스트셀러 저자!
이 시대의 최고 힐링멘토로 우리곁에 돌아온,
보현스님의 신간출시!
[카르마 100일 보현스님의 행복체크카드]

YouTube
부처님마을 [보현스님]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과거 인기가수 출신. 80년대 아이유로 불릴만큼 각종 CF는 물론 KBS드라마 [사모곡] OST '사모곡' 과 '설마' 등을 불렀고, 가수 이선희와 함께 KBS 신인가수상 후보까지 오르면서 스타반열에 올랐다.
○최근 KBS2 [여유만만]과 TV조선 [대찬인생], KBS [아침마당], TV조선 [별별톡쇼], KBS2 [속보이는TV 人사이드], MBN [현장르포 특종세상] 등에 출연하면서 다시 한 번 큰 이슈를 불러 일으켰다.
○현재 '보현스님의 카르마 100일' 강의로 유튜브(You Tube) 구독자 수 5,000을 돌파하고 있다.

전국서점 절찬판매

문의전화 02.379.2010

[집중취재]
개발 따른 사찰 피해사례는

"수행환경 침해, 시간만으로 안 풀려"

윤호섭 · 하성미 기자

최근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와 천년고찰 소요사 인근에 건립 추진 중인 양돈장을 두고 불교계와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수행환경 침해 문제가 재차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해 2~3년 전 잇따른 도시개발에 따른 수행환경 침해 제보의 경과를 조사한 결과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사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삼척 안정사는 국책사업인 국도38호선 삼척 도계~신기 도로건설공사로 인해 폐사 위기에 내몰렸다. 본선 도로 공사에 해당되는 1만4392㎡가 편입되고, 공사가 이뤄지면 사찰이 제 기능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3민사부는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토지 지상 수목 등에 관한 정당한 보상가액 산정 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안정사 주장 일부를 받아들이며 △신청 취하 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은 경우 △법원 인용 결정에 따른 감정평가서가 제출될 때까지 "입목 · 수목을 굴취하거나 벌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시공사와 사찰 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여전히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안정사 주지 다여 스님에 따르면 안정사 측은 50여 건에 달하는 고소를 받았으며, 통장까지 가압류 돼 지난

안정사 · 수도사 여전히 미해결
시공사 측과 합의점 못 찾아
"시간만 흘러 어려움 가중돼"
이외의 사찰들은 대부분 해결

해 8월부터 재정이 마비된 상태다. 현재 법원 판결에 따라 공사는 중단됐지만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다여 스님은 "막무가내 공사로 인해 대웅전에 균열이 발생하고, 법당에 물이 새는데 수리도 못하고 있다. 앞으로 재판결과가 나오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어려움은 계속될 것 같다"고 호소했다.

같은 해 이천~오산 구간 고속도로 건설로 수행환경 침해 위기에 놓인 경기도 광주 수도사 역시 안정사와 비슷한 상황이다. 수도사 주지 청호 스님은 "도로공사로 인해 땅값이 오른다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된다. 시공사 측과 대치하고 있지만 해결점은 보이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몇몇 사찰은 시공사 측과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더 이상의 논란 없이 문제를 해결했다.

성남 봉국사는 인근 K아파트에 재건축 공사 허가가 나면서 발파작업 등으로 인해 대광명전 등에 훼손이 발생했다. 이에 봉국사는 외부 용역을 통해 공사로 인한 진동과 먼지량 등을 조사하고, 공사중지 가처분소송 등을 제기하며 대응했다. 특히 8개월간 불자들이 번갈아 공사현장에 방문해 감시하면서 시공사를 비롯한 아파트조합 측과 보상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다.

부산 해운정사는 사찰 앞에 부산 최대 재개발지역인 해운대구 우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에 지상 39층 높이 아파트 3천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해운정사로 들어서는 진입로가 2차선밖에 되지 않아 불편함이 예상됐다. 다행히 이 같은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져 진입로를 4차선으로 확장했으며, 아파트 높이도 일부 낮추는 등 큰 논란 없이 해결됐다.

부산 청량사는 한국수자원공사서 진행 중인 '에코델타시티' 공사로 인해 경내지 250여 평이 공사부지로 편입됐다. 이에 부산 강서구 내 유일한 전통사찰인 청량사는 전통문화 및 수행환경 훼손의 위협을 받아 강력히 반발했다. 현재는 양측 합의가 거의 마무리돼가는 단계로 알려졌다.

청량사 주지 운암 스님은 "현재 구두로 합의는 어느 정도 된 상태다. 대토나 진입로 등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지만 최종 서명만 남았다"면서 "그래도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어서 시간을 두고 지켜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 북미정상회담 조속 개최 필요"

김용현 동국대 교수
2018 민족화해 심포지엄에서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국면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최대한 빨리 제2, 3차 북미정상회담을 조기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교수는 이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가 6월 18일

7월 27일 종전선언 예상
선순환 관계개선 의미부여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도전'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북미정상회담은 제2, 제3의 북미정상회담과의 연속성 속에 있다. 최대한 빨리 조기 개최해야 한다"며 "1차 북미회담의 최대 목표이자 성과는 구체적 플랜의 보따리가 아니라 상회 신뢰 구축"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남북미 종전선언은 7월 27일 판문점에서 이뤄진다면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 9월 유엔총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교수는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빠져 김 위원장의 승리,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라고 보는 것은 "판 자체를 잘못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두 개의 수레바퀴가 함께 돌아가는 선순환적 진행의 계기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공동성명에 '새로운 북미관계'라는 대목이 있는 것과 관련 "전쟁과 적대, 대결 구도가 아니라 대화와 협력, 평화 관계로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핵화의 의미있는 입구"라고 평가하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으며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을 수 없듯이 앞으로 살얼음판을 걸으면서 유리그릇 다루듯 진지하고 신중하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나서야 한다. 비핵화의 이행과정은 샅바싸움과 같이 험난한 길이다. 쉬운 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어려운 것은 쉬운 것에서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선 "예정된 가을 평양 남북정상회담 외에도 연내 수차례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가 가닥을 잡아가면서 대북제재 등 완화 움직임에 따라 남북 교류협력도 비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포지엄에는 발표자들 외에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등이 토론 패널로 참석했다. 박진형 기자

포교원 7월 4일 '신도품계, 전환 모색' 포교종책 연찬회

조계종 신도품계 제도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논의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7월 4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신도품계, 전환을 모색하다'를 주제로 제76차 포교종책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는 시행 8년차를 맞이하는 신도품계를 점검하고 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도품계 제도는 신도의 교육과 신행에 기반한 단계별 신도조직화와 함께 신도 종단 소속감 고취를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신도품계 제도는 품계별 성취동기 부여나 사찰운영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포교원 측은 "'교육과 신행에 기반한 신도조직화'는 여전히 중요한 포교 종책의 과제"라며 "재가불자의 리더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제도를 평가하고 신도품계 제도의 혁신을 통해 지역과 사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홍콩 사로잡은 템플스테이 · 사찰음식

한국불교사업단 체험부스에
여행 · 관광업계 3천명 몰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6월 11~17일 홍콩과 한국에서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을 소개하는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한국불교 전통문화를 알렸다.

먼저 주홍콩한국문화원과 11~13일 '홍콩 한국불교문화 체험주간'을 개최해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사진전, 지화연꽃 만들기, 인경체험, 사찰음식 실습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특히 사전 참가신청을 통해 진행된 사찰음식 강의에는 수용인원의 3배 이상 참가자가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3일간 이어진 행사에는 400여 명의 체험객들이 다녀갔다.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은 14~17일 홍콩 완차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홍콩 국제박람회'서도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 여행상품 개발을 촉진하는 설명회를 실시했으며, 일반인들을 위해 △전통문양 컵받침 만들기 △연꽃등 만들기 △한지부채 만들기 등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문화사업단에 따르면 기업과 개별 참가자들의 템플스테이 상담이 400여 건, 템플스테이 홍보부스 방문자가 3000여 명에 달했다.



홍콩에서 열린 국제박람회 체험부스를 찾은 홍콩시민들이 사찰음식에 관심을 표하고 있다.

또한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14~15일간 열린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 2018'에서는 전등사 · 한국문화연수원과 함께 상담부스를 운영했다. 총 104개 관광 · 여행업체 등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14~17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된 '한국국제관광전'에서는 최우수 부스 디자인상을 수상했다.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앞으로 진행될 이탈리아, 캐나다 등 해외 홍보행사에서도 이 같은 성과를 기대하며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의 대중화 ·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통일쌀, 올해엔 북한에 전해지길"

구례 화엄사 등 통일쌀 공동경작에 힘 모아

"올해는 부푼 꿈을 안고 통일쌀이 북녘에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손으로 정성껏 모를 심읍시다."

최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의 평화적 교류가 다시 시작되는 분위기 속에 북한에 보내는 통일쌀 모내기 행사가 열렸다.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와 구례군농민회(회장 윤명순), 구례군여성농민회, 기아자동차광주지회는 6월 21일 전남 구례군 토지면 들녘에서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통일쌀 공동경작 모내기' 행사를 개최했다.

구례군통일쌀은 지난 2007년부터 화엄사와 노동자, 농민이 함께 '통일경작단'을 구성하고 화엄사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2만평 규모 논에 공동 경작한 쌀로 북한의 소외계층을 위한 것이다.

행사에는 부주지 영원 스님, 사회국장 해덕 스님, 도운 스님, 덕홍 스님과 학인 스님을 비롯해 구례군 농민회 윤명순 회장, 김순오 구례군수 당선자, 기아자동차광주지회 김대용 수석부지회장 등 농민과 노동자들이 참여해 모내기 행사에 힘을 보탰다.

구례군통일쌀은 과거 남북 간 경색국면으로 인해 지난 2011년부터 경작한 쌀을 북한에 지원하지 못했다.

화엄사 영원 스님은 "올해는 많은 분들이 소원하는 것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정성껏 통일쌀 경작에 참여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직접 모판을 옮기고 모줄을 띄워 손 모내기를 하면서 통일쌀 경작에 정성을 모았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홈페이지 www.maumtour.com 문의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조계종 승려연수교육과정 인증프로그램
인증번호 : 대불교연인 2018-030호

2018 불교성지순례와
달라이라마 특별법문

접수마감 ※ 선착순 모집
6월 30일 까지

법회일정 2018년 9월 4일 ~ 9월 7일(4일간)
법회장소 인도 다람살라 남걀사원 대법당
주 관 동국대학교 티벳대장경 역경원
주 최 대한불교조계종 여수 석천사

8월 28일(화) ~ 9월 9일(일)
A팀 달라이라마 법문 & 스리랑카 순례 13일
359만원 (보시금30만원포함)

8월 28일(화) ~ 9월 9일(일)
B팀 달라이라마 법문 & 부탄 성지순례 13일
419만원 (보시금30만원포함)

9월 02일(일) ~ 9월 9일(일)
C팀 불교란 무엇인가? 달라이라마 법문 8일
199만원 (보시금30만원포함)

8월 27일(월) ~ 9월 9일(일)
D팀 달라이라마 법문 & 인도 성지순례 14일
299만원 (보시금30만원포함)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포교 진흥 위한 군승 야단법석 '눈길'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제1회 군승 설법대회 개최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여러분 스트레스를 없애려 하지 말고 생각을 바꿉시다. 우리는 스트레스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유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로 나뉩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을 가득 메운 군포교 관계자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동료 군승법사의 설법을 경청하는 군승법사들부터 부대에서 단체로 설법을 듣기 위해 나온 백마부대 군장병들과 부대 신도들까지 사상 처음으로 열린 육해공군 설법대회에 쏟아진 관심은 뜨거웠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선묵 혜자)는 6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제1회 육해공군 설법대회를 개최했다.

군승 파송 5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 군종특별교구장이자 동국대 이사장인 자광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총무부장 지현 스님 등 스님들과 육해공군 군승법사 80여명, 각 부대 신도와 군장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설법대회에 참가한 한 군승법사가 삼법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설법대회 시작은 부교구장 남전 스님의 사회로 문을 열었다. 남전 스님은 "모든 조직은 사람과 물적자원을 바탕으로 성장한다. 군포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군승"이라고 분위기를 달궜다.

군종특별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도 "1968년 군승 1기 5명의 탄생을 계기로 군불교 역사는 시작됐다. 이번 대회는 군승 파송 50주년의 의미를 특별히 새기며 군승의 자질과 포교열정, 설법 역량을 불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함"이라며 "경연이라는 말을 붙였지만 설법의 대향연이라 달리 부르고 싶다. 환희심을 통해 자성불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 대한 종단 차원의 관심은 높았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지현 스님이 대독한 격려사를 통해 "부처님께서는 보배를 가득 채워 모든 여래에게 보시하여도 하나의 법보시보다 못하니 법보시의 공덕은 한량없다고 하셨다. 출가사문으로 설법을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오늘 함께 한 군승 여러분 모두 군포교와 향후 종단 발전에 큰 공헌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대중을 일깨우는 사자후를 토해내 주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날 설법대회에는 석림 박민구, 수종 박영호, 상월 박태환, 지명 손상민, 정행 정준영, 순철 서정대, 무진 이상욱, 균재 강혜림, 법현 김민균, 지현 박재윤, 여거 이원우 군승법사의 재치 넘치는 설법을 선보였다.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설법도 젊은 군승법사들이 PPT를 활용해 재미를 더했다. 영화 '신과함께'에서 나온 업경대 이야기가 설법 주제로 나오자 웃음이 터져나왔고, 각자의 부대 군승법사를 응원하기 위한 신도들의 함성도 커졌다.

군승법사들은 '마음의 장난 스트레스' '지금 이순간' '죽음, 그 새로운 시작' 등 불교 교리 뿐만 아니라 현 시대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주제로 설법을 진행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 중간 쉬는 시간 마다 LMB싱어즈의 공연도 함께 펼쳐지는 등 문화마당으로 전개됐다.

대회서는 총무원장상에 균재 강혜림 군승법사, 포교원장상에 법현 김민균, 순철 서정대 군승법사, 교구장상에 여거 이원우, 수종 박영호 군승법사가 선정됐다.

이날 대회를 참관한 한 군승법사는 "동료 군승법사들의 설법을 통해 개선점을 발견할 수 있어 좋았다"며 "부대에서 장병들의 관심을 높이고 효과적인 설법이 되도록 설법 개발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심 사찰서 한국 전통차 체험하세요"

봉은사 6월 20일 전통차 체험관 연회다원 개원

서울 봉은사는 6월 20일 연회루(구 종루)에서 전통차체험관인 '연회(緣會)다원' 개원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번에 개원한 '연회다원'은 봉은사 창건주인 연회국사의 법호인 연회(緣會)를 딴 전통차체험관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불교문화와 차 문화의 우수성 알리고자 건립됐다.

그동안 봉은사에는 연간 수십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 사찰임에도 기도 · 수행 등 공간인 법당을 비롯해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봉은사는 이에 '연회다원' 개원을 통해 100여명 동시 수용이 가능한 쉼터 또한 확보하게 됐다.

연회다원은 입식과 좌식 모두 가능하며 연차, 연근차, 올방개차, 대추차, 오미자차 등 10여 종의 다양한 차를 맛볼 수 있다. 또 차를 내리는 과정부터 마시는 법을 배우고 직접 체험할 수 있다.

개원식에서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인연과 모이는 뜻을 지닌 이 곳에서 차를 나누며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며 "많은 분들에게 항상 건강하고 좋은 차를 준비하여 즐겁고 향기로운 연회다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봉은사는 같은 날인 6월 20일 법왕루와 부도전에서 영암당 임성대종사 열반 31주기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 추모 다례재에는 주지 원명 스님을 비롯해 사중 스님과 신도 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02)3218-4812

노덕현 기자

조계종 화쟁도서 독후감 8월 31일까지 공모

초등부 · 중고등부 · 일반부 나눠

최근 남북관계 개선을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의 '화쟁' 언급이 주목받는 가운데 조계종이 '2018 화쟁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실시한다.

올해 화쟁도서 독후감 대상 도서는 △초등부 〈아무도 지나가지 마!〉(이자벨 미뇨스 마르틴스) 〈고릴라에게서 평화를 배우다〉(김황) △중 · 고등부 〈군대가 없으면 나라가 망할까?〉(하승우) 〈숲은 그렇게 대답했다〉(이상권) △대학 · 일반부 〈역사는 한 번도 나를 비껴가지 않았다〉(허영철) 등 5권이다.

공모기간은 7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며, 이메일(hwajaeng@buddhism.or.kr)과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수상작은 11월 1일 조계종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자비로, 신심으로 뭉친 불자골퍼들

직할교구신도회 제2회 자선골프대회 개최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신도회장 이금석)는 6월 20일 양평 TPC골프클럽에서 제2회 생명살림 자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144명의 불자들이 참여해 36개조로 나뉘어 대회를 소화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대회 시작 전 조계종 성역화 불사와 불우이웃을 위한 기부금도 쾌척해 대회 취지를 드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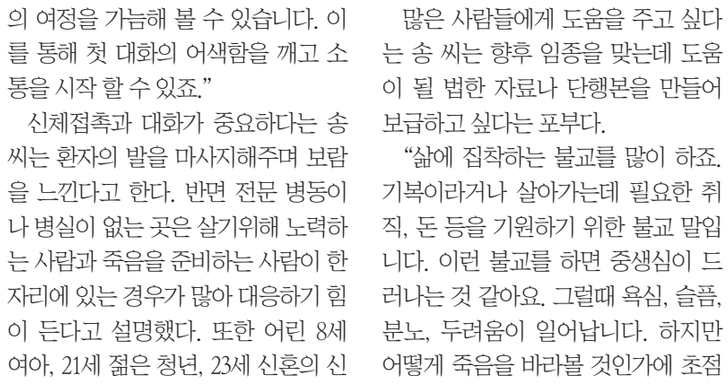
이금석 직할교구신도회장은 "다양한 스포츠를 통해 불자 네트워크와 소외계층 돕기에 나설 수 있다"며 "선입견을 버리고 이를 활용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The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다 ⑩

송지환 울산대학교병원 봉사자

"부처님 응대하듯 환자 마주해"



백련이라는 법명을 쓰는 송지환(53) 씨는 10년간 호스피스 봉사를 해왔다. 현재는 울산대학교병원 93병동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송 씨는 2008년 여름 정토마을 능행 스님이 주최하는 아미타호스피스 27기 교육을 수료하고 1주일간 실습을 마치고 바로 봉사현장에 뛰어들었다.

"환자를 만나면 먼저 발마사지를 해드립니다. 금강경 '세족이부좌이좌(洗足已敷座而坐)'를 떠올리며 부처님 발을 씻어드린다는 마음으로 임합니다. 발을 만져보면서 굳은살과 상처, 발톱의 두께 등을 통해 그분의 삶의 여정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첫 대화의 어색함을 깨고 소통을 시작 할 수 있죠."

신체접촉과 대화가 중요하다는 송 씨는 환자의 발을 마사지해주며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반면 전문 병동이나 병실이 없는 곳은 살기위해 노력하는 사람과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한 자리에 있는 경우가 많아 대응하기 힘이 든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린 8세 여아, 21세 젊은 청년, 23세 신혼의 신랑이 호스피스에 왔을 때는 소통도 힘들고 마음이 많이 아팠다고 한다.

송 씨는 10년간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로 정토마을 자재병원서 만난 60대 여성환자를 꼽았다. 당시 환자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고, 홀로 기사식당을 운영했다. 당신의 이야기를 1시간동안 숨 가쁘게 들려주곤 1시간 뒤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사경을 헤매며 자신의 삶을 되짚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 환자와 깊이 연결됨을 느꼈다고 한다. 송 씨는 이 환자와의 대화가 송 씨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경책의 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막연하게 두려워하죠.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요. 죽음을 삶처럼 자연스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송 씨는 향후 임종을 맞는데 도움이 될 법한 자료나 단행본을 만들어 보급하고 싶다는 포부다.

"삶에 집착하는 불교를 많이 하죠. 기복이라거나 살아가는데 필요한 취직, 돈 등을 기원하기 위한 불교 말입니다. 이런 불교를 하면 중생심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럴때 욕심, 슬픔, 분노,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어떻게 죽음을 바라볼 것인가에 초점을 둔 죽음을 준비하는 불교를 하면 이 모든것이 보잘 것 없어집니다. 이런 불교를 하면 많은 것을 내려놓아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는?

말기질환 환자 및 가족들의 생명존엄성을 높이기 위한 불교 호스피스 단체로서 2009년 창립됐다. 각 지역 · 지부 불교호스피스 활동을 총괄하며 조계종 승려연수 일환으로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1기를 모집 중이다.

▶조계종 승려연수교육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승려연수 30점 인증

①임상과 수행의 만남 ②환자의 심리와 욕구 ③영적 대화기법 ④죽음 현상들에 대한 직관 ⑤임종간호와 영적돌봄의 실제 ⑥불교의 생사관과 정토신앙 ⑦불교적 임종의식과 입관의식 ⑧임종시점에서 西歸直指의 방법론

- **교 육 비** | 25만원(법납 10년 미만 및 학인스님 5만원 감면)
- **접수문의** | 052)255-8522, 8524, 8530 / www.kbha.kr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극락왕생
자동승강장치 특허 자동승강장치 특허 절첩식 연등 특허 LED 전구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1910년 촬영된 익산 미륵사지 남동측과 1915년 일제가 콘크리트로 수리한 이후의 남측 모습.



1998년 이후 20년 간의 수리가 마무리된 현재의 서남측 모습.

숫자로 본 미륵사지 석탑 수리

20년
미륵사지 석탑 수리 기간.
단일 문화재 수리 중 최장 기록.

185t
3년 동안 제거한 콘크리트의 양.
미세물 제거에 스케일링 기계 사용.



5건
개발된 보수 기술 중 특허 받은 개수.

9,947개
2009년 발견된 사리장엄 유물 개수.



81%
현대 보수 기술을 통한 부재 활용도.

익산 미륵사지 석탑 온전한 모습 찾다

국립문화재硏, 20일 현장 공개… 20년 걸친 수리 마무리

1998년 구조 진단 후 해체 결정
흉물 콘크리트 3년간 전부 제거

기존 부재 81% 활용… 보강작업
복원 형태 '부분 복원'으로 결정
추정 복원 지양 · 부재 하중 고려

7~12월까지 주변 정비 진행 이후
내년 3월 12일 최종 준공식 예정

익산 · 글= 신성민 기자, 사진= 박재완 기자

일제강점기 최악의 문화재 수리 피해 사례인 익산 미륵사지 석탑(국보 제11호)의 수리와 복원이 20년만에 완료됐다. 흉물스럽게 발라져 있던 남동측 콘크리트는 전부 사라졌고, 현존하는 기록에 근거해 석탑은 온전한 모습을 되찾게 됐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최종덕)는 6월 20일 익산 미륵사지 현장에서 지난 20년간의 작업 끝에 최근 수리를 마친 미륵사지 석탑의 모습과 조사연구 성과를 공개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 해체 보수는 1998년 전라북도의 구조안전진단 결과 콘크리트가 노후화되고,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는 판단에 따라 1999년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이후 2001년부터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전라북도와 함께 석탑의 본격적인 해체조사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학술 · 기술 조사연구, 구조보강, 보존처리 등을 시행했다.

20년 간 들어간 사업비만 총 230억 원이 투입된 미륵사지 석탑 수리 · 복원은 단일 문화재로는 최장기간 동안 체계적인 수리를 진행한 사례이다.

185t의 흉물 콘크리트를 걷다

목탑 형식을 차용해 석탑을 조성했던 백제 불교 건축의 우수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미륵사지 석탑은 크기가 25m로 추정될 정도로 웅대하다. 석탑 수리 · 복원 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인 사업 진행이 들어간 2002년부터 가장 오래된 시간이 걸린 작업 중 하나는 석탑의 해체였다.

열화된 것으로 파악됐던 콘크리트는 내부는 아직 단단한 조직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를 일일이 정을 이용해서 깨고 걷어냈다. 잔존하는 콘크리트들은 치과 스케일링 기계를 이용해서 제거했다. 콘크리트 해체에만 3년의 시간이 걸렸고, 제거한 콘크리트 양만 185t에 이른다.

콘크리트를 제거한 이후에는 3D스캐닝을 통한 해체 전후 부재별 형상 정보를 확보하고 석탑의 상태 진단과 구조 해석이 이뤄졌다.

해체 작업이 이뤄지면서 한국 발굴사를 다시 쓸 만한 발굴도 이뤄졌다. 2009년 1월 14일 금동사리호, 금제 봉영기 등 약 1만여 점의 사리 장엄 유물이 출토된 것이다. 이를 통해 미륵사 창건 배경 및 발원자, 석탑 건립 시기 등이 확인됐다.

추정 복원 아닌 역사성 기반 복원

석탑 해체 작업이 완료되고 이후에는 어떻게 석탑을 보수정비 방향의 문제가 남았다. 당시에는 해체 전 형태 유지부터 부분 · 완전 · 라임스톤 활용 · 두랄미늄 활용 등 다양한 복원안이 제기됐다.



수리가 완료된 미륵사지 석탑 동북측 모습.

전문가들과의 논의 끝에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기존 부재를 최대한 활용해 6층까지 되살리는 '부분 복원'을 선택했다.

이에 대해 배병선 미륵사지석탑보수사업단장은 "현재 남아 있는 부재가 7층 이상은 존재하지 않고, 최종으로 남은 기록 사진도 6층까지 확인된다"면서 "보수정비 방향 중 하나가 '추정 복원 지양'이었다. 남아있는 상태로 수리함으로써 역사성을 그대로 보존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전통에 현대 기술을 더하다

해체한 부재들을 사용하기 위한 작업도 이뤄졌다. 해체 부재를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균열 등이 훼손이 심했기 때문이다.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기존 부재는 47%에 불과했다.

이에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부재 보전처리와 보강을 위한 기술들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풍화도에 따른 금속보강방법' 등 5건이 기술특허를 받기도 했다.

실제 보수된 석탑을 살펴보면 기존 부재와 신부재가 조율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기존 부재를 성형 후 티타늄 소재의 보강재를 박아넣어 새로운 부재와 에폭시로 접합한 것부터 부재 사이 공극을 무기질 신소재로 충전하는 등의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흔적이다.

이 같은 현대 기술의 도입으로 보수된 석탑은 기존 부재를 81% 활용해 새로 쌓아 올려 부재 활용도를 대폭 늘리는 성과를 보였다. 최종적으로 1,627개 부재가 사용돼 14.5m 높이의 석탑으로 새로운 모습을 찾게 됐다.

김현용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는 "원래의 부재를 최대한 재사용해 석탑의 역사성을 확보하고 과학적 연구를 통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최종덕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국제적으로 가장 공신력있는 기준으로 수리 · 보수해냈다"며 "문화재 수리 · 복원 · 보수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석탑 조성 1380주년 맞아 준공

미륵사지 석탑은 오는 7월부터 12일까지 가설시설 철거 및 주변 정비를 거쳐 국민에게 공개된다. 내년 1월에는 수리 · 보수 완료를 기념하는 국제학술심포지엄이 개최되며, 공식적인 준공식은 내년 3월 12일 열린다.

최종덕 소장은 "사리를 봉안한 날짜가 639년 음력 1월 29일이다. 꼭 1380주년 되는 날에 준공날짜 잡았다"며 "이후에도 그동안의 수리 과정과 결과를 담은 보고서 발간, 기술교육, 학술행사 등을 통해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범종의 명가 성종사가 만들면 풍경(풍탁)도 작품이 됩니다

풍탁과 연꽃 풍경 모두 대·중·소 3가지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람판도 물고기, 연꽃, 구름 3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선택 가능 합니다.



특징
❶ 체인이 동재질이 아닌 스텐레스 재질로 되어 있어 강도와 내식성이 우수합니다.
❷ 바람판이 두꺼운 황동재질로 되어 있어 견고하고 바람에 덜 흔들려 소리가 은은합니다.
❸ 바람판과 풍경의 디자인이 세련되고 아름답습니다.
❹ 바람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람판 : 물고기, 연꽃, 구름)

견고하고 아름답고
소리 좋은 풍경(풍탁)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바람에 강하고 아름다운
최고급 명품 풍경(풍탁)

聖鐘社 SUNG JONG SA

◆ 전시장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3
◆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습지길 35
◆ 사이트 : www.sungjongsa.co.kr



연꽃 풍경

1) 황금컬러
2) 무늬
3) 민무늬 3종

구입문의
성종사
☎ 02)733-6141

불교진흥원 화요열린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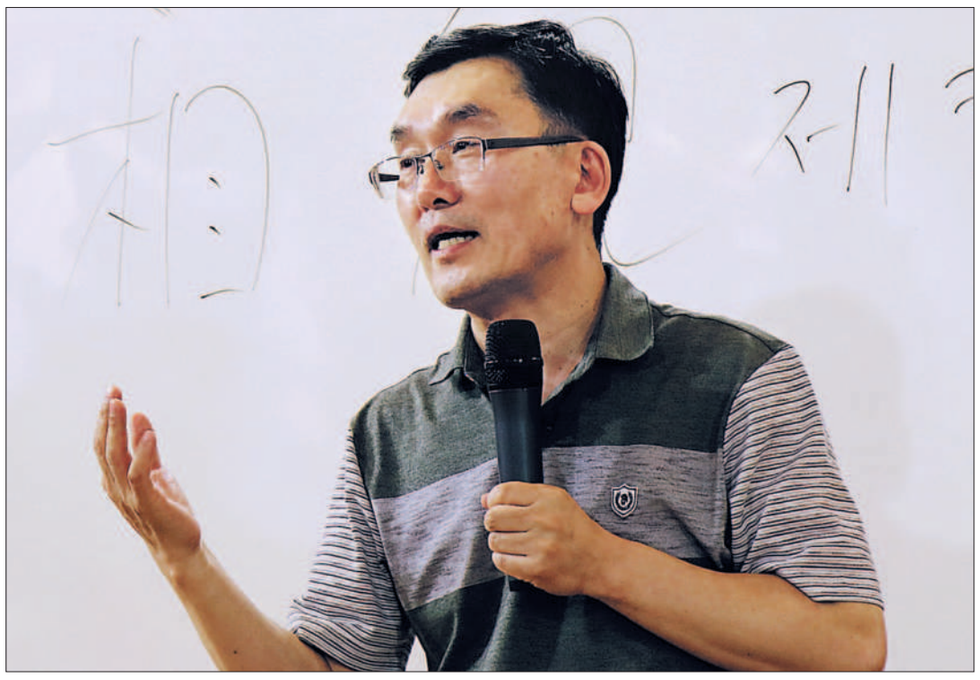
"나무에도 귀의하자…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을 외는 한 인문학자가 있다. 그는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처럼 나무에 귀의하길 제안한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각범)은 6월 19일 서울 마포 다보빌딩 3층 다보원에서 책 〈나무예찬〉의 저자 강판권 계명대 사학과 교수를 초청해 화요열린강좌를 개최했다. 강판권 교수는 '나무처럼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주제로 강의했다. 강 교수는 "나무는 누구든 평등하게 만날 수 있는 존재"라며 "나무 관찰을 통해 자기 자신과 삶을 발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원 수습기자

주제 : 나무가 안내하는 마음공부법

강판권 계명대 사학과 교수



강판권 교수는… 계명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중국 청대사를 전공, 계명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역사학자이자 인문학자로서 나무를 16년간 연구했으며, 25권의 관련 저서를 썼다. 주요 저서로는 〈어느 인문학자의 나무 세기〉〈나무예찬〉 등이 있다.

저는 오늘 인문학자로서 나무를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그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무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존재이지만, 정작 나무를 만나는 방법을 잘 모르거나 오해해서 나무와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무 만나는 법을 제대로 알면,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훨씬 더 우리가 쉽게 극락에서 사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나무에 귀의하는 염불

제가 좋아하는 염불이 '나무, 관세음보살'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아재개그같은 말이지만, 그걸 좀 더 뜯어보면 나름의 철학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주불로 모시고 있는 전각을 '원통전'이라고 부릅니다. 관음전이라고도 부르는데, 원은 둥글 원, 통은 통할 통을 씁니다. 나무도 둥급니다. 둥근 모양의 나무가 이 세상 소리를 다 듣고, 또 사람들이 그 나무를 만나서 나무에게 많은 지혜를 배우는 것처럼, 관세음보살에게 귀의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무에게도 귀의한다면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제가 나무를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일상에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만나서 거기서 혁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무와 진정으로 만나는 것을 가장 위대한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일상에서, 삶속에서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도 없을 겁니다.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지 않아도, 나무 만나는 법만 제대로 안다면 가장 가까이, 쉽게, 저렴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나무를 이야기해야만 우리의 존재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큰 주제는 '자존(自尊)'입니다. 자존을 핵심으로 해서 관련한 이야기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 자존을 드러내는 방법으로써 나무를 이야기하고, 나무를 보는 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존을 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여부가 결국 삶의 가치와 의미를 갈라놓는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존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삶의 목적이고, 그 방법 중 하나로 나무를 이야기하려 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통해 자기수용하기

나무를 만나는 법 첫 번째는 '관찰'입니다. 자존은 하늘이 부여한 그 자체이고, 정체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사람은 애초부터 청렴한 존재입니다. 하늘에게 받은 착한 본성을, 자존을 드러내는 작업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이걸 다른 말로 '창의성'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능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제가 나무를 통해서 드러낸 삶이고, 그 덕분에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좋아하는 불교의 구절이 있습니다. 〈숫타니파타〉라는 초기 경전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많은 분들이 살면서 조그만 일에 많이 놀랍니다. 강아지가 작은 소리에도 짖는 것에 반해 사자는 어지간한 소리에 놀라지 않습니다. 또 대부분 사람들이 사소한 일에 걸려 넘어지지만, 바람의 경우에는 그물에 걸리지 않습니다. 무한한 잠재능력이 여러분 몸속에도 있고 사실 그 연씨 같은 종자가 빛과 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드러내느냐의 문제입니다.

나무 관찰 통해 자기수용해야
잠재성 드러내는 '自尊'의 삶
역할 · 가치의 차이 구분으로
관계의 평등성 회복해야 한다

자존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세 가지입니다. 자존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은 탓을 합니다. 핑계를 대죠. 두 번째 특징은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죠. 세 번째는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나무를 하면서 자존을 확인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과정인데, 개인적으로 수용을 못했던 것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나무 하기 전에 이마가 돌출된 것이 콤플렉스였습니다. 하지만 이 콤플렉스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돌출한 이마를 깎아낼 수 없잖아요.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수용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야한다는 겁니다. 그걸 부정해버리니 남 탓, 부모 탓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의 탓을 하면 어마어마한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 비극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막혀버린다는 겁니다.

자존에서는 '자기수용'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나무를 하기 전까지 전 키가 작은 줄 알았습니다. 제 키를 수용하면 키가 작지 않습니다. 크지도 않습니다. 제 키는 '제 키'이지, '작은 키'도 '큰 키'도 아닙니다. 오로지 '제 키'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무려 40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인정하고 수용하는 그 찰나에 잠재능력을 드러낼 기회가 옵니다.

나무를 본다는 것의 의미

관세음보살 할 때 '관'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자도 중요합니다. 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세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관찰은 대충 보는 게 아닙니다. 상이라고 하는 글자는 간단한 글자지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상이란 글자를 보면 눈 목 자하고 나무 목이 있죠. 눈으로 나무를 보는 것이 서로라는 뜻이 됩니다. 서로 '상' 자입니다. 이 관계성이 생태입니다. 마주하는 평등의 관계성이 바로 생태 그 자체입니다. 눈으로 나무를 보는 것. 마주 보는 것, 그것이 서로가 됩니다. 관상의 상 자는 얼굴이란 뜻입니다. 얼굴을 자세히 보는 것은 눈으로 나무를 보는 것과 같이 합니다. 얼굴은 결국 얼이 있다는 뜻입니다. 나무를 보는 그 찰나가 결국은 내 얼굴을 만나는 다른 과정이죠.

그런데 관상을 보니까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싫어했던, 수용하지 못했던 바로 그 이마가 절 있게 했다는 겁니다. 저를 여기 있게 한 원동력이 다 이마에 있다는 겁니다. 어록에다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본인이 가장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장점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거야말로 장점입니다. 사실은 그게 장점인데도 쳐내고 맙니다. 그걸 딱 인정하면 콤플렉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관심을 내가 다른 데 두면서 그것이 내 마음 속에서 떠나있는 겁니다. 의미를 계속 두지 않는 찰나에 다른 데 관심을 옮기는 순간 이것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야 하는데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스스로 행복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치의 전환은 곧 세계관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생태맹' 극복, 그리고 '평등'

생태는 영어로 'Ecology'입니다. 이 에코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에코는 관계성입니다. 평등의 관계성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에코는 자연생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에코는 자연상태가 아니라 관계성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갑을 관계에 대한 문제, 갑질의 문제는 생태의 문제입니다. 한 존재를 평등한 관계에서 바라보는 생태의식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생명체 간의 관계는 역할의 차이인 거지, 가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역할의 차이를 가치의 차이로 치환해버리는 겁니다. 대통령이나 나나 역할만 다른 것이지 가치의 차이는 없습니다. 역할이 다른 거지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 생태의식의 부재를 '생태맹(生態盲)'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려면 이 생태맹이 사라져야 합니다. 문맹, 컴맹이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의 화두는 바로 이 생태맹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관계성을 우리가 회복해야하고 평등한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데 말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태의 관계성을 가지고 저마다 품고 있는 수많은 종자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드러낼까에 대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이때 '관찰'이 나옵니다. 은행나무 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열매는 많이 봤는데 암꽃, 수꽃은 본 사람이 없습니다. 나무를 바라보십시오. 나무를 관찰해보세요. 나무는 수직으로 자라는데 옆으로 나이를 먹습니다. 이를 두고 종횡무진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적으로 살기 때문에 남들과 나를 비교하게 됩니다. 진정한 삶은 나무처럼 수직과 수평의 삶을 동시에 사는 종횡무진 사는 삶입니다.

나무는 하늘을 닮아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해버립니다.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뿌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안다는 것은 천지를 아는 것입니다. 요새 사람들 좀 보세요. 대중교통 타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스마트폰만 전부 봅니다. 〈역경〉에 유명한 구절 '자강불식(自强不息)'은 스스로 힘쓰면서 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전혀 의식하지 않지만 한 찰나도 흐트러짐 없이 이 움직임 때문에 여기에 존재합니다. 나무가 한 순간도 게으름 피우지 않고 잎을 만들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만들고, 반복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나뭇잎 하나 푸르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나무를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는 '평등'입니다. 재벌이라도, 정말 가진 게 없는 사람이라도 내가 보고 싶은 나무를 만나러 간다면 똑같이 가야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와도 나무 앞까지는 직접 가야합니다. 그리고 나무는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대해주죠. 돈 많다고 더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평등한 존재인 나무, 그것이 제가 나무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제4회
자살예방 및 자살유가족을 위한
템플스테이
'마음 돌아보기, 어루만지기'

일 시 2018년 7월 7일(토) ~ 8일(일) / 1박 2일
장 소 대한불교조계종 금선사 (서울 종로구 비봉길)
대 상 자살예방 템플스테이 **희망자 20명**
(자살의도 및 시도자, 자살고위험군, 자살유가족 등)
내 용 집단상담, 108배, 숲속 명상 등
참 가 비 무료
접수마감 6월 30일(토)
접수 및 문의 ☎ 02-737-7378, www.kbcd.org

주최 || 이마음1080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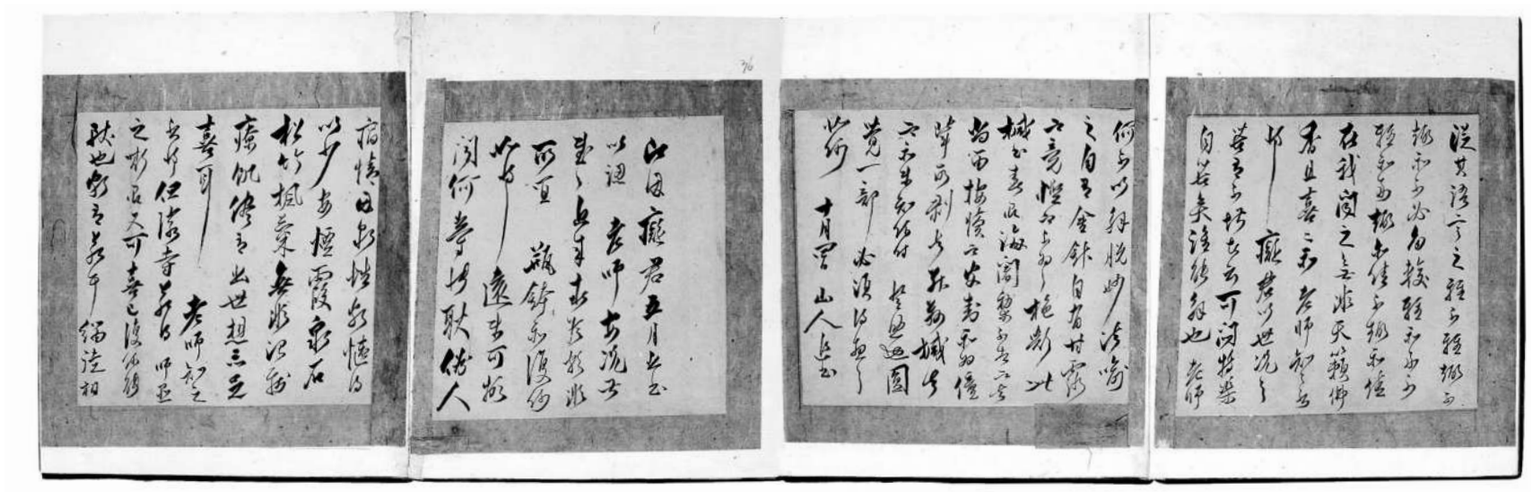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 후원계좌 : 국민은행(611225-92-121426 박성호)
※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초의 스님에게 보낸 편지 중에는 작자 미상도 있다. 사진 왼쪽부터 산인(山人)이라 자칭하는 사람이 보낸 편지와 속인(俗人)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보낸 편지.

佛·儒 교류 보여준 발신 미상 서간들



박동춘의

초의스님 前上書

⑫ 발신자 미상의 편지

초의에게 보낸 편지에는 발신인의 이름이 생략된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하지만 이런 편지들도 다양한 정보가 들어 있기에 발신자가 생략된 2통의 편지를 소개한다.

먼저 소개하려는 편지에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정보가 없는 것은 아니다. 편지의 내용에서는 발신자가 처한 정황이나 글씨체를 통해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를 추정할 정보가 숨어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간명한 정보는 편지의 말미에 수록한 내용으로 보낸 이를 추정할 수 있다.

이 편지에도 산인추서(山人追書: 산에 사는 사람이 이어 쓴다)라 쓴 것이 편지의 아래 부분에 자리하고 있다. 당시 초의는 산인(山人)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았을 터이지만 지금 이 편지를 보고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간파하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이처럼 과거와 현재의 간극은 멀어 보이지만 이런 실마리를 풀어가는 것이 연구의 묘미이다.

아무튼 발신자의 편지에는 이들이 나눈 소중한 마음의 자취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점이다. 특히 편지를 보낸 이가 소치 허련(小癡 許鍊, 1809~1892)을 통해 초의의 안부를 전했던 인물이었고 승려들과도 교유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산인(山人)이란 무슨 의미이며 이렇게 자신을 표현했던 인물은 누구일까. 대개 산인(山人)은 산림에 머물며 학문에 정진하는 사람을 칭하거나 승려라는 의미로도 쓴다. 그러나 편지의 내용으로 보아 승려는 아닌 듯하다. 따라서 초의뿐 아니라 허련과도 깊이 교유했던 인물이면서 산인이라 별칭했던 인물로는 추사나 추사와 관련이 깊었던 인물이 아닐까 짐작할 뿐이다.

먼저 소개할 편지의 크기는 22.9×22.3cm이며 10월 4일에 보낸 편지이다. 행서체로 활달하게 쓴 서체라는 점이다. 아마 이 편지를 쓴 인물은 유학자로 학문적인 식견이 높았을 것이니 이는 서체나 글 쓰는 수준에서 이미 문향(文香)이 배어 있음을 느끼게 한다. 편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치(허련)군이 오월에 보낸 편지로 인해 노사의 편안한 근황을 알게 되어 매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요즘엔 봄 날씨가 마땅하지 않은데 스님은 또 어떠하신지요. 멀리에서 자주 소식을 들을 수 없으니 얼마나 서글픕니까. 나의 병든 마음은 차(泉性)로 인해 자못 상쾌해져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안개와 연무, 돌 위로 흐르는 샘, 소나무, 대, 국화는 병을 치료하고 배고픔을 달래주지 않음이 없으니 겨우 세상을 뛰어 넘을 생각이 일어나며 또한 만족하고 기쁠 뿐이니 노사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요. 다만 이웃 절에 스님이 머물 방을 얻을 수 있어서 또한 기쁠 따름입니다. 다시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약간의 승려 중에 상종하는 이들은 그 말의 고아하고, 고상하지 않음과 아취가 있고 아취가 없음은 또한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상함도 좋고, 고상하지 않음도 좋으며, 아취도 아름답고 아취가 없는 것도 아름답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들으니 자연의 소리가 아닌 것이 없어서 부처의 향기 또한 기쁩니다. 이런 기쁨을 또한 노사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요. 소치군에게 세상의 고통으로 감당하지 못할 것이 있다고 하니 가련합니다. 스스로 만든 고통일 뿐이니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노사는 어찌 해탈묘법으로서 깨우쳐 주지 않으십니까. 자신은 금침(金針)이 있고 감로 같은 차를 가졌지만 결국은 아까워서 베풀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 편지는 봄 사이에 해(海)스님이 말하지 않고 떠나서 오히려 문서만 남아 있었고 피봉은 또 아이들이 찢어버렸습니다. 이 편지를 함께 보내지만 어느 때 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원각경〉 일부는 반드시 보내주시면 어떨지요. 10월 4일 산인이 추서하다.

卽因癡君五月之書 以認老師安øv甚慰甚慰 近來春候 頗非所宜 甁鉢亦復何如耶 遠未可頻聞 何等 ŒŒ 俗人病情 因泉性頗ŦH得以少安 煙霞泉石 松竹楓菊 無非治病療飢 æ 宥出世想 亦足喜耳 老師知之否耶 但隣寺若得師置之斯間 又可喜已 復何能致也 頗有若干緇徒相從 其語言之雅不雅 趣不趣 亦不必多較 雅亦好 不雅亦好 趣亦佳 不趣亦佳 在我聞之 無非天 ㄹ佛香且喜 喜亦老師知之否耶 癡君以世ø乇苦 有不堪者云 可悶 特渠自苦矣 誰能解也 老師何不以解脫妙法喩之 自有金針 自有甘露 而竟 ㄱ而不爲之施歟 此械書 春間海 ㄴ梨不告而去 尙留案牘 而皮封亦爲 ㅍ輩所剝去 幷玆械去 而亦未知何時登照也 圓覺一部 必須得惠之 如何

十月 四日 山人 追書

어느 해 10월 4일 초의에게 보낸 이 편지에는 소치(小癡)의 어려운 상황을 상세하게 전하고 있다. 바로 "소치(허련)군에게 세상의 고통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 있다고 하니 가련합니다. 스스로 만든 고통일 뿐이니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편지 내용서 친밀한 교분 확인
山人 칭한 편지, 글 수준 높아
학문적 식견 높은 유학자 추정

옹방강 영정 대여 요구한 편지
대흥사에 관련 도서 소장 확인

라고 한 내용이다. 그리고 소치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비책을 "노사는 어찌 해탈묘법으로서 깨우쳐주지 않으십니까. 자신(초의)은 금침(金針)이 있고 감로 같은 차를 가졌지만 결국은 아까워서 베풀지 못하는 것입니까"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실제 소치에게 어려웠던 일이란 무엇일까. 그 대강을 추적해 보면 1850년 12월 3일 허련의 아우 허종(許鍾)이 초의에게 보낸 편지에 "늙으신 어버이의 병까지 더해져 조카의 통곡을 눌러 막아도 그치질 않습니다. 또 사또의 도에서 보낸 관지(關旨)까지 도착하여 동생 형제가 한바탕 옥에 갇혔으니 무슨 운수가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요"라고 한 내용이 보인다.

1850년경 소치는 한양생활을 접고 진도로 낙향하였다. 이 무렵 소치는 어버이의 병환과 동생들이 옥에 갇혔던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다. 더구나 다음 해인 1851년경엔 추사도 북청으로 유배를 떠났으니 소치에게 닥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 시점이라 하겠다.

초의에게 편지를 보낸 인물은 "이 편지는 봄 사이에 해(海)스님이 말하지 않고 떠나서 오히려 문서만 남아 있었고 피봉은 또 아이들이 찢어버렸습니다. 이 편지를 함께 보내지만 어느 때 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한 구절이 눈에 띈다. 따라서 이 편지를 쓴 시점을 밝힐 수 있는 근거는 소치의 생애를 소급해 보는 일일 터이니 이를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 편지는 대략 1850년경에 쓴 편지라 추측할 뿐이다.

한편 발신자가 불교를 깊이 이해했던 인물이었음은 "〈원각경〉 일부는 반드시 보내주시면 어떨지요"라고 말했다는 사실에 나타난다. 불교를 깊은 천착한 인물은 제주 시절 추사였다. 따라서 이 편지를 추사나 그 주변 인물로 상정하는 연유는 여기에 있다. 또 소개할 편지도 발신자 미상이다. 초의에게 보낸 이 편지는 1851년 8월에 보낸 것인데 담계 옹방강(覃溪翁方綱 1733~1818)의 영정(影幀)과 소집(小集)을 빌려달라는 내용이 보인다.

이 편지를 살펴보면 크기는 22.2×42.0cm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잠시 이별했는데, 갑자기 가을이 깊어져 그리움이 더욱 간절합니다. 사신을 그만두었으니 다시 제수되기는 어렵습니다. 소치를 빙자하여 한 번 가려고 했지만 작은 일에 매여서 오히려 미루어졌습니다. 근래에 또 집에 여러 가지 근심이 있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다가 문안의 편지도 늦어진 것은 또한 이런 연유 때문입니다. 스님은 요즘 더욱 길하고 좋으시겠지요. 그리움이 더욱 배가 됩니다. 또 순부(巡部:감사가 관할내의 고을을 순회하는 일)가 본사(대둔사)에 머문다고 들었습니다. 그 대접하는 바가 장애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보니 속인의 폐국은 잡다하여 무시로 풀어야하니 정말 민망합니다. 현재의 상황으론 또 갚을 수도 없습니다. 고시(古詩) 삼수(三首)는 일찍이 지었던 것인데 지금에야 겨우 기록해 보내니 보시고 또 교정을 부탁합니다. 본사에 담계 영정(覃溪影幀)과 소집(小集)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지와 상의하여 한번 빌려 볼 수 있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죽피를 보내니 만들 수 있으면 만드시고 어려우면 버려두셔도 무방합니다. 향유 2승, 감곽 두 속을 부칩니다. 나머지는 소치 편에 남겨두겠습니다. 이만.

1851년 8월 22일 속인 늑명

서화 중에 만일 빌려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조심하여 보고, 곧 술 단지를 보내겠습니다.

暫奉旋別 遽爾秋深 懷想益切 祓使又難拜 憑小痴間欲一造 而緣於細務 尙爾延拖 近又在家多累 未果此一書之稽探 亦由是矣 Æ\錫近益吉祥 溯念尤倍 且聞巡部嘗宿本寺云 其所接應 想多 ㅍ尋也 亦爲一念 俗人弊局Œs擾無時解脫 良悶良悶 現狀亦無可報也已 三首古詩 曾已 置 今才錄去 覽亦 正也 本寺聞有覃溪影本與小集云 與住持相議 借一覽之 則甚幸甚幸 竹皮亦送去 可造則造之 難則置之 亦無妨耳 香油貳升 甘藿貳束 付去耳 餘留痴便 不式

八月 卄二日 俗人 泐名

書畵中 如有可借示者 當精覽卽瓠也

발신자는 초의에게 "고시(古詩) 삼수(三首)는 일찍이 지었던 것인데 지금에야 겨우 기록해 보내니 보시고 또 교정을 부탁합니다"라고 하였다. 옹방강을 흠모했기에 영정과 문집을 빌려 보고자 했던 인물이었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청대에 고증학과 금석학에 밝았던 옹방강으로 추사에게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고증학에 관심을 가졌던 조선 후기의 인물이라면 누구나 담계를 흠모했던 당시의 시대 흐름을 드러낸 편지인 셈이다. 아울러 발신자는 대흥사에 순부의 관리들이 머물게 되어 절의 부담을 걱정했으니 초의에 대한 교유의 정이 깊었던 유학자이며 소치와도 관련이 있었던 인물이다. 따라서 이 편지는 유불의 단단한 교유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로, 대흥사는 옹방강과 관련된 도서들이 소장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 하겠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제99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8년 7월 23일 월요일 개강
◆ 강의일시 :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붓다 핸썸(Hands UP)! 희망 붓다!

제61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에서는 **"붓다 핸썸(Hands UP)! 희망 붓다!"** 라는 주제로 **제61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열고 함께 소통**하며, 계층포교의 희망을 불어 넣어주는 알찬 프로그램을 통하여 활력의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통하여 법회, 여름불교학교, 템플스테이의 희망을 붓는 **고민타파의 기회**로 강습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재교구 자료 전시와 수시 상담을 통하여 여름불교학교 고민을 한방에 털어버리는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❶ 주 제 : 붓다 핸썸(Hands UP)! 희망 붓다!
❷ 일 시 : 2018년 7월 7일(토) 오전 9시 ~ 오후 6시
❸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삼보사 (서울 은평구 진흥로 99-4)
❹ 대 상 : 계층법회 및 불교학교 지도자, 템플스테이 실무담당자, 포교사 등
❺ 참가비 : 6만원 (사전 접수 시 5만원)
입금계좌번호 - 국민 610301-04-132532 / 농협 053-01-267940 (예금주 :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 참가비 입금 확인 후 접수 완료.
참가비 입금 미확인시 당일접수 참가비 적용.
※ 환불은 사전 접수 기간 내에 취소하신 분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교재와 기념품으로 대체하여 발송.
※ 단체별 10인 이상 접수 시 10% 할인 / 제주도, 군종병 3만원.
※ 본회 정기 후원회원은 무료.
❻ 준비물 : 개인 물컵, 필기도구

❼ 일정표

시 간	내 용
09:00~09:30	접 수
09:30~10:00	[Ice Breaking] Put Your Hands UP!
10:00~10:30	입 재 식
10:30~12:00	[강의 ①] 찬불가 율동의 활용과 실제 - 붓다의 노래, 희망의 노래
12:00~15:30	점심공양 [강의 ②] 체험활동 - 부처 핸썸! 희망 붓다! * 소통의 펜아트 : 친구와 함께 만드는 펜아트 * 붓다샤인보틀 : 나만의 부처님, 나만의 샤인보틀 * 반짝이는 소원등 : 희망의 소원 담은 우드 등 만들기
15:30~15:40	휴 식
15:40~17:20	[강의 ③] 레크리에이션의 활용과 실제 - 마음 열고, 부처 핸썸! (Put Your Hands UP!) 소통놀이
17:20~18:00	회 향 식

※ 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
※ 사전접수 마감 : 2018년 7월 2일(월) 오후 6시까지
※ 인터넷(이메일), 팩스 접수 후 참가비 입금
▷ 다음까페에서 안내문 다운, 작성 후 이메일 접수
다음까페 - http://cafe.daum.net/burec
E-mail - burec@daum.net
▷ 첨부된 안내문을 작성하여 팩스 접수
Fax. 02-738-7863
▷ 스마트하게 카카오톡으로 신청하기
플러스친구에서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검색, 친구 추가
▷ 전화 접수 가능 : ☎ 02-738-78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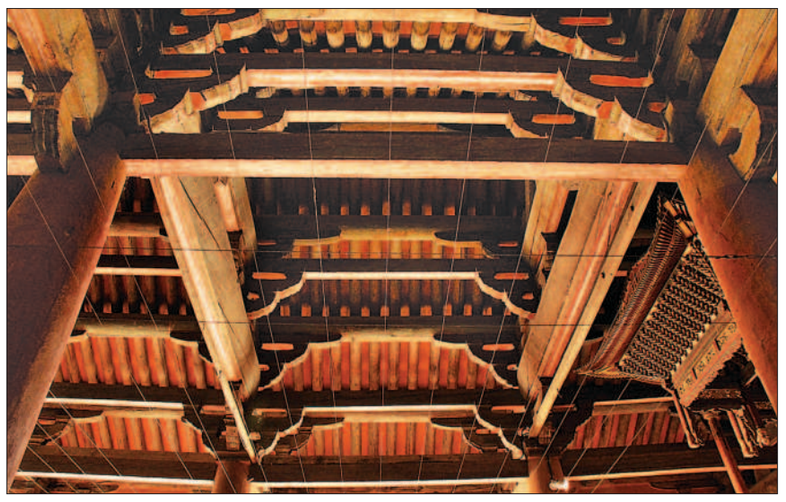
❽ 접수 : 선착순 100명
❾ 문의 :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사무국(02-738-7860 / 02-739-4967)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자연과 교리의 원융으로 구현한 극락정토


무량수전에 담긴 교리와 차경으로 경영한 소백산 연봉들.


독존으로 모신 아미타불.


무량수전 내부.



노재학의
한국 산사의 장엄세계
⑫ 부석사 무량수전

화엄사상과 아미타신앙의 조화

부석사 가람은 하나의 완결된 통일성의 유기체에 가깝다. 지형과 건축, 불교교리, 서사의 맥락들이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다. 부석사 가람경영에 발휘한 절묘한 지혜는 무엇보다 입지선정의 탁월한 안목에 있을 것이다. 국토의 등뼈 백두대간은 태백산에서 몸을 비틀어 서남으로 아스라이 내달려 소백산의 연봉들로 굽이친다. 비로봉, 연화봉, 도솔봉 등등, 그 연봉들은 이름에서부터 불교세계관을 반영한다. 불국의 연봉들을 안산(案山)으로 삼은 부석사는 첩첩산산 소백산의 봉우리들을 담대히 끌어들여 무한히 확장된 법당 마당으로 경영했다. 수준 높은 안목으로 산지지형을 탁월하게 재해석하여 화엄교리와 극락정토 구품세계를 대담하게 구현했다.

부석사 가람경영에 구현된 불교교리는 〈60화엄경〉의 7처 8회 34품에 따른 '십지론(十地論)', 혹은 〈관무량수경〉에 바탕을 둔 구품왕생 극락정토사상으로 해석한다. 〈화엄경〉의 세계는 비로자나불의 연화장세계이고, 〈무량수경〉 등 정토신앙은 아미타여래, 곧 무량수불의 극락정토세계다. 그런데 부석사를 창건한 의상스님의 화엄사상은 아미타신앙과 조화를 이루는 특징을 갖는다. 의상스님이 출가한 경주 황복사 삼층석탑에 봉안한 순금제 아미타불상, 낙산사에 전해지는 관음신앙 등에서 화엄사상에 흐르는 아미타 극락정토 신앙의 바탕을 읽을 수 있다. 일승의 입장에서 아미타 극락정토는 화엄의 연화장세계와 원융 상즉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 그것은 극락정토가 타방세계에 실재하는 불국토가 아니라 깨달음의 세계, 곧 중생의 마음속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의상스님의 화엄학은 아미타신앙의 바탕 위에 새로운 화엄사상을 조화롭게 통합한 일승 아미타불의 특징을 갖게 되었다. 그 사상의 특성은 부석사의 건축조영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부석사의 조망과 축선들이 광대무변의 파노라마로 펼쳐진 소백산 능선의 비로봉, 연화봉, 도솔봉 등을 끌어안아 아미타여래 극락정토와 원융을 이룬 화엄의 연화장세계를 구현하고 있다. 그 장면은 마치 〈화엄경〉 '화장세계품(華藏世界品)'에서 큰 연꽃 안에 금강륜산(金剛輪山)이 한 바퀴 둘러쳐 있으며, 그 안에 무수한 불국 세계종(世界種)이 있다고 설법한 장면을 연상케 한다. 광대한 스케일로 펼쳐진 소백산 자락의 산봉우리들을 교리체계와 거시적인 통일을 이루게 한 참으로 놀랍고도 대범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석단과 계단, 프레임의 다양한 변주

가람경영에서 나타나는 높은 축대의 구성 역시 화엄계 사찰의 특성에 가깝다. 불국사나 해인사, 범어사, 구례 화엄사 등 화엄종찰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이다. 높낮이가 다른 축대로 경사진 산지지형을 기승전결 형식으로 경영해나가는 특성을 갖는다. 건축장치들의 조영과 배치들도 대단히 창조적이며 탁월하다. 석단과 계단의 중첩, 반복, 굴절 등을 통해 수직, 수평, 사선이동을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계단을 오르게 하고 평지에서 숨을 돌리게 한다. 게다가 틈틈이 건축 프레임의 다양한 변주를 통해 능수능란하게 공간을 열고 숨겨둔다. 프레임 너머 공간에 대한 심리적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해서 자연스러운 동선으로 유도하는 대목은 기발한 연출에 가깝다. 경사진 지형에 장치한 계단이나 프레임, 시선의 굴절을 통해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해석하여 이끌어간다. 가파른 경사 길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심리를 다루는 능력이 감탄할 만하다. 자연, 종교, 지형을 통합하고 아우르는 전지적 가람 경영능력은 무량수전에서 대미를 장식한다. 자연과 교리를 일체화한 거시의 안목에서 건축가구의 디테일에 이르기까지 건축미학의 완결성이 결집한 공간이다. 무량수전은 부석사 모든 지형해석의 결절점이면서 성스러운 교의가 현현하는 상징 성소, 곧 히에로파니(hierophany)다.

무량수전은 색채 장엄보다는 역학성의 구조미로써 조형의 의장미를 대신한 노동집약적 장인정신이 밴 설치예술

역학의 구조 미학과 수리적 비례 미학

무량수전은 뼈대의 건축이다. 가구식 결구의 역학성을 그대로 노출해서 목조건축의 구조적 아름다움이 진솔하게 드러난다. 색채나 장식을 절제한 직선의 뼈대에서 가식 없는 윤리의 미의식을 느낄 수 있다. 장식성의 세부 요소는 절제하면서 정연한 논증처럼 체계의 조화로움을 추구한다. 인체의 뼈대 같은 위상학과 역학의 필요성만으로 결구한 간결함 속에서도 통일된 숭고한 힘이 흐른다. 역학공간의 경영에 고전주의의 질서와 비례, 균형의 덕목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비례와 균형의 안정감은 수리비율, 대칭, 착시효과에 대한 교정 등으로부터 파생한 미감이다. 무량수전 평면비례에 나타나는 수리비율은 황금비에 근사한다. 무량수전의 평면구성은 정면 5칸(18.7m), 측면 3칸(11.6m)의 규모로 이뤄져 있다. 측면 세로를 1로 보았을 때 정면 5칸 가로의 값은 1.62로서 황금비 1.618로 나타난다. 무량수전의 높이도 측면의 길이와 거의 같은 11.7m이다. 무량수전을 입방체로 보았을 때 가로: 세로: 높이의 비가 1.618: 1: 1의 비를 가진 대단히 안정된 황금비의 구도를 보인다. 무량수전에서 느끼는 비례의 안정감은 건축에 내재된 수리적 비례, 곧 황금비의 체감에서 비롯함을 알 수 있다.

무량수전의 내부는 목조건축의 뼈대미학이 돋보인다. 수직과 수평, 사선의 건축부재들이 중첩, 대칭, 반복 등의 질서정연한 짜임으로 공간 속의 공간으로 분할하고 심층화 한다. 연대하고 분화해서 중중무진의 법계우주를 구현하고 있다. 아미타불(무량수불)은 협시보살 없이 독존으로 서쪽에 모셔 동향으로 바라보게 했다. 서방 극락정토에 상주하시는 아미타불의 교리에 따른 배치임을 알 수 있다. 내부 고주의 수직 열주들과 가로부재들로 형성되는 프레임의 중첩 속에 바라보게 함으로써 숭고함의 깊이를 극대화 한다. 그런데 왜 무량수전의 아미타불은 보처보살도 없이 독존으로 계시는 것일까? 1054년에 건립한 것으로 추정하는 〈부석사 원융국사비문〉에 그 대목이 나온다.

"일승(一乘) 아미타불은 열반에 드는 일이 없으며, 시방정토를 체(體)로 삼고 생멸상이 없다. (중략) 그런 까닭에 보처보살을 조성하지 않으며 탑도 세우지 않으니 이것이 일승의 깊은 뜻이다."

일승법이라는 것은 곧 깨달음에 의해 부처가 되는 것이다. 그 궁극적인 한 길만을 제시하므로 소승의 아라한도, 대승불교의 상징인 보살도 조성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또한 열반에 들지 않고 생멸상이 없으므로 열반에 든 석가모니를 모신 석탑도 조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승법의 화엄사상이 근원에 깔린 독특한 아미타 정토신앙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귀한 거룩함과 적멸의 아우라

무량수전의 내부천정은 건축부재들을 생김 그대로 노출한 연등천정이다. 기둥과 대들보, 도리, 서까래, 대공 등 골조를 이루는 나무들이 더불어 숲을 이룬다. 수직과 수평, 사선들이 공간을 지배하듯 종횡무진 한다. 보와 도리 등 핵심 부재들을 선분처럼 비교적 짧고 곧은 부재로 충당함으로써 초공이라든지 짧은 장여, 뜬창방 등 다양한 보조 보강재들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간결한 선 형태의 부재들이 짧고 단단하게 결합하여 구조역학의 힘과 아름다움을 연출한다. 그것은 마치 에펠탑 같은 철골 구조물에서 평면이 사라지고 대신 무한한 공간의 짜임과 골조미를 드러낸 것과 같은 이치일 것이다. 건축부재의 길이, 굵기, 무게감에 다채로운 변화와 강약의 악센트를 준 것이 무엇보다 인상적이다. 길고 짧은 것, 굵고 가는 것, 무겁고 가벼운 것 등 상대성의 형상들이 엮이고 결구되는 모양에서 산조가락의 미묘한 장단을 느끼게 한다. 직선의 뼈대로 리듬 갖춰 정교하게 조영한, 노동집약의 장인정신이 밴 설치예술에 가깝다. 내부의 단청은 뇌록색 가칠이나 긋기단청에 머문다. 단청을 통한 색채 장엄보다는 역학성 구조미로써 조형의 의장미를 대신한다. 서양의 고딕건축이 그러하듯이 구조역학을 통해 종교의 거룩함에 다가가고, 또 신심을 이끌어낸다.

질서정연한 직선의 뼈대들은 하중을 분산하고 대동의 연대를 구축하면서 전기회로처럼 내부 에너지를 실어 나른다. 특히 내부에 일렬로 이어지는 고주(高柱)의 행렬은 고딕성당의 내부처럼 열주의 수직행렬이 공간의 엄숙함과 깊이를 자아낸다. 열주들은 공간의 깊이를 심화함과 동시에 아미타불께서 계신 곳으로 강한 방향성을 암시한다. 열주의 긴 흐름이 이어지는 서쪽방향으로 세로 기둥의 프레임 속에 바라보게 함으로써 깊은 공간에 적멸로 계신 고귀한 거룩함을 예경하게 한다. 항마촉지인의 수인을 취하고 계신 진금색의 아미타불은 높이 2.8 m에 이르는 흙 재질의 소조(塑造)불상이다. 석굴암 본존불만큼이나 엄중하고 근엄한 상호를 가지셨다. 다포를 치밀하게 짜올린 중중무진의 아(亞)자형 닫집과 3.8m 높이의 금빛 광배는 부석사 경영의 전지적 관점이 어디로 귀의하는 지를 유감없이 보여준다. 아미타불의 거룩한 상호와 찬란한 광배에 대체될 수 없는 숭고한 아우라가 흐른다. 무량수전 뼈대의 미학 내면에 극락정토의 연꽃에 화생하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 있다. 극락정토는 사람 저마다의 청정한 마음이 경영한 것이니, 무량수전은 누구나의 마음자리에 있을 것이다. 〈끝〉

〈사진작가〉

사찰로 명당! 도성속의 숲속

2015년 부천시의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 주 변 : 500m 內 서울항동지구, 부천옥길지구, 현대아파트 단지 등 22,000세대 +
-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202-1, 서울 경계 115m
- 대지 158평, 건물 93평, 사유지처럼 쓰는 땅 400평 이상
- 양도가액 : 35억

연 락 처 : 010-4500-9095







불전부 · 아함부 · 반야부
법화부 · 화엄부 · 정토부

붓다의 가르침

범본 한글 옮김 근본육부 경전정선

동산불교대학 · 동산불교대학원에서는 새로 출판된 〈범본 한글 옮김 근본육부 경전정선 "붓다의 가르침"〉을 교재로 하여 경전 강독법회를 엽니다.

최봉수교수는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와 서강대학교 종교학과에서 불교원전을 중심으로 불교 사상을 강의했으며, 팔리어를 중심으로 하는 원전 번역과 학술적연구와 저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개 강 : 2018년 7월 10일(화) 오후 7시 (제2부 아함경 강좌)
제1강 – 오후 7시
제2강 – 오후 8시 20분
■ 장 소 : 동산불교회관 2층 교육관
■ 문 의 : (02)732-1206

■ 내 용 : 제 2부 아함부 (64강)
① 2018년 7월, 8월 (16강) : 십이처·십업설 법문
② 2019년 1월, 2월 (16강) : 육 · 육법설 법문
③ 2019년 7월, 8월 (16강) : 오온 사제설 법문
④ 2020년 1월, 2월 (16강) : 12연기설 법문
■ 강 의 : 최봉수 교수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 · 대학원
사무처: 서울특별시종로구우정국로 45-11 (동산불교회관)
Tel : (02) 732-1206~8 Fax : (02) 732-1207 http://www.dongsanbud.net

스펙 악몽 벗어나 자질 향상에 주력하라



윤성식의
불교 속 부자되는 법

⑫ 뭘 공부해야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림 · 박구원

공부로 돈을 벌 수 있다면 학교의 우등생이 부자가 되리라. 누구나 한 두 번은 들어봤음직한 말에 '학교의 우등생은 사회의 열등생' 이라는 말이 있다. 대개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한다고 한다. 유명한 페더럴 익스프레스 창업자는 학교 시절에 페더럴 익스프레스 아이디어를 기말보고서로 제출했는데 C학점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었다. 과거와는 달리 점점 더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창업에 성공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IT 시대, 인공지능, 로봇의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알지 못하고 사업에 성공하기 점점 어렵다. 그렇다면 경영학을 배우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부처님은 교육의 중요성을 경전 곳곳에서 주장하셨다. 별역잡아함경은 "온갖 기술을 먼저 배우고, 다음에 온갖 재물과 보물 모으되…"라고 설한다. 부처님은 최고로 축복할만한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많이 배우고 기술을 몸에 익히며 편안한 마음으로 일을 계속하는 것' 이라고 답하였다. 중아함경은 "처음에는 먼저 기술을 배워라, 그 다음으로는 재물을 구하고, …"라고 설한다. 중아함경은 또 "마땅히 먼저 기예를 익히라, 그래야만 재물을 얻으리…"라고 설한다. 경전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술과 기예는 경영학에 해당할까?

한경비즈니스의 100대 기업 CEO의 전공을 보면 23명이 경영학 전공자이다. 23%라면 상당히 낮은 비율이다. 즉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증거가 되는 셈이다. 물론 전문경영인에 관한 통계이므로 창업자의 경우엔 달라질 수 있지만 전문경영인에서조차 경영학 전공자의 비율이 이 정도라면 창업자의 경우에는 더 낮지 않을까? 재벌기업의 2세, 3세들은 예외없이 거의 대부분 경영학을 전공한다. 그러나 이들은 창업자가 아니라 상속자이기 때문에 경영학의 유용성을 증명하는 증거는 아니다. 다만 경영학을 배워야 돈을 잘 벌 수 있다는 사람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증거는 된다.

경영학과 교수들이 모인 어떤 모임에서 경영학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서울 소재 몇 개의 경영학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영학과가 위기감을 느낀다는 말이 나왔다. 경영학과가 다른 학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취업에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는 현실이 또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경영학의 전문성이 회계학, 금융공학 등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는 별로 높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경영학이 취업에서 경쟁력 있는 스펙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일류대학 학벌이 더 경쟁력 있는 지표일지도 모른다. 경영학은 학부 4년 동안 전공하지 않아도 기업에 취업하여 몇 달간 집중 교육으로 배울 수 있는 전공분야이다. 회계사가 되고 싶다거나 금융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모를까 기업에서 일할 때 필요한 경영학 지식의 습득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경영학의 상당부분은 상식과 부합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독서를 통해서도 쉽게 취득할 수 있다. 오히려 이과 전공이 창업에 더 유리하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이과출신의 CEO가 절반을 넘는다. 한국도 이과출신 경영자가 약진하고 있기에 미래에는 과반수를 넘으리라 생각한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하는 업무는 고도의 경영학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가 아니다.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인내심, 열정, 판단력, 인간관계 능력, 창의성, 도덕성, 신뢰 등의 인간적 자질이다.

미국에서는 학부가 이공계인 MBA 졸업생을 테크메이저(tech major)라고 부르고 학부가 문과인 MBA졸업생을 비테크메이저(non-tech major)라고 하는데 테크메이저의 평균 봉급이 더 높다. 한국에서도 과거와는 달리 공부 잘하는 학생이 이과를 더 많이 진학하며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라는 우스개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과 인기가 높아졌다. 부처님 당시에는 신흥상공업자들이 대거 등장하고 농업사회에서 도시가 형성되는 시기였다. 도시에서 필요로 한 건축 인테리어 업자가 고소득자였다는 기록도 있다. 각종 기구와 도구의 제작도 이 시기에 활발하게 이루어졌기에 경전에 나타난 기술이나 기예는 이과적 기술로 보아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컴퓨터 코딩 교육의 열풍이 불고 있다. 문과의 시대는 가고 이과의 시대가 왔다고 말할 정도로 과학과 기술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경영학이 분명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면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몇 개월의 집중 훈련으로 충분히 습득할 수 있다. 이과적 기술은 단 몇 개월의 훈련으로 쉽게 습득할 수 없기에 경쟁력이 있는 분야이다. 따라서 오늘날 문과 출신들도 빅데이터 분석 능력, 컴퓨터 코딩 능력, 통계지식 등 이과적 기술을 반드시 습득해야 인공지능과 로봇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대학 시절에 배운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평생 기술을 배워야 인공지능에 의해 도태되지 않는다.

업무능력 외 종합사고 · 인성 중요
이과 · 문과 학습 병행 해야 돼
사찰에서의 교육 진행에 기대감 커

물론 기업경영에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업무가 있다. 예를 들어 회계업무는 회계학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사람이 담당하기 힘들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꼭 그렇지도 않다. 내가 가르치는 고대 행정학과 졸업생 중에 회계원리 과목조차 대학시절에 수강하지 않고 재벌기업에 취업이 된 학생이 있다. 그 학생이 재무부서에 들어가고 싶다면서 나한테 가능하겠는가를 물어보길래 나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 학생은 틈틈이 책을 보고 물어가면서 잘 해내고 있다. 학부시절에 회계원리 한 과목만 수강했더라면 도움이 되었겠지만 수강하지 않았어도 업무 수행에는 큰 지장이 없다. 어차피 경영학과 졸업생들도 회계의 기본 개념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졸업한다. 모든 재무부서직원이 공인회계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전문가들이 모두 담당한다. 회계학 지식은 한 두 달 집중 교육시키면 된다.

재무부서직원에게 더욱 절실한 것은 회계학지식이 아니다. 나보고 재무부서직원을 선발하라면 도덕성, 신뢰성, 성실성 등을 기준으로 삼겠다. 회계학을 잘 모른다면 신입사원 시절 1달 동안 다른 일 안 시키고 회계학만 실무 중심으로 가르치겠다. 대학시절 회계학과목 3-4과목을 이수한 경영학과 졸업자만큼 교육시킬 자신이 있다. 고작 1달 교육하는 것 아끼려고 경영학 전공자를 선발할 필요는 없다. 돈을 다루는 직원은 회계학지식보다 도덕성, 신뢰성, 성실성이 더 중요하다. 삼성은 스펙과 학벌은 좋으나 헝그리 정신과 창의력이 부족한 지원자가 많다고 하면서 지방대 출신을 35% 선발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업은 학벌, 스펙, 성적, 부모의 배경을 점점 덜 고려할 것이다. 그보다는 성실성, 모험성, 적극성, 창의력 등이 더 중시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세상의 흐름이다. 이제 한국의 젊은이는 하루라도 빨리 스펙의 악몽에서 벗어나 자기의 자질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

돈을 벌기 위해서 경영학을 전공할 필요는 없지만 돈에 대한 공부는 할 필요가 있다. 예술은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감상할 때 미술에 대해 공부하고 나서 보면 동일한 그림도 달리 보인다. 음악도 마찬가지다. 음악에 대해 공부하거나 악기를 배운 뒤에 음악을 들으면 달리 들린다. 돈도 아는 만큼 보인다. 전문가를 활용해서 돈을 벌겠다고 해도 전문가를 활용할 정도의 지식은 있어야 한다. 여유 자금을 펀드에 투자하려면 적어도 전문가가 말하는 인덱스 펀드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한다.

문제는 돈에 대해서 배울 곳이 마땅하지 않다는 점이다. 경영학과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기업에 취업하여 기업주의 지갑을 두툼하게 해주는 기술이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수시로 접하는 돈에 관한 내용은 가르치는 곳이 없다. 그렇다면 독학을 해야 하나?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는 18세가 되면 소액의 정착금을 받고 고아원을 나가야 한다. 18세의 어린 나이에 험한 세상에 홀로 던져지다니 얼마나 안쓰러운가. 고아원에서는 세상에서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한다. 아이들이 선택하는 과목 중에 돈에 관한 과목은 별로 인기가 없다. 고아원을 나가는 아이에게 무엇이 가장 걱정되느냐고 묻는다면 아마 돈 문제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런데도 왜 돈에 대한 과목을 수강하지 않을까? 돈에 대해서는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과목의 내용이 유용하지 않아서 일 수도 있다. 여튼 우리는 돈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세계인구의 0.2%를 차지하는 유태인은 세계 억만장자의 30%를 점유하고 있다. 빌게이츠, 존 록펠러, 마크 저커버그, 래리 페이지 등은 모두 유태인이다. 미국에서 초등학교 학생에게 미래의 꿈을 조사했더니 어떤 유태인 학생이 주식중개인(stock broker)이라고 썼다. 유태인은 사춘기 때부터 투자하며 돈에 대해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배운다. 요즘 사찰 곳곳에 불교대학이 개설되어 있다. 부처님이 교육과 훈련을 그토록 강조하셨으니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불교대학에서 불교교리만 가르칠 일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도 가르치면 어떨까?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돈에 대해 배울 곳이 없는데 불자가 아니더라도 사찰에서 배울 수 있다면 불교가 사회에 기여하는게 된다.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오직 선택받은 스님께만 행운이 돌아갑니다... 지금 바로 예약 하십시오!!
법당의 구형 음향설비를 「300만원대」의
최고급 엠프 설비로 160만원에 보시!!
(제공 : 800W(USB)엠프+450W 스피커2개 + 900메가 무선마이크 1대(사용중인 엠프 스피커는 회수함!)


• 대출력파워드 믹싱앰프
출력 : 800W USB내장
가격 : 1,200,000원


• 대출력스피커 1조
최대입력 : 450W
가격 : 700,000원

법당 엠프설치비 가격표
• 기본》 A형 : 93만원 (앰프, 스피커, 마이크2)
B형 : 127만원 (A형 + 무선헤드셋 1조)
C형 : 158만원 (B형 + CD 1대)
D형 : 185만원 (C형 + 믹서 + 케이스)
• 법당 표준형 : 225만원 (D형 + 무선 2인용)
• 최고급형 일절 : 325만원 (800W 믹싱포함 일절)


• 무선마이크
가격 : 300,000원


고급헤드셋 포함


주지스님 전용
• 탁상마이크
자체 소리 조절
가격 : 185,000원

신상품 삼신각(명부전,전용) 앰프 세트

전체 1세트(SET)
580,000원
(엠프〈USB용〉+스피커+마이크스탠드 포함)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초고성능 마이크
• 60Cm 이상 거리에서도 장엄하고 맑은 소리 보장!
• 오래된 앰프와도 잘 맞아 뛰어난 소리가 나옵니다
• 가격 : 175,000원(홀더 포함)
2개 구입시 : 30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300호)

소장 김문화
무선설비기사, 음향연구가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주문 계좌 : 우리은행 김문화
1002-610-963886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 종도모집

귀의 하옵고, 불제자로서 수행과 전법 포교만을 위해
함께 하실 제방의 큰스님들을 모십니다.

임 | 원
대 승 정 : 성광당 경보 대종사
원로원장 : 무명당 월곡 종회의장 : 대진당 혜월 승가원장 : 고암당 정인
▶각교구원장◀
서울교구 : 법룡 부산교구 : 무비 대구교구 : 지광 인천교구 : 혜초 대전교구 : 정수
창원교구 : 정우 경기교구 : 연봉 충북교구 : 심공 충남교구 : 능원 전북교구 : 진원
경북1교구 : 서암 경북2교구 : 대현 경남교구 : 혜묵

■ 문의 : 입종문의 안내(입종 구비서류 및 발급 증명서)
☎ 053) 654-0408. 010-5051-3422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현충로 5길 99 원광사
(전화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남·녀 행자 수시 모집 합니다

※ 본 종단은 문광부 허가 제2010호-4호
※ 법인등록 274321-0029935로 등록된 사단법인 종단입니다.

(사)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 승가원 승가원장 고암 정인 합장

모든 수행자들이여, 일체중생을 구하라



원욱 스님의 경전산책

㉓ 유마경(維摩經) 1

〈유마경〉은 부처님 당시 최대 상업도시인 바이살리(Vaisali)를 무대로 펼쳐지는 재가불자인 유마거사와 부처님제자 33인들과의 토론과 침묵, 그리고 법문을 다룬 경전이다. 유마는 누구 길래 부처님의 제자와 법거량을 할 수 있었을까하는 생각해본다. 부처님 경전에 등장하여 설법을 한 승만이나 유마거사는 두 말할 것 없이 인격과 덕행이 뛰어난 인물이다. 유마의 삶에서 가장 잘한 일은 첫째는 한량없는 부처님께 언제나 공양을 올려 선근(善根)을 깊이 심어 이타행(利他行)을 잘 한 것이다. 모든 생명들에게 생존에 관한 공양물은 물론이고 진리의 가르침을 공양하고 봉사와 선행으로 열심히 남을 이롭게 하는 수행을 한 것이다.

두 번째는 생멸이 없는 진리를 얻어 그 진리를 전하는 방법이 남달랐다는 것이다. 중생들의 그릇을 알아보는 지혜를 갖춰 그에 합당한 설법을 함으로 유마는 복덕과 지혜를 갖춘 인격자로 등장한다. 불교적 인격자가 되기 위해선 지혜와 방편과 원력이 있어야 하는데 유마는 이것을 완전히 갖춘 재가자의 모습을 다 지닌 분이다. 유마는 청정한 이름, 무구칭(無垢稱)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그는 바이살리 성의 재벌그룹의 총수였다. 항상 불교수행을 철저하게 하여 계율과 선 수행으로 이미 한 소식한 분이다. 본래 도인은 시크한 면이 많은데 유마는 아주 당당하여 누구라도 잘못된 수행을 하고 있으면 반드시 가르쳐 정법 속으로 인도했다. 언제나 사람들과 사교성도 깊어 잘 사귀고 토론하기를 즐겨했다고 한다. 그러나 유마는 허구의 인물이라는 말도 있다. 부처님 제자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답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공부가 향상시켜주는 역할과 보살도의 실천에 대한 평등을 나타내는 불이사상(不二思想)을 알게 하기 위해 등장시킨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유마는 우리를 돕기 위해 나타난 대승보살의 화현으로 본다.

〈유마경〉은 한글대장경 제 57책 〈유마힐소설경〉, p25와 제 247책 〈대승입릉가경〉속에 p281 〈유마힐경〉으로 3회 14품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대중들에게 인기있는 경전이라 한글로 친절하게 설명해 놓은 책이 매우 많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읽다가 알게 된 사실은 〈유마경〉이 희곡, 연극의 대본을 보는 느낌이란 점이다. 서론에서 보적의 스토리와 십대제자들의 절절한 사연 속에 대승보살로 나아가 도록하는 방향전환이라 든가. 미륵보살의 수기와 관련된 이야기, 광염동자, 게다가 마왕 파순이 등장하는 〈불국품〉, 〈방편품〉, 〈제자품〉, 〈보살품〉이 4품은 너무 드라마틱해서 즉시에 공연을 올려도 될 만큼 아주 재미있다.

본론에 해당하는 유마의 병에 관한 스토리가 전개되며 부처님 당시 가장 지혜로운 유마와 문수와의 만남을 통해 유마가 문수를 손님으로 맞이하는 장면에서 1차 법거량이 일어나고 다시 병에 대한 문수의 질문과 유마의 답변 5가지를 통해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 중생이 아프고 괴로운데 내가 어찌 행복할 수 있는가"는 중생교화를 위한 길을 열어 보인 〈문수보살문질품〉, 신통은 지혜의 증장과 비례하니 지혜와 선정을 밖에서 찾지 말라는 가르침이 담긴 〈불가사의해탈품〉, 어떻게 정진하여 선정에 몰입할까에 대한 논의와 중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를 논하는 〈관중생품〉, 보살은 어떻게 성불하는가에 대해 중도적 삶에 대한 가르침을 〈불도품〉에서 심도있게 들어가고, 어떤 방법으로 도를 깨우칠 것인가에 대해 33명의 보살들과 불이사상을 논하고 유마가 침묵하는 모습 속에서 법의 길에서 안목이 높아지는 〈불이법문품〉과 점심공양을 먹고 논의를 계속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다 유마가 향적국(香積國)에 가서 남은 밥 가져 올 이를 찾았지만 누구도 가려는 이가 없자 스스로 변화보살을 시켜 42억 항하사 국토를 지난 곳에 가서 공양을 가져오게 하는 〈향적품〉까지 본론을 보며 유마의 정신세계 속으로 무난히 우리도 입성하게 된다. 결론은 정토의 보살들이 예토의 공덕행으로 진정한 불국토 건설의 의미와 그 곳에 살고 계시는 여래, 부처님을 보고자 하면 중도적 안목을 갖추어야 한다는 〈보살행품〉과 〈견아촉불품〉이다. 중생이 부처라는 사실만으로 그들에게 법으로써 공양을 올리는 〈법공양품〉과 미륵보살의 서원을 통해 대승의 진리에 희망과 꿈을 가지고 신해행증하면 모두 다 부처를 이룰 것이라는 유마경을 세상에 널리 알리자는 〈촉루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계속)

〈서울 반야사 주지〉

'경청' 에서 지혜가 나온다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㉒ 불가의 세가지 지혜

단단한 지혜의 뜻을 알기 위하여 불가에서 흔히 말하는 세 가지 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문혜(聞慧), 즉 (귀로) 들어서 생기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 사혜(思慧)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즉 심사숙고하여 얻어지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다음은 마음을 닦아서 얻은 지혜인 수혜(修慧)가 있습니다. 분별심이 사라지면 마음속의 지혜광명이 드러난다고 하는데, 수혜란 마음 닦아 드러난 지혜광명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문혜는 보고 들어서 생겨난 지혜, 말하자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여 얻어진 지혜를 말합니다. 학교에서 얻은 지식으로 직장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런 지혜는 문혜인 것입니다. 각종 정보와 지식을 통해서 얻은 지혜입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 다양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어려운 일에 맞닥뜨렸을 때,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에 비하여 해결능력이 뛰어날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 · 고등학교 출신보다 대학 출신을 우대하는데, 이는 대학 출신이 중 · 고등학교 출신보다 더 많은 지식과 정보에서 얻은 지혜, 즉 문혜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식과 정보를 통하여 얻어진 문혜는 단단한 지혜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혜는 주위에 수많은 난제에 대해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문혜가 보고 들어서 얻어지는 지혜라면, 사혜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얻어지는 지혜입니다. 즉 난제의 해법을 자꾸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며, 또 사람들과 난제에 대한 해법을 경청하고 논의하여 얻어진 지혜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볍게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의 선입견과 편견을 더 많이 제거하게 되어 문혜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해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즉 난제의 해법을 계속 생각하는 자세, 사람들로부터 난제의 해결의 경험을 경청하는 자세는 편견이나 선입견을 제거하므로 더욱 더 보편적인 지혜가 드러날 수 있게 하는데 이로부터 얻어지는 지혜는 문혜보다 더 차원 높은 지혜가 될 것입니다.

수혜는 마음의 분별심을 소멸하고 탐진치를 닦아서 생긴 지혜입니다. 현재 의식인 마음의 분별심을 끊임없이 바쳐 사라지게 되면, 마음속 깊이 내재된 선입견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선입견(이것을 전생의 업장이라 합니다.)이 사라지면 마음 깊숙이 숨겨진 본연의 지혜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 드러난 지혜의 범위는 심사숙고하여 얻은 사혜보다 더욱 넓고 깊습니다.

그러나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듯 대부분은 사람 속을 알지 못합니다. 한 길 사람 속을 아는 지혜, 이것은 문혜로도 아니 되고, 사혜로도 아니 됩니다. 오직 마음을 닦고 탐진치를 소멸하여 얻는 지혜인 수혜만이 사람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 마음을 닦아 분별심을 제거하면 일차적으로 자신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의 속마음도 무엇인지 알게 되는 원리 때문입니다.

탐진치를 닦아 수혜를 체험한 경영자라면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알게 되므로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여 회사를 슬기롭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지혜와 능력은 거의 신(神)의 영역에 접근하는 뛰어난 능력이요, 지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삼계유심 만법유식 '이 뭣고'

일체법은 모두 여래장심을 따라 일어나 망념의 분별로 나왔으므로 일심은 법계총상 자체이며, 본래 불생(不生)하여 끝내 한 법도 없다. 그런데 지금 나타난 일체법은 모두가 망념을 따라서 의(意)가 일어나 나왔을 뿐, 일심(一心)의 자체가 일체법으로 나온 것은 아니며, 또한 세간의 일체경계와 차별상은 모두가 중생이 무명망심(無明妄心)을 의지해서 현재에 안주하고 미래의 종자(種子)를 지니게 된다.

시고(是故) 일체법(一切法) 여경중상(如鏡中像) 무체가득(無體可得) 유심허망(唯心虛妄) 이심생즉(以心生則) 종종법생(種種法生) 심멸즉(心滅則) 종종법멸고(種種法滅故)라,

"그러므로 일체법은 거울 속에 나타난 허상과 같아 얻을 만한 실체가 없듯이, 삼계(三界)도 심의식(心意識)의 허망한 망상으로 일어났을 뿐이다. 왜냐하면 일심이 무명으로 나오면 갖가지 법이 따라 나오고, 일심의 무명이 사라지면 갖가지 법도 따라서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식은 "모든 현상은 오직 마음 작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일체유심조도 일체가 심식(心識)에 의지해 존재하고 작용 한다는 말이다. 이것이 불교의 근본이며 기본이다. 삼라만상 우주 땅, 사람들이 몽땅 의식으로 빚어낸 허망한 업(業)의 그림자일 뿐이다.

생사 또한 하나의 환상(幻想)이다. 진실(眞實)은 불생불멸(不生不滅)이다. 또한 묘각(妙覺)의 여명(黎明)으로 생긴 허망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식심(識心)이다. 이 식(識)이 육근에 붙어 육근(六識)이 되는데 심왕(心王)의 육문성(六門城)을 점령하는 마왕(파순)과의 전쟁이 수행이며, 육문성곽(六門城郭)을 옛날 화살로 아무리 쏘아봐야 성벽을 넘어 마구니를 물리칠 수 없는 것이다.

"육근중 두루 통하는 하나의 의식을 택해 감상 따라 흐르는 식심을 두루 원만한 각성으로 몰입시키면 마침내 정각을 이루리라 했는데, 그 유일한 수행법 역시 '이 뭣고' 이다."

원자폭탄으로 성안을 바로 폭파시킬수 있는 최신 무기가 바로 '이 뭣고'이며, 찰나간 한생각의 뿌리를 '이 뭣고' 로 잘라 버림과 동시에 생각 이전의 근본자리를 자동적으로 '이 뭣고' 로 관(觀)하게 되는데, 이것이 회광반조이며 마구니를 항복받아 업장을 소멸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만법유식(萬法唯識)' 이란 지금 현재 면전에 전개된 온갖 법이 심식으로만 헛되이 지어진 것이므로,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고, 즉 무자성(無自性)으로 자체성이 없고 진심(眞心)의 거울에 비친 망념(妄念)의 그림자일 뿐이며, 꿈과 같고 환(幻)과 같다는 것이니, 거기에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다.

〈수능엄경〉에 보면 제 8장식(藏識)인 아타나(阿陀那)란 미세한 식(識)이 수만 생의 인습(因習)으로 굳어진 것이 식심이다. 그 것으로 일어나는 번뇌망상이 마치 폭포처럼 흐른다. 그래서 육근중 두루 통하는 하나의 의식을 택해 감상을 따라 흐르는 식심을 두루 원만한 각성으로 몰입시키면 마침내 정각을 이루리라 했는데, 그 유일한 수행법 역시 '이 뭣고' 이다.

'심생즉종종법생(心生則種種法生) 심멸즉감분불이(心滅則龕墳不二) 삼계유심(三界唯心) 만법유식(萬法唯識) 심외무법(心外無法) 호용벌구(胡用別求)' 이라.

이 말은 마음이 생기는 까닭에 여러 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멸하니 토굴과 분묘가 둘이 아니고, 마음밖에 일체법이 없는데 무엇을 밖에서 구할것이 있을까, 어젯밤 마신 감로의 물이 아침에 보니 해골 바가지에 담긴 것을 보고, 토해내면서 깨친 원효대사의 오도송이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제 8회 반야학술상 공모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에서는 **제 8회 반야학술상**을 공모합니다.
불교학 및 불교문화 우수 연구자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반야학술상은
매년 저술상과 논문상 두 분야를 선정하여 시상합니다.
불교학 및 불교문화연구자들의 많은 추천과 응모 바랍니다.

저술상
응모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출간된 불교학 및 불교문화 관련 창의적인 저서 및 역서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저자 1명에게 500만원 지원

논문상
응모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국내외 불교학, 종교학 및 철학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불교학 및 불교문화 우수논문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저자 1명에게 500만원 지원

■ 추천 및 응모 마감 : 2018년 7월 15일 (우체국 소인 확인된 것까지)
■ 추천 및 응모방법은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banyaresearch.org)를 참조 바람.
■ 시상일 및 장소 : 추후 공지
■ 문의처 : (사) 반야불교문화연구원 구자상 (010 · 4731 · 3471) 우명주 (010 · 9027 · 5193)

(사) 반야불교문화연구원장



구인사 개산 73년… "수행 공고히"

천태종 총본산 단양 구인사가 개산 73년을 맞아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대조사의 구제중생 원력을 되새겼다.

천태종(총무원장 문덕)은 6월 18일 단양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구인사 개산 73주년 기념법요식'을 봉행했다. 법요식에는 종정 도용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문덕 스님, 종의회의장 도원 스님, 감사원장 진덕 스님, 류한우 단양군수 당선자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종정 도용 스님은 법어를 통해 "위대한 성현께서 사바에 나투시어 연화성지에 도량을 여시니 천태일승의 하얀 연꽃이 피어오름이라. 억조창생 구원받는 큰 도를 펼치시니 자비의 크나크신 권화이시라. 깊은 믿음으로 귀한 인연 기뻐하며 불심으로 화합하고 일심으로 수행하여 교시하신 거룩한 가르침을 만세에 이어가라"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기념사에서 "구인사 개산은 부처님의 정법이 새롭게 문을 연 날이고, 천태법맥이 새로운 시대를 맞은 날이며, 일체중생이 성불의 희망을 품은 날"이라면서 "오늘 우리는 구인사 개산의 의미를 가슴깊이 되새기고 정법수행과 광도중생의 원력을 더욱 공고히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자비사상·홍익인간 교육이념 실천 앞장"

Interview

정광학원 제13대 이사장 월우 스님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18일 취임법회서 공식 취임
학교발전 방안 모색 비롯해
학생 권리향상에 힘쏟는다

"청소년은 미래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동량입니다. 무엇보다 큰 가치를 지닌 존재인 만큼 교육기관에서는 보다 더 값진 교육을 해야 합니다. 불교종립 정광학원의 학생들이 부처님 자비사상과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인재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호남 유일의 불교종립인 정광학원 제13대 이사장에 해남 대흥사 주지 월우 스님이 취임했다. 월우 스님은 지난달 31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추대된 데 이어 6월 18일 대승원 법당에서 봉행된 취임법회에서 공식 취임했다. 법회에는 함병권 정광중학교 교장을 비롯해 정광중·고등학교 교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월우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자비사상'과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을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월우 스님은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한 만큼 우선적으로 학교구성원들이 학교발전에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교직원을 포함해 모든 구성원들이 발원과 서원을 세워 학교 발전을 도모하고, 학생들의 권리향상에 만전을 기해 달라"면서 "정광학원은 학생들의 실력향상과 전인교육의 장을 펼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 자신을 바로 알고 집착과 번뇌를 끊으면 나뿐만 아니라 남과 함께 견성성불 할 수 있다"며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불자의 삶이다. 학생들의 교육만족도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월우 스님은 본지 인터뷰에서도 "학교에 문제가 발생하면 학생과 교직원들이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며 거듭 소통을 강조했다.

현재 대흥사 주지를 맡고 있는 월우 스님은 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유력한 대흥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스님은 6월 28일 바레인에서 열리는 제42차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에 조실 보선 스님, 향덕 스님과 함께 출국할 예정이다.

월우 스님은 "한국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1번째 등재가 기대되는 대흥사와 관련해 많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한국불교의 소중한 문화가치가 더욱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광학원은 1946년 만암 스님을 비롯해 백양사·송광사·화엄사·대흥사·선암사 등 전남지역 5개 교구본사와 불교인들의 원력으로 창립됐다. 현재 정광중학교와 정광고등학교를 설립해 운영중이며 3만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월우 스님은 천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8년 쌍계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0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12~14대 중앙종회의원과 중앙승가대 총무처장, 영암 도갑사 주지를 역임했다.

"호남의 선지식을 기리며"

내소사, 우암당 혜산 스님 13주기 추모재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는 6월 18일 대웅전에서 호남의 대표적인 선지식 우암당 혜산 스님의 13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이날 추모재에는 혜산 스님과 수행모임을 함께한 지성 스님을 비롯한 석우회 스님들과 도솔회 스님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문중 원로와 선운사 본말사 대중스님, 재가불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혜산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1000일 미륵기도의 회향

선운사 도솔암, 6월 20일 회향법회 봉행



지난 2015년 9월 입재한 고창 선운사 도솔암의 1000일 미륵대제가 6월 20일 회향했다. 이날 도솔암은 경내 특별법단에서 회향법회를 봉행하고, 1000일간 정진한 불자들의 원력을 치하했다. 도솔암은 그동안 매월 음력 7일 33개월간에 걸쳐 미륵기도를 했으며, 회향법회에서 영산작법과 축원·발원 후 인근 도솔제로 이동해 방생법회를 열고 1000일 기도 여정을 마무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기록영화 '만선시찰' 금강역사영화제 나와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 공개

군산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이 올해 처음 열린 금강역사영화제에 일제강점기 조선의 모습을 담은 기록영화 '만선시찰'을 출품하고 일반에 공개했다.

6월 16일 동국사 대웅전에서 상영된 '만선시찰'은 1933년 5월 4일 일본 히로시마현 후쿠야마에서 출발해 대전, 경성, 평양을 거쳐 만주까지 여행하고 5월 19일 일본으로 귀국하는 16일 동안의 여정을 촬영한 약 12분 분량의 흑백 기록영상이다.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은 이 필름을 2014년 기증받아 소장하고 있던 중 금강역사영화제에 최초로 공개했다.

종걸 스님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청소년들에게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의미로 금강역사영화제에 출품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화쟁사상으로 공동체 일구자"

은평구불교사원연합회
제29회 호국충혼대법회



은평구불교사원연합회(회장 성운, 삼천사 회주)는 6월 20일 서울 진관사에서 '제29회 나라와 은평구민을 위한 호국충혼대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호국충혼대법회는 조계종 은평구협의회와 은평구청 불심회가 은평구불교사원연합회와 함께 주관했으며, 삼천사 회주 성운 스님,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 성불사 주지 선보 스님 등 불자 300여 명과 김우영 은평구청장, 김미경 구청장 당선인, 박주민·강병원 국회의원, 이재영 은평경찰서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호국충혼대법회는 개회를 알리는 타종과 함께 촛불봉정, 삼귀의례, 반야심경 봉독, 발원문 낭독, 장학금 전달, 표창장 및 공로패 수여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이수자 강수향 씨의 추도무용과 이재영 은평경찰서장과 송아영 경사의 추모시 낭독 등도 이어졌다.

이날 성운 스님은 법어를 통해 "삼혼은 한 되어 아득한 어둠 속에 헤매며, 칠백 또한 외로이 갈일을 잃었도다. 호국충혼 고혼 영가시여, 불이 청정심다 반야용선 타시고 빛으로 이 땅에 오소서"라고 추념했다.

나승복 은평구청 불심회장은 발원문을 통해 "이 땅의 우리들이 부처님의 화쟁사상으로 분단의 사슬을 풀고, 하루 속히 남북통일이 이뤄지기를 발원한다"며 "대화와 소통, 평화적 통일로 남북이 하나 돼 세계 속 대한민국 우뚝 서게 하소서"라고 말했다.

법회서는 '우리의 발원' 발표도 진행됐다. 참석 대중은 북한산 숲 보존 및 행복마을 구현, 자원봉사 활성화 등을 서원했다. 이와 함께 전몰군경 가족 및 소외계층 자녀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총 2000만원에 달하는 장학금도 전달됐다.

노덕현 기자

어르신 화재예방 안전캠페인

우면福-현대제철, 서초구서 진행



서울 우면종합사회복지관(관장 권영찬)과 현대제철 경영지원본부는 6월 18~19일 서초구내 어르신들을 위해 화재예방 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에는 현대제철 임직원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독거 및 장애어르신 60가정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방법 안내 및 소방물품 전달봉사를 했다.

윤호섭 기자

신화 종합 불사

● 전통한옥 법당 철거, 개축, 신축
● 30년 경력 대목장이 함께 합니다.
● 40년 경력 불모조각장인이 함께 합니다.
● 40년 경력 범종 장인이 함께합니다.

■ 9평 산신각, 신축, 특A급 가격 저렴
■ 10평 정자, 18평 법당 증축 가능 A급
■ 17평 요사채, 21평 증축 가능
■ 31평 재실, 38평 법당 증축 가능 A급
● 석탑 5~7층 다수 있음 (5~3천만원)
● 수익형 기도처, 서울 양도 21억 (2억, 월 1천만원 세있음)
■ 강원도 철원, 대지 4.800평, 대웅전, 삼성각 등 건물 800평, 전통 한옥 목조 건물임 납골당, 수목장, 요양시설 등 전환가 양도가 40억원
■ 안성, 전통 한옥, 특A급. 대지 1,600평, 건평 140평, 사찰, 연수원 등 전환 가능. 양도가 25억 급매
■ 서울시내 전통사찰, 부지 1,200평 양도가 120억원, 잔고 증명 요함
■ 의정부, 사찰 대지 4,800평,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위치 좋음, 양도가 15억원
■ 그 외 다수의 사찰, 또는 매물 등이 있습니다.

010-6545-2020

피부·치아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 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 건조, 임플란트 또는 틀니 하시고 윗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 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 물린 후, 머리염색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 즉시 (여러번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 피부건조, 역류성 식도염, 위염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우주 생명 光(빛)의 기둥을 가슴에 세워드립니다!

자신이 직접 수행이나 기도, 명상, 참선중에 눈 앞에서 다양한 영적인 빛 기둥의 가피를 보면서 몸으로 체험하는 기도문과 수행법을 제시합니다. (특별한 자신만의 빛의 체험)

❶ 업장소멸, 한과 집착, 끝없는 고통의 소멸을 몸으로 체험(몸의 환골탈퇴) 눈물, 기침, 트림, 하품, 진동, 전율, 코물, 구역질, 담음, 빛의 변화, 몸, 마음, 영혼의 진동 주파수의 변화를 통한 삶의 대전환
❷ 인간의 3가지 고통 (1) 인간관계 (2) 금전의고통 (3) 몸의 질병의 고통 해결 기도문과 기도법제시
❸ 영적인 질환, 빙의, 영가장애, 무속병 원인없는 질병, 그 자리에서 확인
❹ 돈, 사업, 이혼, 사별, 별거, 자식, 취업 등의 마음상처치유 기도문
❺ 내몸에 잠자는 영혼을 깨워 마음, 몸을 쓰는 원리수행
❻ 가슴이 열리지 않아 수행에 진전이 없는 모든분(수십년기도하신분)
❼ 의통(심의과정)업장소멸후 의로움으로 재산환원 하실분 (심의대학 설립에 필요한 기금조성, 몸, 마음, 영혼을치유하는 의사 양성)
❽ 상단전(지성)+중단전(감성)+영성(단전) = 깨달음의 경지 수행

매월 3주, 4주 토요일 2시에
공개유료강연회 (10명에 한함 2만)
업장소멸, 고통소멸 원리, 가슴이 변해야
고통에서 행복으로 나아간다.
(강연후 체험 빛의 기둥)

【유튜브 동영상 강의 : 자각선원】
충북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266-8
043-296-5258 010-9242-5259
자각선원 (부설 뇌파 마음수련원) 자각선원장 자각 합장

단오, 행복 기원 문화유산으로 발전

6월 18일, 세시풍속으로 여는 축원… "재해 없길"

통도사, 단오 용왕재 비롯해
각 사찰서 단오행사 펼쳐져
전통 의미 되살리는 행사에
불교무형문화유산으로 주목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음력 5월 5일 단오는 우리나라 명절로 모내기를 끝내고 풍요를 기원하는 세시풍속이다. 1년 가운데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로 불교계에서는 소금단지를 땅에 묻거나 전각에 올려두고 화재 방지를 기원했다. 현재 불교계에서는 단오의 의미를 계승 발전해 안녕을 기원하고 나라의 번영과 호국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고 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영배)는 단오절을 맞아 6월 18일 경내 금강계단 앞 구룡지 옆에서 단오용왕재를 봉행했다. 통도사는 매년 단오절마다 구룡지 옆에서 용왕단을 설단하고 소금단지를 도량 전각 기둥 모서리에 올린다. 아울러 참여 불자들에게 소금을 나눠주고 1년 동안 안녕을 기원하고 있다.

올해 통도사는 2만개의 소금봉투를 마련해 불자들에게 나눠 큰 호응을 받았다.



단오를 맞아 불교계가 소금을 묻고 화재방지를 기원하는 단오재를 열었다. 사진은 통도사 단오재에서 한 스님이 소금단지를 전각에 올리는 모습.

통도사가 나눈 소금봉투에는 대광명전 평방에 새겨진 문구 '오가유일객(吾家有一客) 정시해중인(定時海中人) 구탄천창수(口呑天漲水) 능살화정신(能殺火情神)'이 새겨져 있다. 이 문구는 "우리 집에 한 분 손님이 계시니, 바로 바다 속에 사는 사람이다. 입에는 하늘에 넘치는 물을 머금어 불의 정신을 소멸할 수 있네"라는 뜻이다.

문구가 새겨져 있는 통도사 대광명전은 보물 제1827호로 1725년(영조 원년)에 축환대사가 중수했다. 이후 1756년 10월 21일 화재가 발생, 회진(灰塵)됐다가 1758년에 중건됐다. 그 이후 화재 없이 보존되고 있다.

여기서 불은 화재 및 사고 등 액운을 의미하며 소금은 용왕이 사는 바다를 상징해 액운을 막는 불보살의 가피를 상징한다. 통도사 단오 용왕재는 오랜 기간을 거쳐 불자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로 자리 잡았다.

주지 영배 스님은 "용왕님은 불보살의 화신으로 가피를 상징한다. 방장 성파 스님께서는 벼락이 쳐도 소금물인 바다에는 벼락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다"며 "이처럼 불의 정신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정성으로 기도하고 가정에 행복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단오절을 맞아 지역민을 격려하고 호국을 기원하는 행사도 열렸다.

부산 동래 전등사(주지 도문)는 6월 18일 단오절을 맞아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단오절 행사와 동래읍성 충절용사 추모재를 봉행했다.

전등사는 단오절마다 지역민을 초청해 널뛰기, 그네뛰기, 단오부채 나누기, 단오 비음 등 전통 놀이 및 의식을 진행해 행복을 기원했다. 아울러 임진왜란 당시 동래읍성에서 순국한 호국영령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추모재도 봉행했다. 동래 전등사는 동래 읍성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충렬사를 동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주지 도문 스님은 "단오절을 맞아 지역민의 행복을 기원할 뿐 아니라 전등사가 위치한 동래 읍성의 호국 역사를 돌아보고자 행사를 열게 됐다"며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지키고 역사를 돌아보는 도량으로 더욱 발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법보종찰 해인사도 단오절에 소금 단지를 묻는 단오재를 봉행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호국을 기원하는 의미를 더해 눈길을 끌었다.

해인사(주지 향적)는 6월 18일 매화산 남산제일봉에서 소금을 묻는 의식, 호국단오재를 봉행했다. 매화산 남산제일봉 화강암 바위는 불꽃이 피어오르는 형상으로 양기를 상징한다. 해인사는 매년 재해 방지를 기원하고 액운을 막는 의미로 소금단지를 묻고 있다. 이날 해인사는 지역소방대, 가야산 국립공원, 해인청년회 등 300여 명이 모여 지역사회발전과 지역주민들의 화합을 다지는 단오체육대회도 개최했다.

한편, 조계종에서는 지난해 8월 28일 "다비 · 가사 · 사찰 단오 행사 등 보존가치가 높거나 사라질 위기에 놓인 불교무형문화유산 보존에 앞장설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사찰 및 단체가 보유한 불교무형문화유산이 불교를 넘어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맥을 잇는 중요 의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혜동사 창건주 원력을 되새기며"

남원 혜동사, 고담혜동 스님 부도탑 제막



남원 혜동사(교임 선덕)가 창건주인 고담당 혜동화상 부도탑 제막식을 봉행했다.〈사진〉

6월 16일 혜동 스님이 불사를 진행하던 남원암 극락전에서 봉행된 부도탑 제막식에는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 벽산문도회장 혜명 스님, 전북교구 종회의장 법전 스님, 금강승가회장 송월 스님, 윤평호 남원불교신도연합회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스님들과 남원향교 유림 등 지역불자들이 청사초롱을 들고 입장한 가운데 진행된 제막식은 영산작법, 남원향교 유림들의 제향, 법어, 추도사, 추모노래, 탑돌이 등으로 진행됐다.

진성 스님은 법어에서 "혜동 스님은 생전에 중생교화의 사명감과 불법홍포의 원력으로 구법정진의 원력을 실천하셨다"며 "근본을 바로알고 하심하라는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 불법홍포의 대원력을 실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전 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남원암이 불법홍포의 터전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불교의 대강백인 벽산 스님을 은사로 동진출가한 혜동 스님은 생전 원력을 세운 남원암의 불사 완공을 목전에 두고 지난 1월 입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佛都 부산 키우는 포교사단 열정

부산지역단 분야별 연수
"불국토 건설에 이바지"

'포교가 곧 수행'이라 외치며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 천수천안 역할을 담당하는 부산 포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정분남 · 이하 부산 포교사단)은 6월 16일 범어사 설법전에서 부산지역단 분야별 연수를 개최하고 포교사의 역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분야별 연수는 각각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군경 포교, 계층 포교, 자원봉사 분야 등 포교팀의 활동을 보고 · 발표하고 서로 독려하는 시간으로, 매년 연수를 통해 새로운 포교 활동과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다.

부산 포교사단은 △계층포교 △군경포교 △염불포교 △자원봉사 △지역봉사포교 △사찰문화해설포교 △NGO포교 등 7개 분야 내 38개 팀이 활동하고 있다. 부산 포교사단은 총 700여 명으로 각 분야에서 전문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어 포교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연수에서 우수팀으로는 동부지역총괄 염불 연화팀, 서부지역총괄 자원봉사 진공묘유팀, 중부지역총괄 자원봉사 보현팀, 지역중앙총괄 군 지국천팀이 선정됐다.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은 6월 16일 범어사에서 부산지역단 분야별 연수를 개최했다.

사례발표에서 윤영란 진공묘유팀장은 "천마재활원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 및 신체장애인을 위해 법회와 모금활동, 자장 급식봉사 등 여러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첫 만남의 어색함과 부자연스러움도 이겨내고 아이들은 이제 포교사 엄마라고 부른다. 우리는 하나라는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며 행복한 시간을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염불 봉사를 담당하는 김건미 연화팀장은 "염불봉사는 임종 전 죽음을 편안히 맞도록 돕는 호스피스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며 "대기조처럼 일상을 포교활동에 내어 두고 생활해야 하지만 전법활동에 긍지를 느낀다"고 발표했다.

지역단 연수는 △입재식 △인사말 △환영사 △격려사 △시상 △법문 △팀활동 사례 발표 및 토론 △총평 및 시상 △회향식 순으로 진행됐다.

정분남 단장은 "포교 원력을 다지고 활동과 지계실천을 점검하며 포교 역량을 한 차원 끌어올린다면 우리 사회는 멀지 않아 불국토가 건설될 것이라 믿는다"고 격려했다.

한편, 분야별 연수에는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범어사 포교국장 효산 스님, 윤기중 포교사단 단장, 정분남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단장 등 사부대중 600여 명이 동참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남구불교연합회 호국의 달 장병 격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군장병을 격려하고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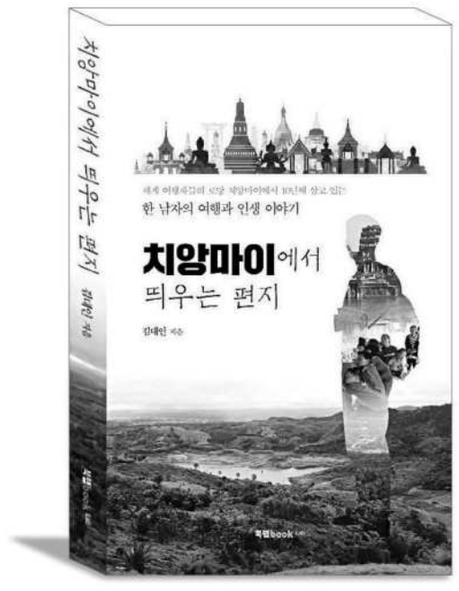
부산남구불교연합회(회장 지원)는 6월 17일 해군작전사령부 군법당 해운사를 방문해 위문법회를 봉행하고 위문금 300만원과 18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남구불교연합회는 매년 연말 일일찻집을 열어 후원 성금을 모금하고 불우이웃돕기 및 군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위문법회에는 회장 지원 스님, 수석부회장 화랑 스님, 사무총장 화랑 스님, 감사 능후 스님 및 정안호 해군작전사령부 부사령관과 장병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회장 지원 스님은 "법회를 통해 불자 장병들이 계정혜 삼학을 지키고 건전한 정신력과 건강한 체력으로 호국의 등불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치앙마이에서 띄우는 편지

여행은 내가 아들에게 준 가장 큰 인생의 선물이다.

세계 여행자들의 로망 치앙마이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는 한 남자가
손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진짜 여행 이야기

여행은 소중한 사람과의 추억을 만들어주고, 추억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한다. 해외여행이 흔하지 않던 시절, 저자가 아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더 큰 꿈을 꾸기를 바라며 함께 세계로 나가 여행했던 추억을 책으로 엮었다. 배낭에 반찬 통 몇 개를 넣고 '맨 땅에 헤딩'하듯 무작정 떠난 세계여행. 낯선 땅낯선 사람들과 만나 울고 웃고 또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어준 여행지에서의 체험을 이제는 일흔의 할아버지가 된 저자가 수십 자루의 볼펜을 바꾸어 가며, 아무런 기록 없이 기억에 의존해 생생하게 복원했다. 인생의 황혼기를 아름다운 치앙마이에서 보내며 아름답고 맑은 영혼을 가진 이들에게 많은 배움을 얻고 삶의 활력을 얻은 여행에 관해 쓴 에세이로,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현지의 리얼한 일상과 다양한 문화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자 김대인 | 북랩 | 230쪽 | 값 14,500원

저자 : **김대인**

저자 김대인은 1950년생으로 1989년 일본 자유 여행으로 첫 해외 여행을 다녀 왔으며, 1992년 초등학교 1학년 아들과 함께 배낭을 메고 세계 곳곳을 여행하기 시작하여 그 후로 자동차를 타고 육로로 동남아 여러 나라와 오지마을을 찾아다니는 자유 여행가이다. 2000년부터 태국 치앙마이에서 노후생활을 준비하여 현재 치앙마이에 거주 중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치앙마이의 매력과 오지 여행의 진가를 알려주고 싶은 두 손자의 할아버지이다.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지킴이 염주 세트
직경 8㎜
· 구 성 : 108염주 + 희담석지킴이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2㎜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www.hyunbulshop.co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s.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말세의 중생들이 마음에 허망함을 내지 않으면 부처님께서 이러한 사람은 현세에 곧 보살이라 항하사 부처님께 공양하여 공덕이 이미 원만했다고 하시니라.

– 원각경 –



관상 (손금)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암,질병,묘터, 송사재판,산소,낙태유산, 조상영가,교통사고,직장운, 승진운, 재물운,이혼수)
- **성철스님 사주 비법전수**
- 철학원 하실 분 천기누설 전수
- 스님, 무속인, 일반인

010-4014-8822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 출장탐사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범음범패 학인,회원모집

- 염불을 여법하게 하고 싶은 분
- 염불 내용을 알고 싶은 분
- 사찰행사 함께 공유하고 싶은 분
- 사물,바라,작법을 배우고 싶은 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5시)
사찰행사 문의 환영
(살풀이, 극락무, 지전무, 관음무)
055-744-5300
010-5243-3587
진주 여여불음원 법일 합장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의식은 불교의 꽃입니다.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의식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문의 010-3263-6544
010-5530-2388



조선소나무 판매

목재용, 건조기간 6년
수량 14000사이(상태A급)
건축면적 : 약 28~30평내
저렴한 가격
010-2294-4747

청정한 제주에서 기도하며 함께 살아갈 비구스님 모십니다

010-3516-6375
(문자로 남겨주세요)

인생상담하는 보살님 초빙

010-6880-6900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출가에 관심있는 50세 미만 남, 여 모십니다
02)992-0110

모 집 안 내

사암, 포교원 등록
종단, 연합회 등록
불교문화원 시설 등록
지방 종무청 설치 등록
한국불교 종무청
종무집정기관 종무집정관
종통정승 011-412-8040
서울시 노원우체국 사서함 25호

명상 (무료)

"누구나"
T.1588-5654
화 태 명 상 원
서울시 마포구 연남로 3길 31
전철 2호선 홍대역 2번출구

도깨비를 내 맘대로

대주스님의 뇌강검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 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 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어 내려온 비술
- 손 하나만으로도 몇년 전, 몇월, 몇일의 운세점 검 몇년 후, 몇십년 후, 몇월, 몇일, 몇시의 일도 예측할 수 있는 작법
- 명리를 배웠어도 시원치 않은 분
-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천지조화의 수치를 열어 보입니다
010-7703-1188

교육학 박사 진각 스님의 명리상담학



- 지금은 명리상담학이 제도권학문이 되어 여러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이 있음.
- 또한 명리상담분야의 비학위과정도 지역문화센터 등에서 많은 개설과 보급으로 신도 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였음.
- 이러한 현상이 현대는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상담분야로써 필요성이 더 절실하기 때문 임.
- 이제는 명리상담학을 필수학문이라 생각하고 방편 삼고자 큰마음을 내신 스님만을 위한 초급입문과정을 개강.
- 한자(漢字)는 22자만 알면 가능하고, 명리상담법과 작명법
- **부산 송광정사 부설 문화대학 교육학박사 진각**
-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10년간 강의 · 강의경력 23년
- 부산지하철 3호선 배산역 하차 4번 출구.

부산 ☎ 051-868-8438

七星 철학 命理 學堂

※실전통변술 해법(命理學神通術)
※실 전 반 모 집(1:1 맞춤 직강)
∵ 칠성사 부설 칠성문화원
경기도 시흥시 뱀내장터로 21(신천역)
☎ 031-315-4684
010-8427-6199

한국 민간 요법 연구소

전립선 도움
내성이나 항체가 강하면 연고 2개를 쓰시고, 약하신 분은 1개를 쓰세요.
한달 분 가격 55만원

비염 치료
25일 사용
70 ~ 80% 치료 효과
가격 40만원

010-9523-3338
농협 421019-58-009257 (이광주)
※ 37년간 연구 했음

정법수행에 적합한 토굴을 구합니다

산속이나 한적한 곳이면 되고
물이 가까이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임대 또는 싼값으로 양도도 가능합니다.
좋은 인연을 기다리겠습니다
010-7678-5536

대한불교조계종 영락사

요양하실 분 / 기도 하실 분

위치 :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033) 435-9556
010-7137-5924 / 010-4717-1960

청동 불상 조성 하실분 안내

(기존 대웅전에서 조성)

- 청동불 : 석가모니불1, 관세음보살 2
- 범종사 제작종 : 60관(225kg) • 후불탱화 : 1
- 기타 관세음보살상 외 1

※ 기존 대웅전에서 모시던 조성청동불을 인연되시는 분에게 저렴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문의 : 010-7244-6116

사찰화재 보험

목조건축물 OK!

010-7344-1881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의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산 속에 토굴이나 암자 구합니다

TV에 방영하는 '나는 자연인이다.' 산 속의 집도 연락 하십시오
010-5466-3321
성법스님

풍수지리 신통력

음택명당 이장하는데 해무리, 무지개 3시간 뜨고 양택명당은 꿈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010-4413-3377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종교인 과세 신고대행 안내

2018년부터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매월 받는 월급(보시금)에서 일정부분 세금 납부하고 (원천징수)
1년 동안 세금 납부 한게 많은지 적은지 확인하고 (연말정산)
1년동안 개인별로 무슨 월급을 받았는지, 연말정산 어떻게 했고,
세금 신고 한 거랑 연말정산 한 거 맞는지 확인 (지급명세서) 하는 절차입니다.

저희 <세무사 박성욱 사무소>에서는
종교인과세관련 신고대행 업무를 실시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가능하며,
6월 25일까지 신청 부탁드립니다.

종교인 과세 신고대행시 필요서류

1.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표자 신분증 사본 (국세청 세무대리 수임 동의에 필요합니다)
3. 급여내역 : 월 기본급 및 종교활동비
   ※ 종교활동비는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 · 승인 등으로 결정된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을 의미함. (예) 종무회의에서 의결승인된 종교활동비.

■ 연락처 : 전 화 / 팩 스 / 핸드폰 / 이메일

서류 제출 방법

1. 우편 접수 : (우)47715 부산 동래구 동래로 3, 태림빌딩 3층(온천동)
2. 팩스 접수 : 051-955-2129
3. 이메일접수 : parkwooky@naver.com

※ 전화상담 : ☎ 051-996-0308 박성욱 세무사

세무사 박성욱 사무소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이메일 jabi2018@naver.com | 02) 2004-8213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믿음으로 거센 흐름을 건너고 근면으로 넓은 바다를 건너며, 정진으로 고통을 벗어나고 지혜로써 청정을 이룬다.

- 숫타니파타 -



영천시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법당. 요사채 2채. 토지 1,000㎡
- 마을 주변 사찰. 위치좋고 기도 도량. 교통편리
- 양도 : 3억원 (융자없음) (위치 알려드리지 않음)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 40.가락동프라자@상가(대표:이규철)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 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사찰 사진과 상세한 정보는 가람공인중개사사무소 사이트 "사찰안내가람"(인터넷 검색창에 입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 (상봉동 127-15호)

청도 사찰(급)안내
- 산중 기도 사찰
- 목조법당. 요사채 .목조삼성각
- 조용하고 청정계곡접함. 경관좋음
- 운영잘 됨.기도 수행하기좋음
- 양도가액 : 9억원(융자가능함)

010-7347-1010 (02-430-0284)
구입의사 있으신 스님만 모심
(서울이박사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 정릉유원지 근처
- 대지 : 734평(국유지)
  인법당 10평 정도
- 방8개, 화상실 3개 시설완벽
  주차 : 마당에 10대 가능
  연못, 방가로 시설
- 가액 : 6억

010-3700-1893
02)911-9247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수도권
◎ 대지 : 140평
◎ 법당 : 40평
◎ 요사 : 30평. 40평
◎ 양도가 : 12억 3천
◎ 위치 : 서울 북한산
◎ 부지 : 100평사용
◎ 인법당 : 약 60평
◎ 산속, 무허가 건물
◎ 양도가 : 5천 5백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구서동에 있는 작은암자 (지하철에서 도보로 3분거리)
- 직접 보시면 만족하실 위치
- 오르막 없는 평지 주차 넉넉함
- 하천부지 약100평(산신각포함)
- 양도 또는 전월세도 가능

010-7121-3030
010-3574-3303

포교원 안내
- 위치 : 광주시 서구 농성동 (한전농성동 5거리) 경열로 45번길 10
- 2층 건물(1~2층) 전체 약 30평
- 법당, 방5개, 화장실 1,2층 각각 창고
- 가액: 보증금 5백만원(월세 30만원) 시설비 1천5백만원
- 급한인연으로 몸만오시면 됨

010-3102-5102

사 찰 안 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장기면 교통 아주 좋음
- 대지 약 500평, 주변산 2천평
- 건물 : 대웅전, 요사채, 기타 아름답게 잘 정돈된 사찰
- 가액 : 방문 후 결정
- 몸 만 오시면 됨

010-4537-5386

포교원 안내
- 위치 : 충남 보령시 동대동 천변
- 신축 건물 2층 40여평 트인 전망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0만원

010-5438-013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관이 수려한 고찰로써 수행하기 좋은곳
- 대지 1,800평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황토) 창고
- 주차시설 아주 좋음
- 확인 후 절충가능

주지직 010-7918-7328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삼장면 소재
- 600평 건물 6동
- 법당 53평 그 외 용왕당, 산신각, 요사채
- 가액 : 전화 상담

010-8957-8089

사찰, 학원 어린이집 부지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큰길 옆 산자락
- 5천세대 자이 2차 아파트 단지내 자명요양병원 입구
- 평수 : 256평
- 가액 : 5억

010-3173-5151

사찰상가주택(급)안내
- 대지 : 210.5㎡ / 건물 : 500㎡ (실제 조금 더 큼)
- 1층 : 찻집(30평)
- 2 ~ 3층 : 총 6가구 입주
- 4층 : 요사채(40평) /
- 5층 : 법당(30평)
-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위치
- 총금액 : 6억 8000만원

010-6656-8117

한 옥 안 내
- 위치 : 지리산 산청 단성 IC에서 5분거리 지방도 2차선접 토지 1,700평, 한옥 50평
- 정원수 백여종 다량, 식용가능 야생초 다량 식재
- 용도 : 사찰, 영수원, 동호인주택, 펜션, 찻집 음식점 가능
- 주변도시 진주시내와 20분거리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5분거리
- 가액 : 13억

010-5923-33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 전원 주택형, 요사채 25평 법당 33평 - 총대지 300평
- 정자(3×5m) 원목
- 진주20분 도로 잘되어 있음
- 삼존불, 영단, 신중단, 지장단, 소불(한쪽 벽면)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문의처 010-2607-7114

도심 별장 같은 사찰
- 위치: 시청 5분, 김해공항 10분 거리
- 토지 : 270여평, 주차장 완비
- 법당, 산신각, 종각, 용왕당, 종무소 주지실, 요사채(방3) 30평
- 돗대산, 주변 1500세대 아파트
- 가액 : 평당 280만원 (은행 2억1천 안고)

010-9906-3631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 대지 : 254평 (하천부지 포함 580평 사용중)
- 건물 : 대웅전, 산신각, 관음전, 공양간, 요사채(방 5개)
- 종무소 2층 건물, 주차장
- 답사 후 절충

010-6514-0405
(종무보살님)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영도구
- 시장, 은행, 마트 가깝고 교통편리함
- 대지 57평, 건물 철근 콘크리트 2층집
- 1층 요사채 30평내, 방2개, 주방1개 거실1개, 세면장 화장실1개, 도시가스
- 2층 법당 20평 내, 스님방 1개 도시가스 외부세면장 화장실 1개
- 모든 사물은 갖추어져 있음.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 2억 9천만원

010-4495-7005 (스님전화)

사찰 및 요양원 안내
사 찰
- 1층 30평, 칠보관음, 천불상 용왕대신
- 2층 25평, 삼존불, 관음소불 130
- 요사채 40평, 큰방 3, 황토방 1

요양원
- 1층 90평, 2층 90평, 대지면적 약 900평
- 정원 25명, 현입소인원 25명
- 신축건물 월매출 약 4천5백만원(요양원만)
- 뒤에는 높은 산이요 앞에는 큰 저수지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최고의 명당터
- 위치 : 경남 밀양
- 가액 : 16억(융자 5억 5천 안고 11억)

010-9567-0813

사찰(급)안내
- 위치: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1,500평 남짓
- 법당, 목조 20평, 관음전, 종각, 차실, 요사채, 공양간
- 모두 방 10칸, 외부, 부속사 등등 대형주차장 등
- 가액 : 모두 2억 9,500만원 (대출 7,500만원 승계도 가능)

010-4628-5699
(부득이한 사정)

불자가 중개하는 안락동770-2 허가06-2231
공인중개사(중개안내)
- 전국사찰(터) + 암자 + 포교당 + 기도원
- 거래 성실(비밀) 중개로 오랜 경력 신용 쌓았습니다
- 살분 = 팔분 편안히 상담 바랍니다

010-3570-0025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역 5번출구에서 5분거리
- 평수 : 2층 상가건물 약30평
- 교통 위치 좋음
- 보증금 10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일체 1000만원 (가격절충)

010-8887-9894

사 찰 안 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70평 - 가액 : 7억
- 조건 : 양도시 모든 기물 포함 (불상,불화등 기타)
- 주변 주차 시설 양호함
- 도시가스, 상수도 입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임

010-8716-2399
(부재시 문자 남겨 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 청통 부근 산을끼고 아주 조용한 사찰
- 단청, 주련 현판
- 총평수 465평, 현대식 건물 2동 1층 요사 30평, 14평 2층 30평 법당
- 가액 : 3억 9천만원

011-503-0517

사찰(토굴)안내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손맞이길 107
- 사찰건물 : 법당, 방2, 주방, 다용도실, 독채등기필
- 대지 : 도지료1년 35만원
- 넓은 마당 및 텃밭200평 사용 (건물은 지상권 등기되어 개인소유임)
- 가액 : 4천 5백만원

010-8525-1959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화봉로
- 2층 : 33평
- 몸만 오시면 법회 가능, 준비 할것 없음
- 가액 : 전세 3,0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 2,500만원
- 22년 포교중 ※ 불사관계로 (급)

052-287-8526
010-7572-852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대지 : 약 360평
- 사용평수 : 약 500평(하천부지포함)
- 법당,삼성각,약사여래,삼층탑,석등
- 요사채2채,창고3개,주차시설완비
- 가액 : 4억 - 창건 1972년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010-4583-489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 대지 : 1140평, 주차장
- 건물 : 대웅전30평, 요사채
- 기도방 6칸, 산신각, 스님친견실, 창고, 일주문
- 가액 : 5억 8천만원 (대출 1억)

010-8916-5680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 4층 건물 중 3층 60평
- 법당, 방 3개, 공양간, 창고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2,000만원
- 즉시입주, 몸만 오시면 됨

010-8842-4225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효목2동 437-5 동구시장 맞은편. 명보약국. 골목
- 4층건물 내 2층 40평 중 내실. 상담실 주방. 세탁실. 화장실. 법당 29평내
-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신중탱1점 소불 관세보살 지장보살
- 보증금, 시설비 포함 2,000만원 월 45만원,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8748-4737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만덕동
- 2층 80평 방 5개, 주방
- 삼존불 및 33관음보살 원불
- 보증금 1,000만/월100만원
- 시설비 : 3,200만원,
- 시설 완벽 새 법당 주차장 대형주차장 완비
- 큰절 소임관계로 급양도

010-5638-5959

도심속 작은사찰안내
- 위치: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 건물 : 1층 단독 주택
- 아담하고 예쁜사찰, 법당, 요사 실내화장실, 실외화장실, 세탁실 창고, 포교, 철학 상담하기 좋은 사찰
- 난방 도시가스, 심야 전기
- 가액 : 1억 9천 5백만원 (대출 7천5백만원안고 1억2천만원)

010-7188-7723

멋진 2층 상가 주택 토굴
- 위치 : 김천시 대항면 대룡리
- 대지 : 716㎡ (약 217평)
- 건평 : 1층 158㎡ (약 42평) 2층 105㎡ (약 35평)
- 양도금액 : 3억2,000만에서 5,000만 빼드림
- 대출 : 1억 포함(가격조정가)
- 사정상 시세 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
- 대지 125평중 건평 100평
- 법당 35평, 삼성각, 용왕단, 호신불 650불,인등 1008등
- 방 5개, 화장실 3개
- 아파트 대단지 4만5천세대 부근
- 가액: 3억 5천만원

010-5019-5385

토 지 안 내
- 위치 : 전남 구례군 토지면 단산윗길 264 지리산 보현사 근처
- 3800여평
- 평당 약 23만원
- 종교시설, 복지시설, 개인주택 및 농가 모두 가능

010-5393-3689
보현사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마산 근교
- 임야 4천평, 대지 약1천평 법당 35평, 요사 60평
- 1천 3백년 고목 있고, 산세수려, 교통 편리 지하약수 천혜의 명당지리
- 가액 : 12억

010-4547-4990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 땅 1,700평, 건물 5동 130평
- 선방을 할 수 있는 명당자리 입니다
- 가액 : 답사 후 절충

010-3882-8112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중구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입구
- 포교하기 최상 장소
- 평수 : 약 80평
- 가액: 보증금 1,500만원 월세50만원
- 시설비: 협의 결정

※ 불사관계로 급
010-4766-3200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시내
- 대지 : 200평
- 법당 : 20평
- 요사채 : 40평
- 산신각 : 10평
- 몽땅 : 1억 1천만원

010-8861-1785

금정산 전통 사찰
- 위치 : 부산외대 뒷산 고찰
- 법당, 산신각, 주지실, 요사채
- 산림도 접, 600여평 점유
- 등산로, 샘물 식수 명당
- 짚차 4WD 올라감
- 가액 : 2억 5천만원

주지 010-3585-0200
010-9906-3631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대로변
- 4층 건물 4층 약 80평 (엘레베이터)
- 시설:A급(시설비 약 1억 소요)
- 구조 : 법당, 방사1, 상담실, 주방, 화장실
- 가액: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는 방문 후에 상호 결정

010-2270-6611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전 대사동
- 평수 : 40평
- 방 2개, 법당, 주방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세 30만원 시설비 1300만원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 몸만오셔도 법회 바로 가능
- 스님, 법사님, 보살님

010-8651-3568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 법당 및 사무실40평, 요사채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교통요지, 1호선,중앙선,버스 정류장앞, 옥상 사용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957-0824

사찰터 기도원 안내
- 위치 : 경산 용성면 용천리
- 임야 : 12,000평
- 수목 : 소나무, 참나무 진달래 약초, 고사리 참옻나무
- 작은 연못도 있으며 산정상으로 등산로 탐방길 되어 있습니다

010-4953-1728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새절역 3거리
- 평수 : 38평에 법당 30평 3층에 3층 방 2개, 화장실
- 청동삼존불, 후불신중탱화
- 보증금 천만원에 월 90만원
- 시설비 및 설치비는 답사 후 절충가능 문의전화

010-7107-6160

도심 속의 땅 넓은 사찰 (50년생)
- 위치 : 부산시 신평동
- 총부지 : 4800평

※ 일부 주거지(800평)
- 건물 : 법당 및 산신각, 요사채(60평)
- 조망권 : 바다와 노송이 우거진 멋진 전망
- 양도가 : 평당 20만원

010-3560-8522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양양
- 해발 고 산과 호수 위 암자
- 국유림 내 사유지 120평 건물 등기 20평
- 최고의 기도처
- 도로 생수 전기 통신 유
- 최저가 : 7,500만원

010-8899-8899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대명동
- 단독 주택 약 50평
- 법당, 방 3, 화장실 2
- 법당(아미타 삼존불), 청동불(3자)
- 보증금 1천500만원, 월30만
- 시설비 : 청동불 인수 포함 2천만원

010-9735-803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금호읍 어은리 318번지
- 대지 : 107 평수
- 건물 : 인법당, 80평
- 가액 : 1억 5천만원 (꼭 하실분 가격 절충)

스님 010-3540-6549
010-7169-139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서구 소재 (송도해수욕장 인근)
- 대지 : 약 130평
- 건물 : 한옥 2동 (법당 및 공양간 약 22평, 주지실 7평 등)
- 가액 : 보증금 일천오백만원, 월50만원/시설비 : 상담 후 결정

010-3262-1005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입구 17년째 운영
- 평수 : 40평, 3층 옥상사용 사무실, 스님방
- 법당,삼존불 시설 원만. 몸만 오시면 됨
- 전세 1000만원, 월40만원 에어컨 완비
- 시설비 1000만원 절충가능

010-7536-25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예천, 경북신도청 7.5㎞, 예천군청 9㎞
- 법당 : 실평수 30평, 요사채 30평, 40평
- 사찰도량 1,200평
- 가액 : 5억 5천만원
- 요양원, 실버타운 적합

010-3526-7066

포교 사찰 안내
- 위치 : 김천시 구성 소재,시내버스10분거리
- 건평32평독채(법당 약20평,거실,주방,방2,욕실)
- 건물 : 건물 주인 등기부 등재, 근린시설 사찰(법적보장)
- 대지 : 약100평중(두집사용)약50평, 대지주인 도지료 1년 35만원
- 면중심 큰길변 교통좋은 포교지. 주차공간 넓음
- 가액 : 5천8백만원(절충가 인연보시)

전화 010-7295-1259

상가주택 포교원(급)안내
- 투자가치도 좋음, 급 양도. 포교원 3층 건물 4억 3천~3억9천
- 위치 : 전주시내 앞도로변, 좌로4차선, 앞으로 2차선 주변환경, 전북경찰청, 도청, 아파트, 상가, 주택 밀집지역, 공원, 천변산책로
- 대지 61평, 뒷마당 있음, 건평 90평, 각 30평 3층 건물
- 1층 방3개,해우소/2층.법당.수미단원목조성.소불300불, 연등700,인등.영가인등.해우소/3층.주택,방3개,화장실2개. 외부, 내부 뼈대 외 올리모델링, CC카메라10대
-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면 최고의 위치
- 가액 : 3억9천만원 (불사관계로)

휴대폰 : 010-5904-8608

공산주의로 파괴된 몽골 불교… 과연 재건될까?

학인스님 교육제도 개편
'부활 신호탄'

박영빈 객원기자

공산주의의 탄압 하에 철저히 파괴됐던 몽골불교가 다시금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부디스트 도어'는 6월 5일 새로운 법등을 밝히기 시작한 몽골불교의 시도를 집중보도했다.

몽골 북부의 초원에 위치한 아마르바야스갈란트 사원은 현재 몽골불교의 부활을 상징하는 사원이다. 몽골 3대 사찰 중 한 곳인 이 절은 18세기 청나라 황제였던 옹정제의 보시로 지어졌다. 하지만 전각은 전성기의 절반을 조금 넘는 28개소만 남았다. 3,000명에 달하던 스님들은 현재 겨우 40명만이 남았고, 주지스님의 나이는 겨우 35세이다. 그러나 사원은 남아있는 경전들을 보존하여 교육체계를 새롭게 세우는 데 노력하고 있다.

10살 남짓한 사미들을 가르치는 롭상 따양 스님은 4년간의 기본 교육만을 마친 상태다. 스님이 출가할 당시 전통 강원 제도가 완전히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롭상 스님은 "나 스스로도 충분히 지식을 갖추지 못했는데 사미승들을 가르치다는 게 부끄럽다"며 멋쩍게 웃었다.

학인 스님들은 모두 오전에 불경을 외운다. 티베트 불교 문화권인 몽골에서는 중요한 논서와 기도문은 모두 암송하는 것이 기본이다. 어린 사미 스님들은 오후에 문학과 수학 같은 일반 과목을 배운다. 다른 학인들은 논리적인 문답을 통한 교학적인 체계를 배운다. 일반과목의 교육을 제외하곤 전통 강원의 교육체계를 최대한 따르고 있다.

롭상 스님은 "요즘엔 청정히 계를 지키는 스님을 매우 보기 힘들다"며 흐트러진 계율에 대해 염려를 드러냈다. 현재 몽골불교의 어려움은 출가자들의 청정지계와 젊은 출가자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1924년 소련의 위성국가로 세워진 몽골인민공화국은 수립과 함께 몽골의 전통신앙이었던 불교와 샤머니즘을 대대적으로 탄압했다. 193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1,250개소 이상의 사찰들이 완전히 파괴되거나 폐쇄됐다. 사찰에 있던 예술품들은 소각되거나 외국으로 팔려나갔다. 반혁명분자로 몰려 처형된 몽골인들 가운데 스님들만 18,000명이 넘는다. 그 결과 10만 명에 달했던 스님들은 공산정권의 붕괴 직전이었던 1990년에 단 110명 뿐 이었다.

하지만 몽골불교의 뿌리는 천천히 힘을 키우고 있다. 오랜 기간 단절되었던 승원의 기강과 교육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시도 되고 있다. 몇몇 사원들은 단 2주의 방학 외엔 학인들이 산문을 나가지 못한다. 절에 정주하면서 스스로가 출가자라는 자각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

아마르바야스갈란트 사원의 경우 25세가 넘은 스님들에게만 스마트폰과 같은 개인 전자기기를 허락하고, 사원내의 모든 인터넷 회로를 제한했다. 역시 좀 더 교육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또 전통강원이 남아 있는 나라로 유학을 떠나는 스님들도 늘고 있다. 인도나 네팔, 티벳으로 유학을 떠난 스님들이 교육을 마치고 돌아오면 몽골현지에서 본격적인 교육체계의 복원과 부흥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차원에서도 불교의 부흥을 지원하고 있다. 주거밀집 지역과 떨어진 사찰들에 편의시설을 짓거나 사찰의 복원들에 예산을 내고 있다. 유학을 떠난 스님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아마르바야스갈란트 사원의 부주지 롭상탑땐 스님은 "숲을 베어내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하지만 새로운 나무들이 숲을 이루는 것은 오래 시간이 걸린다"며 어린 학인들을 교육하고 육성하는 일에 조급해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2010년의 몽골정부의 인구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53퍼센트가 스스로를 불교도라고 밝힌 반면 38.6퍼센트는 종교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 여전히 공산정권 시절의 여파가 남은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렇듯 몽골의 젊은이들에 대한 재포교와 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 다시 한 번 몽골의 정신문화에 올바르게 자리 매김하려는 몽골불교의 미래가 주목된다.



경전을 암송하는 사미 스님들. 사진출처=글로벌 부디스트 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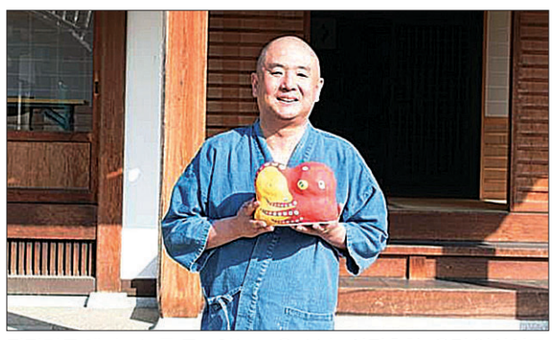
아침예불을 위해 모이는 학인스님들. 사진출처=reuters.com

일본서 스님 수제 인형 '돌풍'

절아이들 조용히 시키려고
하나씩 쥐어주던 흙부처님
손에 부처님 쥐고 좋아해
동일본대지진때 피해자에
나눠주자 부적이라며 열광

일본 불교계는 각양각색의 다양한 방법으로 불교포교를 위해 나서고 있다. 그 중에도 인형을 포교로 활용하는 스님이 있어 화제다.

일본의 여성지 '우먼 익사이트'는 6월 17일 수제인형을 만드는 일본 오카야마(岡山)현 쿠라야시키(倉敷)시에 소재한 사찰 코조지의 아마노 코유스님에 대해 보도했다. 스님이 만든 인형과 그림들은 지역 상품관을 넘어서 도쿄의 잡화점이나 인테리어 샵에 납품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스님은 스스로를 아티스트라고 자부하며, 지역 라디오 방 패널, 불화나 불상을 모티프로 한 인형과 엽서 제작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쿠라야시키 스님의 장난감 공방'을 세워 인형들을 제작하고 있다.



직접만든 엔키모노를 들고있는 코유 스님. 사진출처=우먼 익사이트



코유 스님이 처음 만들었던 흙부처님. 사진출처=우먼 익사이트

코유 스님은 "절에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을 열었다. 아이들이 많이 온 것은 좋았으나 40명이 넘다 보니 너무나 시끌벅적 해졌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조용히 집중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처음엔 작은 공방에서 인형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처음 인형을 만들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스님은 한 손에 들어가는 크기의 작은 흙부처님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나눠줬다. 그리고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부처님을 손에 쥐고 기도하게 했다. 아이들은 그러면 이내 "내 손에 부처님이 들어왔다"며 조용해 진다고 한다.

코유 스님은 "부처님이 마음에 들었는지 집에 가지고 돌아간 아이들도 있었다. 흙부처님을 작은 주머니에 넣어 다니는 아이들이 생기면서 달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고 처음 만든 흙부처님을 보여주었다.

코유 스님의 인형들이 일약 유명해진 계기는 동일본대지진이었다. 스님은 "지진 이후로 여진이 생길까봐 노이로제에 걸렸다는 피해자의 상담을 받았다. 그에게 불화를 하나 그려주곤 매일 반야심경을 한편씩 외우라고 충고했다. 그러자 이전처럼 여진에 대한 걱정이 줄었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를 계기로 스님은 '지진의 흔들림은 없애지 못해도, 마음의 흔들림은 멈출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흙부처님을 만들었다. 메기를 밟고 있는 모습의 '지진막이 부처님'이다. 일본에선 땅속의 메기가 움직이면 지진이 난다고 믿었던 전설에서 유래했다.

불상을 만들어서 지진의 피해를 입은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자 곧바로 소문이 났다. 스님은 "지역언론에서 취재가 오고, 구매를 원한다는 사람이 급증했다. 지진을 막아주는 부적이라고 소문이 났지만, 진정한 부적은 부처님께 매일 손을 모아 안정된 마음이다"라며 미소를 지었다.

스님은 공방을 세우고 나서 새로운 인형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엔키모노라는 전통인형이다. 엔키모노는 옛날 절이나 신사에서 참배자들에게 증정하던 인형이다. 불상이나 천신, 동물들을 모습으로 만든 엔키모노는 액을 막고 복을 부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코유스님은 "흙부처님을 만들다보니 엔키모노까지 생각이 미쳤다. 최근에 수제 엔키모노를 증정하는 곳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안타까워 시작하기로 했다"고 공방을 세운 취지를 말했다. 스님, 부처님, 동물들을 모티프로 삼아 시리즈로 만들고 있는 엔키모노들은 도쿄의 인테리어 샵에서는 입하와 동시에 매진될 정도로 인기이다. 스님이 만들었다는 말에 더욱 인기가 좋다.

코유스님은 인형을 주문받으면 일일이 상자에 부처님의 일러스트를 그려서 발송한다. "자신 가까이에 신앙의 형태로, 가볍게는 인테리어로 즐겨주길 바란다"고 스님은 앞으로도 인형을 통해 부처님의 마음을 전하겠다는 다짐을 나타냈다.

박영빈 객원기자

이슬람 국가 최초 불탑 건립

스리랑카 이주자 원력으로 바레인서



이슬람 국가 최초 불탑〈사진〉이 세워졌다.

스리랑카의 온라인 매체 '데일리 FT'는 6월 15일 이슬람 국가인 바레인에 스리랑카 이주자들이 처음으로 불탑을 세웠다고 보도하며 매우 상징적이고 전례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바레인에 거주중인 불교신자들을 위해 건립된 이 사원에는 다양한 불교 시설물이 배치됐다. 특히 스리랑카 이주자들과 현지 불자들이 많은 불상과 벽화 등을 후원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사원에는 예불을 드릴 수 있는 공간과, 명상의 공간이 마련돼 불교신자들의 정신적 피난처가 될 전망이다.

박진형 기자

철 골 조
사찰신축전문



사찰지붕개량
천년와 기와 지붕개량
공사기간단축(3분의1)
공사금액 목조보다 60%절감

010-3911-1775 / 011-9726-9288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당뇨, 고혈압에서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 디스크, 협착증 및 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내원궁 회향선원에서
부처님 진리를 배우고 실천 하세요

재가불자 내원궁 회향선원에서는 부처님의 진리를 배우고 생활하실 재가불자님을 모집 합니다.

내원궁 회향선원 입주 조건은 보증금 5,000만원 입니다.
5년 동안 1인 1실 원룸에서 생활하고, 모든 숙식은 내원궁 회향선원에서 제공해 드리며, 5년 후 보증금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즉, 생활 전액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조건입니다.
2인 1실은 보증금은 1억이며, 재가불자에 한하며 스님은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많은 문의 및 방문 바랍니다. H·P 017-201-0037



▲ 1인 1실 원룸 내부 ▲



▼ 내원궁 건 물

사랑 나눠주고 집착 놓는 변화를



지운 스님의 **자비선 명상**



3. 자비수관

3) 자비수관 명상하는 방법

자비손 만들기-의식의 작용

자비손 연상이 잘 안 될 때는 자비손이 만들어지도록 해본다. 자비손 연상이 희미하거나 연상되지 않더라도 손이 있다고 생각하고, 상상력으로 책상이나 바닥을 치면서 의식의 작용이 선명해지게 해보는 것이다. 물론 연상이 잘될 때도 이 방법은 의식의 작용이 선명해질 수 있게 해준다.

① 실제 손을 책상 위 또는 바닥에 대고 그 감각을 기억한다. 상상으로 만든 마음의 손으로 책상이나 바닥을 만져본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손이 의식되면서 책상이나 바닥을 치게 된다. 특히 10초나 20초 정도의 시간에 얼마만큼 빨리 두드리며, 두드리는 횟수가 얼마인지 시험해본다. 빨리 두드리고 그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집중이 잘되는 것이다.

② 다음에는 조금 떨어진 벽에 마음의 손을 보내서 두드리는 실험을 해본다. 그리고 두드리면서 숫자를 헤아려본다.

시선을 너무 멀리 두면 손바닥이 가서 두드릴 때 힘들어서 속도가 느려짐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마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자기도 모르게 가상의 마음의 손이 생각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을 떨치면 마음이란 멀고 가까움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게 된다.

③ 다음에는 벽에다 마음의 손이나 주먹을 보내서 벽을 뚫고 들어갔다 나오는 실험을 해본다. 그리고 몇 번인지 횟수를 세어본다.

우리의 인식은 벽은 단단하고 두껍고 막혀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마음의 주먹은 쉽게 벽을 통과한다. 벽을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다. 벽의 형상에 흠 하나 없이 마음의 손도 손상되지 않은 채 자유롭게 통과한다. 통상적으로 벽은 있고 단단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상력으로 그 벽을 부수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곧 알게 된다. 왜냐하면 관념의 벽에 의해 의식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습을 하다보면 저절로 손이 만들어진다. 이 연습은 처음 마음의 손을 만드는 사람이나 마음의 손 이미지가 약한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마음의 손이 작용하는 데 걸림이 없다는 것이 명확히 이해된다.

그렇지만 몸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올바른 수행 자세가 아니며, 도리어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 수행의 근본이 자비심이란 사실을 망각하고 오직 자기 몸의 변화에만 안이하게 만족한다면 곧바로 집중력과 관찰력이 사라지게 된다. 대신 폭력과 자만에 물들어 자신의 몸을 상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생겨서 함부로 대상을 조작하려고 하거나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④ 다음에는 벽속에 손을 넣고 방 전체로 돌려본다.

이 실험은 마음이 뒤쪽으로도 가는지 체험해보는 것이다. 마음(의식)의 자유로움을 확인해보는 체험인데 단지 의식을 움직이는 훈련이다. 의식을 움직여서 몸의 현상을 관찰하는 것은 위빠사나이다. 즉, 호흡관찰할 때 어떤 부위에 현상이 나타나면 그 부분을 관찰하고, 그 현상이 사라지면 다시 호흡관찰로 되돌아온다. 이렇게 다른 부위의 현상을 관찰하는 것은 곧 의식을 움직여서 관찰하는 것이다. 자비수관도 이 원리와 같다. 자비손(의식)을 움직이는 것은 의식을 움직여서 관찰하는 것이다. 오히려 능동적으로 자비손을 몸에 접촉시킴으로써 몸의 5대 현상과 아뢰야식 속에 저장돼 있는 정보들까지도 쉽게 나타나도록 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자비수관을 훈련하다보면 마음속에 잠재돼 있던 트라우마에서 점차 벗어날 수 있다. 다음은 자비수관을 체험한 50대 여성의 체험기다.

나는 일상생활에서 항상 장사도 크게 하고 싶고, 남들도 많이 도와주고 싶고, 남들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모든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마음일 뿐 조그만 변화에도 심장이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거나, 2~3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도 얼굴이 붉어졌다. 조그만 일에도 크게 반응하여 두려움을 느껴 생활이 불편했고, 특히 소변을 보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살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년 동안 여러 가지 수행, 방편을 사용했으나 결정적인 원인을 찾지 못했다. 그렇게 지내다가 2010년 9월 추석 이후부터 자비선사에서 자비수관 명상을 시작했다.

무엇에도 걸림 없는 마음의 손
의식을 움직여 현상 관찰하고
망상 없애 지혜 얻는 데 도움
모든 과정에 자비 잊지 않아야

수행 첫날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고통의 원인들이 올라왔다. 나는 산골에 살았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입시를 위해 학교에서 야간학습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밤이 되었다. 가난한 산골마을이라 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은 나 혼자뿐이었다. 당연히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나 혼자였다.

시골 밤길은 초등학교 여학생에게는 너무나 무서웠다. 이웃 할머니들에게 전해들은 귀신 이야기 등은 공동묘지를 지날 때마다 떠올랐고, 산길에 있는 개울물 건너기는 너무 가혹했다. 무서워서 오줌을 싸기도 하고, 앞뒤로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기도 했다. 이러한 두려운 경험은 반복됐다.

내가 40년 동안 불안감, 두려움과 육체적 고통 속에서 살아왔던 것은 다 이 트라우마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자비수관 수행을 하면서 내 자신에게 사랑과 연민해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 수행 중에 눈물이 저절로 나왔다. 스님께 점검받으면서도 울었다. 이번 기회에 내 인생을 가로막았던 트라우마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리고 자비선사에서 한 달여 동안 장기수행을 했다.

스님께서 법문하신 '알아차림' 또한 "과거는 지나가서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아 없고, 오직 현재만 있을 뿐"이라는 내용을 계속 되새기며 나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제 장사에도 자신감이 생겼고, 대인관계도 원만해졌다. 나의 모든 상황이 긍정적으로 보이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낮추어 보았던 습관이 바뀌었다.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생각하고 사랑으로 대하게 됐다.

자비손 응용법

자비손을 응용하는 방법으로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자비손으로 몸을 쓰다듬으면서 그 손을 따라 몸의 변화를 관찰하는 방법이다. 자비손을 따라 그 부위를 관찰하면 변화하는 현상을 알 수 있다.

둘째, 자비손으로 몸을 쓰다듬어 놓고 난 직후에 자비손을 멈추고 그 몸의 변화를 주시하여 관찰하고, 다시 자비손으로 몸을 쓰다듬는 식으로 반복하는 방법이다. 마치 여러 가지 물건을 흩어놓고 자기가 찾고자 하는 물건을 찾듯이 한다.

셋째, 자비손을 사용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단지 주시하여 지켜보기만 하는 방법인데, 이는 자비손보다는 단지 지켜보는 방법이 유효하다고 판단될 때이다. 그렇지만 다시 자비손으로 돌아온다.

넷째, 앞의 세 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혼용하는 방법이다.

이 네 가지 방법은 생각의 흐름을 그치게 하여 마음을 고요하게 하거나 대상을 꿰뚫어보아 망상을 제거하여 지혜가 생기게 하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자비손과 몸의 접촉방법

첫째, 몸을 '아기' 마음의 손을 '어머니' 손으로 생각하고 마음의 손을 신체에 접촉하여 쓰다듬을 때 "잘 돌봐주지 못해 미안해" "이제까지 잘 버텨주어 고마워"하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사랑해"하고 대화하듯이 한다. 특히 통증이 있는 곳에 자비손을 대고 대화하듯 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이와 같이 자비심을 담은 대화를 통해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자비심이 발동한다. 이것이 자기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법이고, 부정적인 감정을 제어하며 사랑 · 연민 · 관용 · 용서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키우는 방법이다.

둘째, 마음의 손을 신체에 접촉하여 쓰다듬기를 하되, 맑은 물이나 따뜻하고 부드러운 솜 등을 연상하여 응용한다. 수행자의 근기나 몸 상태에 따라 응용하는 연상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셋째, 자비손을 몸에 직접 접촉하지 않고 3~5㎝ 또는 10㎝ 이상 간격을 띄워서 쓰다듬기를 하되, 밝은 빛 투과시키기 등을 응용한다. 자비손을 몸에 접촉하지 않고 간격을 띄어서 할 수 있는 것은 몸이 항상 기운을 발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비손이 이 기운과 접촉되면 기운이 아주 활발해진다. 그래서 자비손과 기운의 접촉이 잘 되는 경우에 자비손을 몸에 접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효과는 몸에 접촉시킨 것 이상 발휘될 수도 있으며 몸의 형상이 모두 기의 흐름으로 변할 수도 있다.

넷째, 손을 크게 키워서 자비손을 응용한다. 또는 어머니가 아기를 사랑스럽게 쓰다듬을 때처럼 아주 부드러운 감정을 가지고 따뜻함이나 빛 등을 실어서 응용한다.

이렇게 처음부터 차례대로 해도 되고 차례 없이 혼용해도 되며, 각자 성향에 따라 그 중 하나만 골라서 해도 된다. 역량에 따라 천수천안과 같이 자비손을 많이 만들어 응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배가 몹시 차다면 따뜻한 손을 만들어 배에 대 놓고 다른 손으로 머리부터 관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손을 대상 부위에 가만히 올려놓을 수도 있으며 지그시 누를 수도 있다. 때에 따라서 손의 성향을 바꾸어 가면서 응용하면 된다. 단지 거칠게 때리듯이 완력으로 하는 것이나 지압하듯이 꾹꾹 누르는 것은 자비심의 표현이 아니므로 해서는 안 된다.

어머니가 사랑이 가득 찬 시선으로 아기를 보면서 쓰다듬듯이 자비손을 떠올려서 머리 쪽부터 몸 아래로 천천히 마사지하듯 쓰다듬음을 연상한다. 사랑의 감정을 넣어서 이렇게 천천히 발까지 골고루 자비손으로 쓰다듬는다. 이때 몸은 그대로 놓아두고 마치 제3자인 것처럼 손과 몸이 접촉되는 부분을 주시하면서 실제로 쓰다듬을 때 접촉되어 일어나는 느낌의 처음, 중간, 그리고 끝의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쓰다듬음은 내 것[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고 붙들고 집착하는 마음을 놓아 버리는 것이며, 서로를 소통시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보리마을 자비선명상원 선원장〉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202호 현대불교
2018년 6월 27일(5월 14일) 수요일 / 불기 2562년

악도 선도, 옳다 그르다도 놔 버린 채 그대로 말겨놓고 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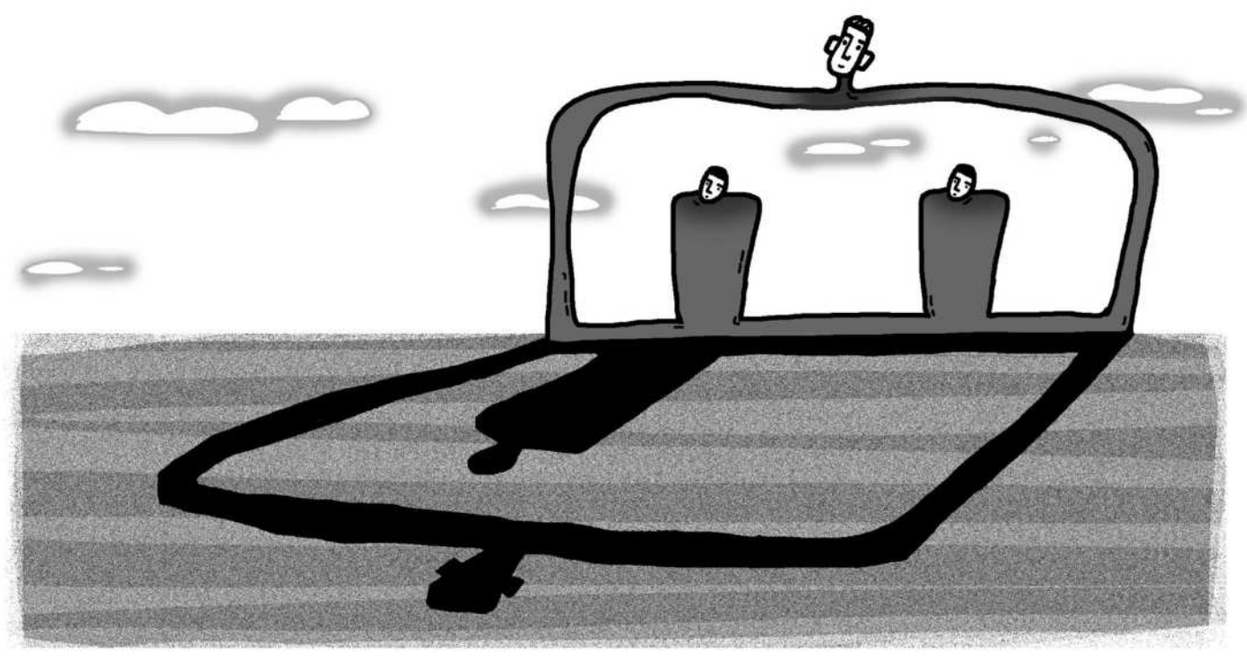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과 어저께 저녁에도 같이 앉아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도 이렇게 같이 앉아서 또 토론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한국도 아니고 외국에 여러분이 오셔서 이만큼 살기까지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나 하는 생각을 하니 그렇고, 우리가 처음에 어디 가서 시작을 하면 무척 고생을 하고 그러는 걸 생각할 때, 또 어디를 처음에 가서 내 집이 없이 이틀이고 사흘이고 열흘이고 떠돌 때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이 처음 여기에 오셔서 얼마나 고생을 했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는 반면에 여기에 계신 여러 한국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불교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불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교라는 것은 말입니다, 고등 동물인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좋은 말을 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입니다. 그래서 불교입니다.

그런데 어느 종교를 막론해 놓고 결국은 불교죠. 생각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더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진리가 돌아가는 대로 여러분의 생각도 빨리 돌아간다면 좋겠는데, 지금 불교를 믿고 이렇게 다니는데 여러분이 죽어서 천당에 간다든가, 죽어서 승천한다든가 또는 그 죄업을 사하게 하기 위해서 다닌다든가,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다닌다는 생각을 가질 때마다 여러분은 이미 진리에는 늦는 겁니다. 그 생각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 사람 참, 구름 잡는 소리 한다."라고 욕을 하겠지만 어저께도 얘기했듯이 이 찰나의 생활이라는 것이, 애들이 세대 차이라고 하듯이 생각 차이가 그만큼 아주 어렵습니다. 생각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복이다 하면 벌써 타력으로 나가면서도 죄가 있으니까 죄를 사해야 하기 때문에 백팔 배를 해야 하고 정성을 들여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누가 죄를 벗겨 주고 씌워 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것을 누가 대신해 주거나 씌워 주거나 대신 벗겨 주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마음 따라 있습니다. 그대로 마음의 도리를 퍼뜩퍼뜩 재빠르게, 지혜롭게, 즉 말하자면 그것을 지금 애들은 계발이라는 말로 많이 쓰고 있는데, 말로는 할 수가 없는 이치가 거기에 붙어 돌아갑니다만 찰나에 돌아가는 이 자체를 우리는 용도에 따라서 잡아서 씁니다. 그런데 어느 절에 다녀도 여러분의 생각은 항상 죄를 덮어쓰고 죄를 덮어씌워 주고 그럽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이 과거에 어떠한 것을 짊어지고 지금 현생에 나왔기 때문에 과거도 없을 뿐 아니라 미래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없고 지금 현재도 찰나이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붙을 게 없죠. 그런데 우리가 여여하게 그대로 지금 걷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먹고서 이걸 해야겠다 하면 하는 거고, 내가 이것을 죄가 있어서 못한다 하는 생각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마음은 체가 없는 것이고 죄도 체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과거 아닙니까? 일 초 전도 과거죠. 일 초 전에 무슨 죄를 지으셨습니까? 지었다고 생각하면 지은 거고 안 지었다고 생각하면 안 지은 건데, 안 지었다는 생각도 말고 지었다는 생각도 마시라 이겁니다. 그러되 내가 그대로 가는 길, 내가 하고 가는 길에 그대로 일체 만법을 자유스럽게, 여여하게 씀씀이를 쓰고 가는 것이 그대로 불교며 바로 여러분의 선행입니다. 그럼 "악하게 해도 그것이 선행이냐?" 이렇게 하신다면 그건 어폐가 있는 말이겠죠. 그런데 악하게 하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고 선하게 나오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말입니다.

어떤 스님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예전에는 스님네들이 밭도 파고 채소도 많이 심어 먹었습니다만 거름을 갖다 져다 주는데 "얘야, 가서 공양 좀 빨리들 해라." "누가 오십니까?" 하니까 "오늘은 달 스님이 오시는데 인사를 해도 아니 되고 인사를 안 해도 아니 되느니라." 그러더랍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옳다 그르다 이런 것을 놔 버린 채 그대로 맡겨 놓고 가신다면 아무리 악한 마음이라도 그대로 보살의 마음으로서 정립이 되면서 바뀌지면서 이렇게 진화가 되면서 여러분을 좋게 이끌어서 선행으로 끌고 갑니다. 이건 자동적이죠.

오신통 하면 거기 심성이 들어가죠, 심성! 지금 시쳇말로 심성이 들어가지 않고는 사람이 살 수도 없거니와 모든 일체가 심성이 없이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주인공에 모두 놓고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길을 인도하는 이 이치가 바로 천문학이기도 하고 철학이기도 하고,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천체물리학이기도 하고 모두가 과학적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으면 반드시 거죽으로 나와서 움죽거립니다. 내가 애를 데리고 저기 가겠다 했으면 바로 그 자리에 가 섰습니다. 이것이, 생활이 과학 아닌가요? 그런데 과학도 물질이라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심성이 들어가지 않고는 한계가 있죠.

근데 그 심성이 무엇인가. 지수화풍이 종합이 돼서 이것이, 즉 말하자면 광력이나 자력 전력 입력이, 통신력이 모두가 종합돼서 자료가 충만히 여러분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학을 배우지 않았어도, 예를 들어서 의사한테 30% 맡긴다면 70%를 여러분의 마음으로써 그것을 보강해야 하듯이 '채워야 한다' 이런 문제도 있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난 오늘 여러분이 안 오시면 안 오시는 대로 오시면 오시는 대로 그저 그렇습니다. 여러분한테 이익을 보자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이익을 보자고 여기를 왔다면 내 양심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 법계에서 다 알고 있는 것이요, 법계에서 알기 이전에 내가 내 양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배 속의 중생들이 다 알고 있겠죠. '요놈, 나쁜 놈!' 그러고 우글우글우글해서 귀찮겠죠.

우리 저 법사님들도, 즉 말하자면 경, 학이나 선을 겸해서 여러분 앞에는 충분히 이익이, 공덕이 될 것이며 생활도 모두가 편안하시리라고 자부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실험으로 배웠으니까.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는 말도 있죠. 그렇듯이 이익을 바라면 얼마나 바라며 또 이익을 바라서 그것을 충당해 가지고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그걸 모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리를 잡기 전에 객지에 나가서 그렇게 돌아다닐 때에, 먹을 거나 입을 거나 그런 것도 생각지 못하면서 그 추운 데, 부산에서는 재첩국이라고 합니다만 돌로다가 그 조개를 깨뜨려서 빨아먹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도 돈 가져오신 분들은 고생을 안 했겠지만 처음에 돈 안 가지고 여기 객지에 나오신 분들은 얼마만큼 고생을 해서 지금 밥이라도 자시고 계신지 그것 참, 그건 아마 본인들이나 아시지 누구도 모르실 테죠. 근데 전 그게 이해가 갑니다. 그것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뛰면서 여여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생활하면서 이 생활을 그냥 참선으로 돌리는 공부입니다. 자기 빼놓고는 없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화두를 임의적으로 받아서 내가 '이 뭣고?' 한다든가 시심마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백지장 하나 사이입니다, 생각 차이가. 그건 좀 진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얘들아, 오늘 달 스님이 오시니까 인사를 해도 아니 되고 인사를 아니 해도 아니 되느니라." 하는 것은 화두를 주기 이전입니다. 화두를 줘서 의정을 내는 게 아닙니다. 이건 튕겨 주는 일이죠. 어떻게 대치를 해야 될까요? 또 백장 선사는 삽하고 괭이하고 가지고 밭을 파러 나갔는데 "야, 이놈들아! 밭을 파도 아니 되고 아니 파도 아니 되느니라." 이랬거든. 어떻게 대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좋은 보배의 그 맛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난 것이 그대로 태초요, 여러분

☞ A18면으로 계속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바다의 미네랄과 폴리페놀 덩어리. 지구상 최고의 항산화 식품

맛이 샘나 효모 밥죽 순

국내기술로 만든 콩단백 조직 콩고기

몸속의 오염된 지방을 분해 배출시키는 탁월한 항산화 식품!

전립선 및 다이어트, 성인병 예방에 최고!

❶ 스님들의 단백질 영양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고단백 식물성 콩고기 식품
❷ 효모와 항산화(폴리페놀)가 함유된 건강 단백질 콩고기
❸ 하루 섭취량 40g(가격 하루 1,000원대)로 충분한 단백질 영양 섭취
❹ 가격은 1kg 25,000원 (25인 분량)
〈사찰에서 다량 구매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영양성분표 : 수분 10%이하, 탄수화물 28%내외 단백질 60%이상 지방 3% 이하, 총열량 360Kcal 이하
특 수 성 분 : 폴리페놀 2,793mg/kg, 사포닌 1,807 mg/kg, 베타글루칸 1,233 mg/kg



효모 밥죽 순 차(茶)용

• 500g 茶용 (6개월분) 12만원
• 깨끗한 물에 씻어 2L기준 20g 정도 넣어 30 ~ 40분 끓인 후 복용하시면 됩니다. 재탕으로 1회 더 복용 가능합니다.

(주)샘나 대표전화 1661-4288 / 010-4746-0335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37번길 30 인천산업유통센타 37동 201호 ㈜샘나
농협 301-0222-8806-71 / 기업은행 418-038069-04017 [예금주 : ㈜샘나]

힐링 에너지가 아주 좋은 명당터 인도합니다

산 수 배산임수(背山臨水), 전저후고(前低後高) 장풍득수(藏風得水), 남 동 향(南 東 向)

입 지 양지 바르고 아늑하며 앞이 탁 터져 있고 일조량이 적당하며 통풍이 잘 되고 주위 사방에 호위하는 산들로 싸여 있으며 산맥이 평지 쪽으로 유유히 뻗어 내려 있다. 500여평씩 4~5m의 단차를 두고 둘로 나뉘어 있으며 심한 가문에도 마르지 않는 지하수가 항상 나옴

접근성 서울 요금소에서 1시간 20분 (평일 기준) : 고속도로 104km, 자동차전용도로 7.5km, 마을길 2.5km로 최고의 접근성. 휴일에도 보통 1시간반 ~ 2시간 소요

용 도 힐링센터, 기도도량, 기도원, 암자, 요양원 등으로 최상의 요지

양도조건 980여평, 1필지, 관리지역, 건물 없음. 4억원

연락처 010-2723-3278

터 중심에서 아주 강한 치유에너지가 나옵니다!

이 코드를 스캔하면 현장 사진과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풍수지리 아는 분만 연락하세요.

나 하나 버리고 산다면, 모두 버린다면 신경 쓸 것이 없어

☞ A17면에서 계속

이 이 세상에 났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화두요, 그대로 생활이요, 그대로 생활 자체가 참선이며 바로 선행이며 그렇죠, 뭐.

제 말이 틀리다면 여러분이 질문해도 좋습니다. 여자고 남자고 노인이고 또 누구를 막론해 놓고 질문하시고 서로 토론하고 이렇게 하신다면 아마 더 좋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마음속에 지금 태산같이 '저 우주도, 저 어떤 혹성도, 저 월세계도 바로 네가 될 수 있고 네가 월세계가 될 수 있다.' 이래도 듣지 않을 겁니다. 그 마음이 모두가 합일점으로 인해서, 복사체질로 인해서 모두가 분산되고 모아지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마음이고 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한 찰나에 그게 내가 될 수 있고 내가 그가 될 수 있고 이러니 얼마나 부처님 가르쳐 주신 그 뜻과 진리가 광대무변하고 묘하고 좋으냐 이겁니다.

또 어떤 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진실하게 자기 주인공을 믿고 진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리 얘기를 들어서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도 이익이 없습니다. 그건 왜냐? 내 마음과 그 마음과 모든 일체 마음이 합일해서 돌아가질 않기 때문입니다, 인소야하고 야비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선 그걸 용납 안 하죠. 못났든지 잘났든지 진실하게 서로 한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폭넓은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위로는 지혜를 얻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해서 천백억화신으로서 진화를 시키는 그런 작업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시대가 변해서 지금 물질세계로서는 얼마나 부딪쳐 돌아가고, 인구도 점점 증가되고 또는 물질도 또 부족 되는 수가 있죠. 뭐, 얘기할 건 없지만 앞으로 젊은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도리를 잘 안다면 조절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유인이 되겠죠. 어떠한 물질이든지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러나 똑같은 물건을 여러분이 사다 놓고 쓴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10년을 썼는데 단 2년을 못 쓰고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욕먹을까 봐, 저건 저 구름 잡는 소리 한다고 또 그럴까 봐요, 허허. 아니, 그런 생각들을 하실는지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더 지독한 소리가 있는데도 못하죠. 여러분이 아주 저 미쳤다고 할 정도로 이 세상의 모든 우주 천지가 우리의 마음에 달렸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만 말하지 않으렵니다. 미친 사람이 될 테니까요. 그게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옛날에 네 마음부터 찾으라고, 마음부터 찾아야 한다고 하니까 "저놈 죽여라." 그래서 죽였죠. 땅 위로 배가 다닌다니까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저놈 저, 구름 잡는 소리라고, 미친놈이라고 그랬죠. 또 지구가 돈다고 하니까 그 미친놈이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공중으로 배가 다니고 있고 지구는 물론이거니와 (탁자를 두드리시며) 이런 거 하나도 그냥 있질 않으니까 어떡하죠?

하여튼 불교가 목탁이나 치고 밥이나 내려먹고 또 죄나 씌워 주고 죄나 씌워 받고 이러는 게 불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선 그것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세대가 앞으로 2세대, 3세대 영원히 나가도록 여러분은 바로 지혜로운 진리를 탐구해서 일체 만법의 모든 것을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만법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과학이 발달이 됐다 하더라도 빛으로 다가 할 수 없는 일을 부처님께서는 한생각에 빛보다 더 빨리 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처님이 아니어서 못한단 말은 하지 마세요. 인간이기 때문에 95%가 갖춰져 있습니다. 즉 5%만 뛰어넘으세요. 육체는 한계가 있지만 마음은 뛰어넘어도 뛰어넘은 사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토론을 자꾸 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에게 정말 내가 속에 있는 말을 할 수 있고,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된다면 여러분은 땅을 치고 울어도 시원치 않고 하늘을 보고 껄껄껄껄 미친듯이 웃어도 시원치 않을 겁니다.

도라는 게 무엇인지, 인간이 살아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어디로 걷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디서 왔는지, 지금 내가 뭣 때문에 이럭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젊은 분들은 가을이 돼서 낙엽 진 노인네들의 떨어진 낙엽을 밟고 가십니까? 자기는 그런 낙엽이 안 된다고 그러고 낙엽을 밟고 가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이 뜻만 이루신다면 내 가정의 살림, 내 몸의 살림, 아니 국가적인, 사회적인, 우주적인 모든 살림들을 자기가 조절할 수 있고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아실 겁니다. "그러면 몸이 죽는 것인데…." 이러시지만 영원한 것입니다. 나무의 가랑잎이 떨어진다 해서 나무 죽는 법은 없으니까요. 본래 산다 죽는다 하는 게 없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불을 껐다 켰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꺼졌다 켜졌다 이런 언어가 붙지만 항상 불이 들어와 있는 나라는 무슨 꺼진다 켜진다 이런 말 자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도 두서없이 살게 되더군요. 여러분이 24시간 사시는 것도 두서없이 그저 사시고 계시더군요. 계획도 없더군요. 누구 만난다는 계획도 없이 문간에 나가다가 누구를 만나면 그냥 같이 가데요. 내가 저 문간에 나가다가 누굴 만나면 '내가 어딜 가야겠다', '점심이라도, 술 한잔이라도 먹어야겠다' 하고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는데 문간에 나가다가 턱 만나서는 그냥 가서 술 한잔 먹습디다. 그리고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자식과 아내, 부모 형제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도 계획 없이 그대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바뀌지고 이렇게 사시고들 계시죠. 난 여러분한테 계획을 세워서 말할 줄 모릅니다. 그게 싫다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전 조금도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은 제 아픔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자손들을 위해서, 가정에서 밥을 먹게 돼도 항상 감사하며 먹게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부모가 그렇게 애를 쓰고 피땀을 흘려서 벌어다가 이렇게 밥을 먹게 해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나게 해 주고 (합장을 하시며) 속으로 '아버지 엄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애들, 조그만 애서부터 그런 걸 길러 주십시오. 감사할 줄 모르는 애들은 나가서 일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이 부처님의 진리와 모든 자비, 사랑을 모릅니다. 그러니 항상 이 뜻을 간단하게 "너의 주인공은 너를 끌고 다니고 너를 도와준다. 딴 사람은 너를 도와줄 수 없다. 아무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너를 위하지만 네가 저기 바깥에 나갔을 때는 엄마 아빠가 너를 도와줄 수 없다. 그러니까 너를 돕고 다니는 거는 네 주인공밖에는, 너 자신의 주인공밖에는 네 몸뚱이를 보호해 줄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일러 주세요, 무슨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것이 나무로 친다면 뿌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를 아무리 붙들고, 잎새를 아무리 붙들고 싱싱하게 만든대도 그것은 아니 됩니다. 뿌리를 썩지 않게, 뿌리를 도와서 항상 싱싱하게 해 주면 바로 그 가지나 이파리가 얼마나 싱싱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금조금 실험을 해 보세요. 그러면 벌써 느낍니다. 여기 감응이 오고, '아하!' 그러면서 체험이 됩니다.

여러분한테는 이러지만 스님네들이 공부하는 데는 "항상 책을 봐도 네가 보고, 일을 해도 네가 하고, 소제를 해도 네가 하고 일체 모든 거는 너한테서 들고 나는 거니까 그저 네 탓으로 돌리고 모든 것을 묵언하면서 이해하면서 모든 걸 이렇게 돌려서 살아라." 하고선 이렇게 갑니다. 가다 보면 자기를 발견을 하고 그때서부터 둘이 아니게 이것도 돼 보고, 때로는 짐승도 돼 보고 사람도 돼 보고 애도 돼 보고 그저 말없이 그렇게 돼 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깨쳐 가지고 공부하는 시기입니다, 과정! 그것이 둘이 아닌 공부를 하는 겁니다. 모든 걸 항복받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전체 버렸다가 두 번째, 나를 깨달아 가지고 전체 다시 한번 자기가 돼 보는 겁니다. 자기가 어떠한 것을 조립을 했다면 스위치를 눌러 볼 때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다 겪고 나서 다시 한번 세 번째 죽어야 한다 하는 것은 서로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되는 나툼, 아무거든지 된다 할지라도 물들지 않는 거, 어떠한 거든지 말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것을 다 알았을 때에, 우리가 천문학 박사라도 그것은 심성천문학이 아니라면 참, 반쪽짜리밖엔 안 되지 않느냐. 물질 가지고 물질을 볼 때는 참 어렵죠? 우리가 숫자로 따진다면 헤아릴 수 없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어지럽게 백팔 배를 하고 무슨 염불을 하고 뭐, 그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공부를 시대에 맞춰서 생활 속에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 백팔 배를 하고 정성을 지극하게 들여야만 했던 그 시절에는 아낙네들이 밥해 먹고 애 기르고 그럴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 같이 여자고 남자고 나가서 일을 해야 하고 시간에 쫓기고 이런 때는 그때대로 또 그대로 마음을 가지고서 참선을 행으로 그대로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구루마 끌어서 하루하루 먹는 사람은 부처님의 혜택도 없고 부처님 될 수도 없겠네요. 또 부처님 믿지도 못하겠네요, 여유가 없으니까. 부자들이 부처님 오신 날 이만한 등을 켜 놓고선 얼마를 냈다 하고 꼬리표를 주욱 해서 붙이곤 턱 걸어 놓은 등도 있고, 아주 가난한 어느 한 여인의 불은, 초도 살 돈이 없어서 풀숲에 혼자 기름불을 켜고 앉아 있는데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그 불은 꺼지지 않았어, 다른 건 다 꺼졌어도. 그것이 즉 내 마음의 인등입니다, 인등. 인등은 항상 여러분이 일 초, 아니 그것도 떠나지 않고 이 마음을 내는 것이 바로 인등입니다.

그런데 꼬리표를 해서 붙이고 전기를 달고선 '백 일 동안 기도를 드려 줘야 하니까.' 하고 불을 켠다면 그게 도깨비장난이 아니고 뭡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모두 나를 욕하고 반박하고 그럴 사람들 많지만 욕을 해도 할 수 없는 거지 어떡합니까? 이 세상에 옳은 얘기를 하고 옳은 행을 하고 옳은 길을 인도할 때 아무리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파도 아니 되고 파지 않아도 아니 되느니라." 할 때 어떻게 대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생사를 초월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세상을 다 초월해 가면서도 그래도 역력하게, 여여하게 그대로 목마르면 마실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튕겨 주셨습니다. 그렇게 스스로서 '아하, 파도 아니 되고 파지 않아도 아니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의정을 내야 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가져야 할 의정입니다. 인위적으로 누가 줘서, 부처님 당시에도 화두를 줘서 공부 가르친 예는 없습니다. 난 그 시절에 살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부처님의 그 뜻, 한 걸음, 한 뜻, 한 말, 몸 하나 움죽거리는 거까지도 전 그것이 바로 법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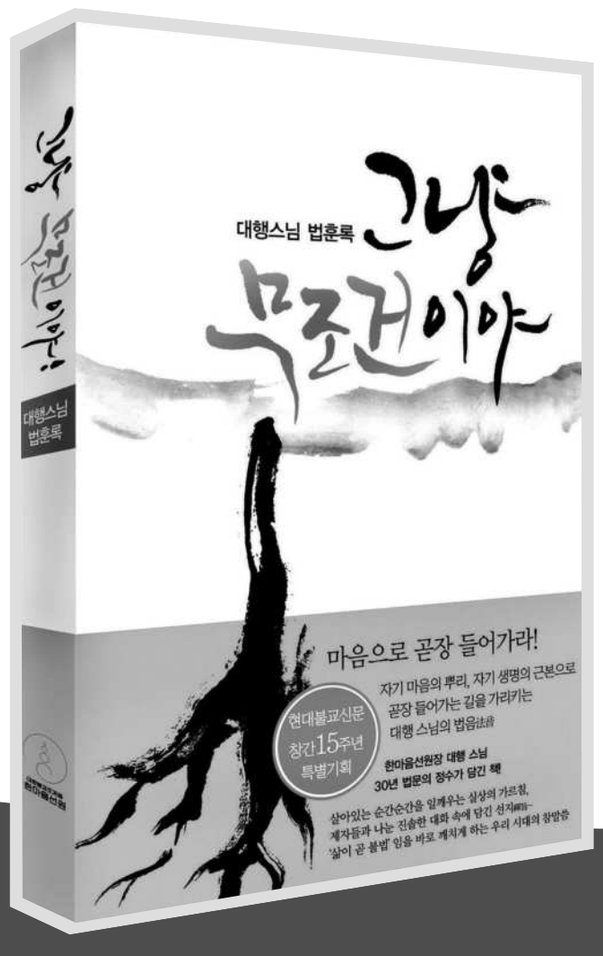
그런데 그 중간에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돌아오면서 비구니는 뭐, 선지식이라는 말도 못하고 큰스님이라는 말을 못한다 이런 거,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얘기도 아니고…, 그러나 그렇다면 그런 대로 따라야죠, 뭐. 그거야 아, 좋은 대로, 편안한 대로 해 주는 건데 뭐, 어떻습니까? 또 더 크면 뭘 하고 작으면 뭘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 하나 버리고 산다면, 모두 버린다면 큰 것도 작은 것도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난 어떤 땐 하루에도 몇 번씩 가슴에서 피가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긍하게, 여러분은 모르면서 '난 이렇게, 이렇게 급박하게 무엇을 잃고 무엇을 잃고 아주 외롭고….' 이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진 몰라도 내 가슴에서는 스스로 느낍니다. 느끼면서도 그것을 담담하게 거죽으로는 안 흘리려고 애를 쓰는데 어떤 때는 할 수 없이 흘리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별호가 뭔 줄 아십니까? 스님들 별호는 뭐, 그렇게는 붙이지 않습니다만, "스님은 항상 눈물을 잘 흘리셔." 이럽니다.

(다음 호에 계속)

내가 그대로 가는 길, 내가 하고 가는 길에 그대로 일체 만법을 자유스럽게, 여여하게 씀씀이를 쓰고 가는 것이 그대로 불교며 바로 여러분의 선행입니다

※위 법문은 1989년 6월 18일 뉴욕 한인회관 초청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 현불 논단 |

6.13 지방선거와 연기의 정치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대중은 평소 침묵의 파리를 틀다가
의사 표시 순간 이를 풀고 폭발한다

6.13 선거서 자한당 등 야당 참패
여러 누수구멍에 침몰한 게 아니라
선거 바다서 '침묵의 파도'로 난파

이데올로기형 '기계형 사유' 정치가고
한국 '정원형 사유' 정치로 전환 중
상호 호혜 '연기의 정치'와도 맞닿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은 한국 정치의 민낯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이와 유사한 모습은 여야를 막론하고 자주 연출되는 익숙한 이벤트이기도 하다. 잘못했다는 현수막까지 내걸었지만 '정말 잘못을 느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 어떻게 보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몰랐다는 생각도 해본다.

자유한국당과 야당의 참패를 두고 여러 가지 분석이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다. 남북 관계의 극적인 변화, 당대표의 언행, 당구조의 비민주성, 보수의 분열과 보수 정권의 부정적 그림자 등 다양한 견해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들은 현상적인 것이지 근원적인 것이 아니라고 본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선거의 바다에서 '삼각파도'를 만나 난파가 된 것이라고 본다. 이러 저러한 누수의 구멍에서 배가 침몰한 것이 아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를 보면서 교수 초년시절에 번역 출판한 〈여론의 정치사회학(The Spiral of Silence)〉이 떠오른다. 이 책의 중요 개념 틀은 '침묵의 확산과 폭발'이다. 대중들은 침묵의 똬리를 틀고 움츠리고 있지만 정작 의사 표시의 순간이 오면 침묵의 똬리를 풀고 폭발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대중의 침묵과 의사 표시의 미묘한 관계를 다양한 사례를 들어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를 당선시킨 지난 미국 대선도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침묵의 삼각파도를 만나 난파한 것이다. 이번 6.13 지방선거를 진보의 승리와 보수의 참패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이 든다. 필자는 기존의 한국 정치의 패러다임에 대한 도전이고 불신이라고 본다.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투표의 경쟁'에서 이겼을 뿐이다. 제대로 된 나침판과 항해 기술이 없으면 언제든지 침묵의 삼각파도에 난파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세계적으로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들어섰으며 새로운 정치 지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주의 정원(The Garden of Democracy)〉으로 새로운 정치비전을 제시한 에리 리우와 닉 하우어는 '기계형 사유'에서 '전원형 사유'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기계형 사유'는 세계와 민주주의를 하나의 기계 장치로 보고 기계를 다루듯 정치를 한다. '전원형 사유'는 이 세계와 민주주의를 얽히고설킨 하나의 생태계로 본다. 20세기까지 '기계형 사유'가 주도하는 정치가 진행되어 왔으나 이제 그 적실성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기계형 사유'가 이끄는 정치의 큰 문제점의 하나로 이데올로기적 정치 게임의 허구성을 파헤치고 있다. '기계형 사유'는 사물을 고정 불변하는 실체로 보면서 관리하고 규제하고 효율과 이익 그리고 승리를 강조한다.

반면 '정원형 사유'는 모든 존재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관계적인 것으로 보면서, 상호의존적이며, 호혜적이고, 자율과 자치, 승패의 이분법 극복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아름다운 정원은 우리가 함께 가꾸는 것이다. 정원은 결코 기계 다루듯 관리해서는 안 된다. 정원의 모든 존재들과 상호호혜하고 서로 즐겁게 노닥거리면서 정원을 일구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참패는 '기계형 사유'의 정치 틀에 너무 집착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나는 기꺼이 말하고 싶다. 우리 국민이 이제 '기계형 사유'의 정치 틀을 벗어나서 '정원형 사유'의 정치 틀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그런데 정치인들이 '정원형 사유'의 틀을 가지기는 매우 힘들다. 정치는 권력의 장악에 있기에 그러하다. 권력은 기계를 다루는 기술에서 나오기가 쉽다. 그러나 이번 선거의 경험이 한국 정치문화의 큰 교훈이 되길 기대한다. '정원형 사유'의 정치는 바로 붓다가 제시한 '연기의 정치'다.

SNS 포교, 온-오프 협업 시급



기자칼럼
노덕현 취재부 기자

전법 포교에 SNS를 활용한 바람이 불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은 최근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의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그동안 불교계에서는 생명평화법당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하고, 교계언론이 구독 확장을 위한 플러스친구를, 대불련 등 교계 단체가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를 활용하고 있었지만 종단 차원의 SNS개설은 사실상 최초다.

전문 앱분석 사이트 와이즈앱에 따르면 3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카카오톡의 사용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기에 종단의 소식과 콘텐츠를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개설은 큰 기대를 모은다.

하지만 이런 기대에도 개설 후 상황은 어렵기만 하다. 해당 실무자는 개설 이후 가입이 저조하다고 토로한다. 시범단계라 제공 콘텐츠가 미약한 부분도 있지만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자칫 종단 차원의 첫 SNS개설이 그대로 좌초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런 유사한 사례에서 적극적인 이벤트와 홍보로 효과를 본 곳이 있다. 바로 수원시다. 지난해 수원시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는 우리나라 정부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가입자 수보다 많은 28만명의 가입자가 유치돼 화제가 됐다.

분석기관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꼽은 것은 수원시가 진행한 '카톡친구 통큰 이벤트'였다.

'카톡친구 통큰 이벤트'는 카카오톡에서 수원시와 친구를 맺으면 수원시 주요관광지와 관광체험시설을 무료, 혹은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다. 생활 속에서 쓰는 SNS에서 친구를 맺기만 하면 혜택이 제공되니 파급력은 엄청났다. 이벤트를 시작하고 1년 만에 10만명의 가입자가 늘어난 것이다.

일견 관광지를 무료나 할인으로 입장시키면 수원시가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을까, 혹은 온라인 홍보를 위해 오프라인에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닐까 생각도 되지만 결과는 오히려 반대였다.

수원화성, 화성행궁, 3개 박물관, 시립미술관 등 카톡친구 통큰 이벤트가 진행된 시설의 입장객이 156만 8379명으로 이벤트 전 연간 입장객 124만 9490명보다 약 26% 증가했다.

이중 66%가 통큰 이벤트 입장객이었다. 할인을 해주더라도 늘어난 입장객에 수원시는 현재 시즌3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카카오톡 플러스친구가 30만명을 돌파해 새 이벤트를 진행했다. 수원 연고 축구구단의 홈경기 입장료 할인을 시작으로 인근 지자체인 광명시와도 제휴를 맺고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다시 불교계로 눈을 돌려보면 조계종 포교원은 2010년 신도멤버쉽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교무금을 내는 신규 등록자가 2만명 수준에서 5만명 수준으로 대폭 늘어나는 효과를 보았지만 이후 감소한 가입자와 멤버쉽 혜택 유지에 대한 부담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SNS포교는 온라인 포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SNS로 관심을 모은 일반인들이 사찰로 향하고, 생활에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조계종 포교원의 카카오톡플러스친구 채널을 단순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신도 멤버쉽과 연계한 신도네트워크, 더 나아가 제휴 사찰의 중요소식을 전하고, 해당 사찰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채널로 육성했으면 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절묘한 만남,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社說

기부문화도 '대기설법' 시대

최근 사회적으로 수혜자 중심의 풀뿌리 기부문화가 조성되는 가운데 불교계에도 이 같은 바람이 불고 있다.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을 시작으로 조계종 중앙신도회, 불교여성개발원, 사회적 협동조합 연꽃향기까지 불교계 신행과 복지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앞장서 그 의미가 크다.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니즈(needs)'는 더 이상 영리행위를 추구하는 기업들만의 용어가 아니다. 한동안은 고객들이 원하는 욕구에 맞춰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해 이윤을 추구하는 데 주로 사용됐으나 이제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는 하나의 기술로 통용된다.

현재 우리나라 기부문화는 과거에 비하면 그 열기가 많이 식었다. 모금단체의 공금횡령이나 유용 파문 등의 문제가 언론보도를 통해 대중에게 전해지면서 모금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모금 수혜자들의 "~은 그만 받고 싶다"는 말이 '갑질 논란'으로 회자되면서 기부문화에 한층 더 찬바람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 달리하면 "내가 주니 너는 군말 없이 받아야 한다"는 기부자의 견해 또한 갑질이 된다. A가 필요한 이에게 가장 의미 있는 물건이 A라는 것은 상식을 갖춘 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부처님이 중생 개개인의 근기에 맞춰 대기설법을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무리 수승하고 절대적인 진리라고 해도 받아들이는 이가 이해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이제는 불교계서 활동하는 복지단체들이 대기설법의 가치를 되새겨 수혜자 중심의 기부문화 조성에 앞장설 때다.

미륵사지 석탑 수리 완료에 부쳐

익산 미륵사지 석탑(국보 제11호)은 우리 문화재 수난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문화재 중 하나이다. 본래 크기가 25m로 웅장한 모습을 자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1910년 일제에 의해 조사 당시 미륵사지 동탑은 이미 소실됐고, 서탑은 남측이 완전 파손돼 있었다. 당시 조사를 담당한 세키노 다다시(關野貞) 도쿄대 공과대학 교수는 조선총독부에 긴급보수를 요구했다. 1915년 조선총독부는 미륵사지 석탑 남측면을 콘크리트로 발랐다. 당시에는 신공법이었겠지만, 콘크리트는 화강암 소재 문화재의 백화현상과 풍화를 촉진시킨다. 최악의 보수가 된 것이다.

미륵사지 석탑의 해체 보수는 1998년에 들어서야 결정됐고, 20년에 걸쳐 해체와 보수, 조립들이 이뤄졌다. 단일 문화재로서는 최장 기록이다. 수리가 완료된 석탑에는 흉물스럽게 발라진 콘크리트가 전부 사라졌고, 현존하는 기록에 근거해 온건한 모습을 되찾게 됐다.

이와 함께 20년간 석탑을 보수·수리하면서 한국의 문화재 보수 기술은 확실히 성장했다. 관련 기술 특허만 5건을 냈고, 전문가들도 많이 배출됐다.

무엇보다 국제 기준에 맞는 문화재 수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은 의미가 크다. 추정을 통한 원형 복원을 지양한 점도 눈여겨 봐야 한다. 1992년 맞은편에 원형 복원된 미륵사지 동탑은 문화재 졸속 복원의 대표 사례였다. 관련 부재를 5%밖에 사용하지 않았고, 복원 2년 만에 이미 하부에 균열이 발견됐다. 그만큼 문화재 수리·복원은 오랜 시간을 연구·개발해 이뤄져야 한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 수리 사례가 향후 문화재 수리·보수·복원에 모범이 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부산지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악령, 귀신 잡는 스님이 있어 화제

憑依(빙의)와 귀신병(鬼神病)

은 자신의 생각 의지 마음과 상관없이 악귀에 조종당하여 자신과 가정은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끔직한 사건으로 비화되거나 또는 집안이 망신과 수치로 황폐화되고 사회적으로는 각종 사건사고에 연관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있으면 빙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청정 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가정에 사랑과 건강함과 평화가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빙의와 귀신병의 주요 증상

* 혼자 중얼거리고 방에서 누구하고 대화 하듯이 씨부렁거린다. * 환청이 들리고 신경이 예민하여 고함을 지르고 발작을 일으킨다. * 공황장애와 과대망상 우울증으로 자살 하고픈 마음이 자주 생긴다. *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깨가 한 짐이 되어 무겁고 양쪽 팔과 다리와 허리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 *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하는데 항상 머리가 무겁고 아픈 두통이 계속 되고 몸 전체가 몸살 난 것처럼 고통스럽다. * 평상시는 순하고 순한데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바뀐다. * 무엇에 홀린 듯이 술을 연속하여 밤새도록 마시거나 또는 줄 담배를 피운다. * 몸속에 귀신이 드나드는 느낌이 들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잘 나가든 집안이 갑자기 몰락한다. * 술은 마시면 말과 방언이 튀어 나오고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평상시와 다른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 어느 날 갑자기 과도한 비만이 되어 이상한 몸으로 변했다. * 돌발적인 행동과 발작을 일으키고 자꾸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거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경우. *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도리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다. * 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신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원상복귀를 원하고 있는 사람. * 돌아가신 조상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꿈속에 자주 나타난다. * 계속하여 악몽을 꾸거나 헛것이 보이고 귀신이 보인다. * 귀신하고 사랑을 한다. * 입산수도 하다 오히려 잡귀에 씌어 고통당하고 있다. * 신병과 귀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 집안에 연속하여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가족 구성원이 아무 이유 없이 줄초상을 당한다. * 종교계통의 일을 하는데 빙의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부처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 결혼 적령기가 훨씬 지났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다. *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간 것처럼 행동한다. * 가족 중에 정상적이지 못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한다. * 불교 기독교 등 종교와 상관없으며 귀신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결되며 국내와 해외에 거주하여도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 와도 무방합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청정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잡귀 마장 사탄 중엄신 조상신등 악마 잡귀의 무거운 짐을 벗어 가정의 건강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어떠한 악령 귀신도 단번에 제도하여
고통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며
심신의 안녕과 평화를 찾게 합니다.

다른데서 몇 번이나 했는데
안 되더라 하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심대한 부처님의 가피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귄 대한불교 자비사 상담전화 010-8600-7409 (서울 강남구 대치동 2호선 선릉역 지하철 1번 출구)

황금룡을 집안으로

황룡나한과 복호나한

황룡나한은 용위에 큰복을 실어다 줄 것이며
복호나한은 악귀를 물러치고 삼재를 소멸하여 들어온 복을 지켜 줄 것입니다.

나한은 6가지 신통력과 8가지 해탈법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열반에 들지않고 영생을 누리며 번뇌를 아주 떠난 부처에 버금가는 성자 이시다.

황룡나한은 미륵불의 화신이라고 하며, 황금룡을 타고 다니며 중생들에게 복을 전해 주신다고 하며 복호나한은 맹수를 다스리고 악귀를 물리치며 삼재을 소멸하여 중생들의 수호신이 되어 준다고 한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전 18명의 나한들에게 부탁 하시기를 미륵불께서 세상에 나오실때까지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의 복전이 되어줄것을 당부 하였으니 16명의 나한들은 그들의 권속들과 함께 세상의 여러곳에 거처하며 불법을 설파하고 황룡나한과 복호나한은 거처를 정하지 않고 세상을 두루 돌며 중생들에게 복을 전하고 악을 몰아내며 중생들의 수호신이 되고 있다.





- 족자 크기 : 세로 120cm × 가로 54 cm
  족자 1개 금액 : 10만원
  족자 2벌 구입시 19만원에 드립니다.
- 그림 크기 : 세로 67cm × 가로 44 cm
  금액 : 그림당 7만원
- 구 입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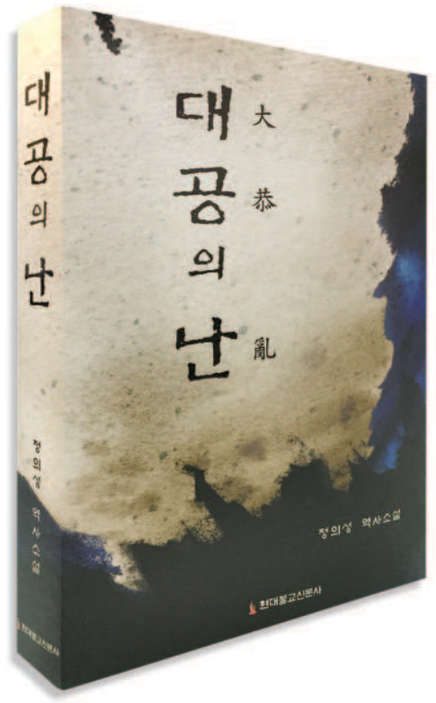
구입하시는 모든 분께 18나한 설명서 를 보내드립니다.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 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 大恭의 난 亂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

반평생 신행의 키워드… '三寶守護'

〈삼보수호〉



2002년부터 삼보회를 이끌고 있는 정분남 회장은 올해 1월,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단장으로 선출 됐다.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은 700여 명의 회원이 전문 포교 활동을 펼치는 모범 포교사단 중 하나이다. 이곳 700여 명의 포교사들이 정 회장을 믿고 전법 원력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

사진=하성미 기자

그대는 자비보살 정분남 부산불교 삼보회 회장(61)

기복으로 시작한 불연

결혼 직후 남편 병 얻어
병명 모른 채 투병생활
천도재 지내고 남편 쾌차
부처님 가피 알고 불교귀의
"기복으로 불교 귀의했지만
불법의 위대함 알게 됐죠"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불제자 대중에게는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고,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 세 가지 있다. 불(佛) · 법(法) · 승(僧), 삼보(三寶)이다. 각자(覺者)가 되신 부처님과 부처님이 펼치신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들고 중생 제도의 불사를 이어가는 출가자를 우리는 '삼보'라 부른다. 불법(佛法)에 귀의한 대중의 본분은 삼보를 수호하고 따르는 일일 것이다. 삼보 수호의 본분을 일대사로 여기고 여법하게 불제자의 길을 걷는 이가 있다. 전국의 도량을 돌며 불사마다 손을 보태고 대중공양과 성불의 기도를 놓지 않는 정분남(61 · 자재천) 부산불교삼보회 회장이다.

버스가 곧 도량, '삼보회' 태동

매년 해가 바뀌고, 음력 1월 6일 이른 새벽에 관광버스가 줄을 서서 사람들을 기다린다. 관광지로 여행을 가는 화려한 옷차림도 없고 나들이로 들뜬 마음을 쏟아내는 수다스러움도 없다. 단정하게 법복을 입고 손에는 〈성지순례기도문〉을 들고 있는 불자들이 보일 뿐이다. 버스 한 대당 45명, 총 18대의 버스에는 불자들로 가득 찼다. 어림잡아 800여 명이 함께 불보종찰 통도사, 법보종찰 해인사 그리고 승보종찰 송광사로 향하는 관광버스에 올라탔다. 버스에 올라타자 사람들은 일제히 〈성지순례기도문〉을 펼쳐 '예불문'을 읽는다.

"지심귀명례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불자들의 그윽하고 낮은 음성이 버스 안을 가득 채우고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는 불자들의 신심이 관광버스를 법당으로 바꾸었다.

새해가 되면 불 · 법 · 승 삼보종찰을 어김없이 방문해 삼보수호의 본분을 다하는 부산불교삼보회의 불자들이 그 주인공이다. 새해 뿐 아니라 매달 음력 8일 그리고 음력 26일이면 관광버스에 오르는 불자들을 볼 수 있다. 음력 8일에는 정기적으로 대구 팔공산을 올라 기도를 하고 음력 26일에는 전국에 있는 사찰을 찾아 순례한다. 정분남 회장이 팔공산 기도처를 개인적으로 찾은 건 1984년 부터였고, 본격적으로 불자들을 모아 성지순례를 시작한 건 2002년부터다. 1984년부터 치면 34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삼보회'란 이름을 정식으로 만들어 활동한 것은 2003년, 정 회장은 단체 이름을 지을 때 "단순하게 떠오르는 대로 적었다"고 무심히 답했다.

"처음에 버스 한 대만 갔을 땐 이름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버스가 3대로 늘어나고 보니 협조 공문을 보내야 했어요. 그 순간 떠오른 이름이 '삼보'였습니다."

부처님법을 만나 행복에 기뻐 불 · 법 · 승에 귀의하고 전법의 원을 세운 후 한 시도 놓지 않은 이름이었을 것이다. 삼보는 정 회장에겐 목숨과도 같은 것이다. 매번 예불 때마다 외우는 지심귀명례(至心歸命禮)의 뜻처럼, 생명까지 바치는 지극한 마음으로 불 · 법 · 승에 귀의하고 정성을 다해 공양을 올리는 삶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정 회장은 "부처님의 가피를 알고 그 가르침을 배워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다"고 했다.

"부처님은 어리석은 저를 사성제와 팔정도를 알게 해 부처님의 법으로 이끄셨고 참된 행복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뿐 만이 아닙니다. 돌이켜 보면 부처님의 가피로 가난에도 벗어나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주신 행복을 여러 불자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남편 위한 천도재로 불연 시작

정 회장은 1958년 경북 문경에서 태어났다. 어머니의 얼굴과 따뜻한 온기는 기억에 없었다. 정 회장이 5살 때 죽음이란 것도 알지 못한 나이에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정 회장의 어머니는 결혼 후 1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 정성으로 불공을 올렸다. 어머니는 꿈에서 "아이가 없을 사주이지만 아이를 원하니 주겠지만 그 대신 너의 명은 짧을 것이다"라는 말이 들려왔다고 한다. 그 후 정 회장의 어머니는 3남 3녀를 낳고 정 회장이 5살 그리고 정 회장의 동생이 백일 쯤 되었을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정 회장은 어머니의 빈자리를 느끼기도 어려웠을 나이에 상실의 아픔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옛날을 담담하게 설명했다.

정 회장은 26살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그러나 신혼여행을 다녀온 첫 날부터 남편은 아프기 시작했다. 고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 회장은 갑작스런 남편의 병이 자기의 잘못처럼 느껴졌다. 그때부터 정 회장은 남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녀야 했다.

"남편이 결혼을 하자마자 아프니 모든 게 제 잘못인가 싶어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전국의 유명한 병원을 찾아 다녔지만 병명을 알 수가 없었고 단순히 위염 아니면 십이지장궤양이라고만 했죠. 새벽마다 남편은 일어나 밤이 새도록 온 방을 뒹굴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정 회장은 '죽음'이 떠올랐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무의식 가운데 몰려와 어떻게 해서든 낫게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찼다. 남편과 함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답답해하던 중에 셋방집 주인 할머니가 정 회장을 불렀다. 주인 할머니의 "절에 함께 가 물어보자"는 말에 정 회장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절을 찾았다. 부산 초읍에 있는 한 사찰에서 만난 스님은 정 회장에게 조상 천도재를 권했다. 당시 천도재가 무엇인지도 몰랐다는 정 회장은 필사적으로 부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현견 스님의 중국 선문화 기행
동산법문

B5
문화
만해 스님 추모 뮤지컬 '심우'

B6
학술 · 문화재
지광국사탑 학술심포지엄

“포교는 수행이자 보살행”



정 회장(우측 세번째)은 올해 1월,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단장으로 선출 됐다. 사진은 부산지역단 연수 활동 모습.



108사찰순례 참가 도장을 들어보이는 정 회장.

정분남 회장은?

1958년 경북 문경에서 태어났다. 2002년 삼보종찰 순례를 시작으로 2003년 삼보회를 설립했다. 2012년 동국대 불교학과 입학, 2016년 동국대 대학원 불교심리상담학을 전공했다. 〈불교성지순례의 치유효과〉를 주제로 논문을 집필했으며 2018년 8월 석사 수료 예정이다. 통도사 가사불사, 통도사 자비원 어르신 목욕봉사 등 봉사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현재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단장을 맡고 있다. 2008년과 2016년 포교원장상을 두 차례 수상했다.



‘정분남 회장’ B1면에서 계속

삼보수호, 포교 원력 신행

佛法 만난 후 삼보 가치 알아
삼보회 창립, 도량순례 34년
매월 팔공산·108사찰순례도
〈성지순례기도문〉 매년 배포
동대 불교심리상담학 석사 예정
포교사단 부산 단장으로 선출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의 병이 기적처럼 나았다. 정 회장은 너무나 기뻤다. 그리고 정 회장은 그것이 부처님의 가피라고 생각했다. 그 때부터였다. 정 회장은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싶어졌다.

“불교에 대해 알고 싶었습니다. 처음엔 병을 낫게 해주셨다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만이 가득했는데, 부처님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불법(佛法)이 왜 진리인지 뼈저리게 알게 되었지요. 부처님의 진리인 ‘사성제’와 ‘팔정도’는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당시 대구 만불회 회주였던 학인 스님이 부산 동부터미널에서 만불불사 법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정 회장은 어린 아이를 등에 업고 빠짐없이 법회에 참석했다. 아기를 들쳐 업고 법회에 참석하는 정 회장의 열정에 한 할머니는 성철 스님을 소개했다. 정 회장은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백련암에 전화를 했다. 그리고 성철 스님의 법문집을 받아보게 되었다. 정 회장은 뛸 듯이 기뻤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정 회장은 성철 스님의 법문이 너무 어렵게 느껴졌다. 정 회장은 고민 끝에 백련암에 전화를 걸어 법문집 받아보는 것을 중단했다. 그리고 정 회장은 바로 기초 교리부터 차분히 배울 수 있는 곳을 알아봤다. 성철 스님의 법문을 어려움 없이 듣고 싶었다. 금강 같은 법을 눈앞에 두고도 알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이다. 정 회장은 부산 남천동에 위치한 해인정사를 찾아 기초 교리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 ‘108참회문’을 처음 접하던 날 정 회장은 절을 하면서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 할 수가 없었다.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참회의 기도를 올렸어요. 불법에 대한 기쁨으로 불교대학을 가게 된 계기도 됐죠.”

정 회장은 당시 통도사 부산 포교당을 방문해 불교대학에 입학했고, 전법에 대한 원력을 세우며 포교사에 도전해 합격했다. 이후 정 회장의 불법(佛法)에 대한 목마름은 동국대 불교학과에 입학하는 동력이 됐고, 정 회장은 대학원에서 불교심리상담학을 전공해 오는 8월 수료할 예정이다.

“처음에는 기복으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불법을 만나 팔정도의 진리를 알았습니다. 팔정도를 믿고 실천하면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가정도 안정되고 남편도 건강하게 되니 이 좋은 부처님 말씀을 전하면서 살겠다는 원을 세우게 됐죠.”

정 회장은 포교 방법에 대해 먼저 고민했다. 불교는 불 · 법 · 승 삼보가 없으면 맥을 이어 갈 수 없고 가장 소중하게 지켜나가야 할 보물임을 다시 떠올렸다. 정 회장은 불 · 법 · 승 삼보에 먼저 공양 올릴 것을 다짐했다.

‘삼보회’라는 이름이 아직 없었던 2002년, 장회장과 회원들은 처음으로 통도사와 해인사, 송광사를 방문했다. 회비를 모아 각 사찰에 쌀 한 가마니와 소금 한 가마니를 올릴 수 있었다. 한 가마니씩 대중공양을 올리며 정 회장은 좀 더 많은 양을 올릴 수 있기를 기원했다. 정 회장은 당시 셋방에 살고 있었고, 남편 사업이 어려워 넉넉한 살림이 아니었다. 하지만 불자를 이끌어 십시일반 함께 하면 어려울 것도 없어 보였다. 2002년, 한 대의 버스로 충분했던 삼보회는 2003년에 버스가 두 대로 늘어날 만큼 회원이 늘었고, 이후 매년 참여 인원이 늘었다.

올해 2018년 정초에는 총 18대의 버스가 움직였다. 삼보회 회원들은 삼보사찰을 방문해 대중공양을 올렸다. 정초 성지 순례를 계기로 정 회장은 전국 25교구본사로 시작해 108 사찰순례를 진행했다. 매달 처음 오는 회원이 급격히 늘어났고 해마다 1천 권씩 제작하는 〈성지순례기도문〉이 부족할 정도였다.

삼보회는 회비를 모아 투명하게 운영하고 가장 필요한 곳을 수소문 해 도움의 손길을 펼쳤다. 그리고 그것이 입소문을 탔다. 불우이웃돕기뿐 아니라 어려운 사찰을 찾아 낸 후 다음 순례지로 선정했다. 시골에 전기와 수도가 안 들어오는 사찰을 방문해 불사 지원금을 후원했다. 군법당 포교 지원비는 물론이고 국가 재난으로 힘든 곳은 반드시 방문했다. 지난 포항의 지진 당시에는 경북 포항 보경사를 찾아 지진피해 복구를 기원하며 기금을 전달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에는 삼보회 이름의 장학 재단이 있다. 16년 동안 대중공양 올리며 도움을 준 기금이 총 3억에 이른다.

성지 순례로 이어가는 전법

삼보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로 성지순례와 대중공양에 참여해 보시바라밀 공덕을 회향하는 원력은 큰 원력이다. 하지만 정 회장은 “성지 순례로 얻는 포교 효과는 그 무엇보다 크다”고 강조했다. 올해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불교심리상담학과를 수료하면서 정 회장은 불교 성지 순례로 얻는 치유 효과를 연구했다. 연구하는 과정에서 정 회장은 “108성지순례는 ‘보살운동’이며 ‘상구보리하화중생’의 길이다. 구법여행이며 일상에서 벗어나 ‘참 나’를 찾는 신행 여행임을 확신했다”고 강조했다.

“산사는 부처님의 청정법신이 머무는 곳으로 자신이 지은 업과 죄, 그리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며 가장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곳입니다. 성지순례 가운데 위암 3기였던 한 보살님은 순례 기도로 병이 깨끗하게 나은 사례도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어 자살을 생각하던 사람이 회복하는 사례는 더 많았고요. 타종교에서 개종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매월 진행하는 순례길에는 초심자가 대거 방문한다. 여행길처럼 여기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찾아왔다가 불교에 귀의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정 회장은 올해 1월,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단장으로 선출 됐다.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은 700여 명의 회원이 전문 포교 활동을 펼치는 모범 포교사단 중 하나이다. 이곳 700여 명의 포교사들이 정 회장을 믿고 전법 원력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

정 회장은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의 미래를 위해 다시 버스를 이용한 순례를 시작했다. 좀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고 단합과 소통을 위해 더불어 불사금도 모으기 위해 시작한 일이다.

“부산 포교사단이 시작한지 18년이 됐지만 중심처가 될 사무실이 없습니다. 매달 월세 70만원을 내고 있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해 시작했습니다. 부산 포교사단에서 순례를 시작한지 3개월 정도 되었는데 1천200만 원 가량이 모였습니다.”

포교사단의 사무실에 대해 이야기하며 정 회장은 이룰 수 있다는 확신으로 밝게 웃었다. 삼보를 위한 불사, 그 보이지 않는 노력은 바로 보살행이다. 순례는 곧 진리를 찾아 구도한 선재동자의 삶이다. 선재동자는 〈화엄경〉에서 53명의 선지식을 찾아 보살의 삶을 묻는다. 보살도와 보살행이 화두였다. 그 가운데 선재동자는 잊지 않고 일체 중생이 함께 깨닫는 법을 질문한다. 포교는 함께하는 행복의 길, 불법을 알고 믿도록 돕는 것이다. 깨달음을 얻도록 돕는 것이다. 포교사단은 “포교는 곧 수행이다.”고 외친다. 하지만 정 회장은 다시 고쳐 말한다. 포교는 수행이며 아울러 보살행이며 보살의 삶이다. 53선지식을 찾아 나선 선재동자처럼 대중을 모아 사찰을 순례하는 정분남 회장의 삶이 곧 보살의 삶이다.



홍인 시대 중국 선종 획기적 발전 시작



현견 스님의
중국 선문화 기행

⑪ 동산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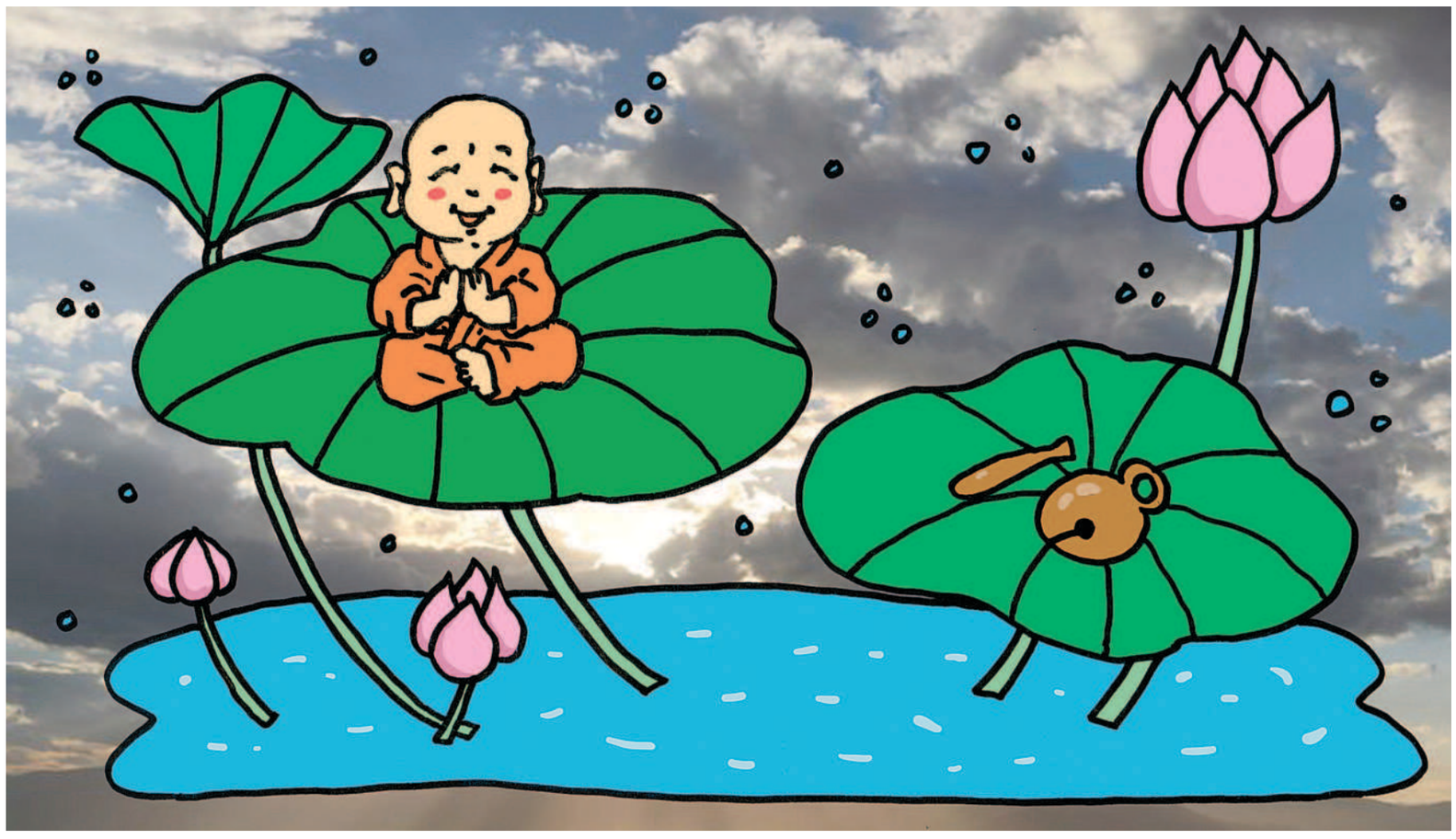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5조홍인(601-675)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동산법문'의 가풍일 것이다. 즉 그는 도신이 건립한 도량을 재정비하는 한편 대중이 모여서 수행하는 풍토를 조성하였다. 홍인은 7세에 출가를 해서 13살에 사미계를 받았고, 도신이 입적하자 바로 법석을 계승하고 도량을 건립 했다. 홍인이 지향한 동산법문은 적교오종(藉敎悟宗)과 교외별전(敎外別傳)등 점수돈오를 겸한 수행형태로 선종의 남돈(南頓), 북점(北漸)을 나눈 분기점의 초석을 다졌으며, 홍인을 통해서 초기선종 구성원 단면을 엿볼 수가 있다.

홍인은 '동산법문'의 개창자로 선종의 5조가 되며 본적은 심양(陽 · 지금의 강서성 구강(九江)이다. 후에 기주(T 州)황매 (현재의 호북성 황매)로 이주했다. 수나라 인수 원년(仁壽元年 · 601)에 태어났으며 속성은 주(周)씨이다. 당나라 고종(674)때 입적했으며 향년 74세였으며, 당 대종은 시호를 대만선사(大滿禪師)라고 했다. 도신 입멸 후에 홍인은 쌍봉산 법석을 계승했으며, 그 후 그를 따라서 참학하는 자가 점점 많아졌고, 쌍봉산 동쪽 풍무산(馮茂山)에 또 다른 도량을 건립해서 동산사라고 불렀으며 후세에 이러한 그의 정황을 통틀어서 '동산법문'이라고 일컫는다.

도신과 홍인 대에 이르러서 중국선종이 정식으로 형성 되었다고 한다. 그들은 달마 이래로 중생의 '심성'에 관한 것을 곧 '불성'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으로 대체를 하였고, 많은 배척과 반대에 부딪치면서도 굳건히 본인들의 신념을 유지시켜서 초기 선종의 승단의 초석을 마련하면서, 비교적 안정된 승단의 단체생활을 보장 받기도 했다. 이후로 이들의 구성원은 오래지 않아서 불교의 내외 및 조야의 상하가 모두 주목을 하는 대상이 되기도 했다. 오래지 않아서 당나라 왕조는 정식으로 선종을 승인하기에 이른다.

홍인은 아마도 지식분자에 속하는 선사가 아니었던 것 같다. 그가 오조가 되고 대중의 영수가 되었던 이것은 아마도 선림의 생활 방면에 출중한 재주가 있었던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홍인과 같은 상황의 조건을 가진 승려들이 적지 않았다. 예를 들면 천태종의 2대 조사인 혜사(惠思)는 곧 '승려를 경영하는 것을 업으로 삼아서, 여름과 겨울에 공양하였다' 고도 전해진다. 즉 사찰경영에 탁월한 재주가 있었던 것 같다.

따라서 홍인시대에 이르러서 중국선종은 획기적 발전 단계에 진입한 시기였다. 선수행자가 점점 늘어났으며 따라서 홍인 문도도 많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법을 전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능가사자기〉와 〈역대법보기〉에는 11명이라고 전하고 〈전등록〉은 13인이라고 하고 종밀의 〈원각경대소초〉에서는 10인이라고 전하고 있다. 각각 다르게 설명 하는데 문도 숫자에 비하면 법을 펼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다. 그중 신수(神秀), 지선(智詵), 유주부(劉主簿), 혜장(惠藏), 현약(玄約), 노안(老安), 법여(法如), 혜능(慧能), 지덕(智德)과 의방(義方)등이 있으며, 특히 신수(능가 · 점수 · 북종)와 혜능(반야 · 돈오 · 남종)이 가장 영향력이 있었다. 여기서 지덕(智德)은 고려의 승려로서 그의 법을 계승했다.

'동산법문'의 중요한 내용은 도신과 홍인의 선법이다. 그리고 '동산법문'의 중요한 내용을 알고자 한다면 〈입도안심요방편문(入道安心要方便門)〉과 〈수심요론(修心要論)〉을 보면 된다. 〈입도안심요방편문〉의 명확한 종지는 즉 '입도안심(入道安心)'으로 여러 가지 방편 법문을 형성했다. 또 '입도안심'은 직접적으로 달마의 뜻을 전승하였다고 한다. 달마의 '입도(入道)'는 이입(理入)과 행입(行入) 및 안심벽관(安心壁觀)이다. 그러나 도신의 〈입도안심요방편문〉의 중요한 사상은 도리어 〈문수사리반야경(文殊師利般若經)〉을 의지해서 건립하였기 때문에 그의 선법은 〈문수사리반야경〉의 일행삼매 가운데에 안심(安心)법이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능가사자기(楞伽師資記)〉에 일찍이 기록이 되어있던 것으로 "나(도신)의 이 법요(法要)는 〈능가경〉의 '모든 불심이 제일이다.(諸佛心第一)'를 의지했으며, 또 〈문수사리반야경〉의 '일행삼매'를 의지했다"고 하고 있다. 일행삼매에서 '일행(一行)'은 '법계일상(法界一相)'을 가리킨다. 도신은 "법계는 '일상(一相)'으로 차별이 없으며, 무차별의 일상법계(一相法界)의 소연(所緣)은 곧 '삼매'를 성취할 수 있다"고 여겼다. 이것은 〈문수사리반야경〉에서 말하는 '법계일상(法界一相)'이며, '여시일행삼매자, 진지항사제불법계무차별상(如是一行三昧者, 盡知恒沙諸佛法界無差別相)'이다.

홍인, 초기 선종 승단 초석 마련
도신과 홍인의 선법 '동산법문'
〈문수사리반야경〉 '일행삼매' 의지
〈능가경〉 오종관심 방편법문 기본

'일행삼매'의 경계에 들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의 방편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염불'과 '안심'을 이용해서 '일행삼매'에 도달하는 것이다. 도신은 '염불즉시염심(念佛卽是念心), '구심즉시구불(求心卽是求佛)'이라고 여겼다. 왜냐하면 '식은 형상이 없고(識無形)', 부처도 형상이 없고(佛無形)', '부처는 모양이 없기(佛無相貌)'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만약에 이와 같은 도리를 안다면 곧 그것은 '안심'이 된다고 여겼다. 그러나 도신이 주장하는 염불안심법문은 정토종에서 주장하는 염불과는 크게 다르다. 비교하자면 정토종에서 주장하는 염불을 통해서 성취하는 '삼매'는 곧 '현전삼매(現前三昧)'를 말하며, 도신이 주장했던 염불은 곧 '부처가 없는 것을 보는 것이며(無佛可見)', '부처가 없는 염불을 하는 것(無佛可念)'이다. 이 점에 대해서 도신은 〈입도안심요방편문〉에서 좀 더 부연 설명하기를 '무소념자, 시명염불(無所念者, 是名念佛)'라고 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도신의 이러한 〈염불안심방편법문〉은 〈능가경〉의 여래장심과 〈반야경〉의 실상염불을 바탕으로 건립된 것이다.

도신은 또 〈능가경〉을 의지해서 오종관심(觀心) 방편법문을 건립하였는데, 이것은 '동산법문'의 기본내용이다. 이 다섯 가지는 모두 심(心)과 관계가 있다. 다섯 가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 번째는 지심체(知心體), 두 번째는 지심용(知心用), 세 번째는 상각불정(常覺不停), 네 번째는 상관신공적(常觀身空寂 · 항상 몸이 공적한 것을 관하는 것), 다섯 번째는 수일불이(守一不移)이다.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일불이(守一不移)'의 수행법이라고 한다. 달마선법과 수일불이(守一不移)의 수행법을 비교해 보면 대체로 닮아 있다고 한다. 달마는 '응주벽관(凝住壁觀), 무자무타(無自無他), 범성등일(凡聖等一), 견주불이(堅住不移)', '무유분별(無有分別), 적연무위(寂然無爲)를 주장했다면, 도신의 수일불이(守一不移)는 곧 '상관자신공정(常觀自身空淨)', '이차공정안(以此空淨眼)', '임의간일물(任意看一物)', '종일간불이(終日看不已)', '민연심자정(泯然心自定)이라고 하였다.

비록 홍인이 도신의 선법을 계승했다고 하지만, 다만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조금은 차이가 있다. 도신은 〈반야경〉의 깊은 영향을 받았다고 전해지며, 전통적으로 〈능가경〉을 의지해서 선법을 건립하는 동시에 〈반야경〉의 '일행삼매'를 융합해서 '염불심시불(念佛心是佛)', '정심시불(淨心是佛)'이라는 자기만의 독특한 선법을 수립했다고 한다. 그러나 홍인은 도신의 〈입도안심요방편문(入道安心要方便門)〉'을 계승할 때 도리어 '수심(守心)'을 중시했다. 이것이 바로 도신이 '수일불이(守一不移)'의 부분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홍인 시대에 이르러서 도리어 전통적인 〈능가경〉을 의지한 '관심(觀心)'의 선법으로 회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관심(觀心)은 곧 수심(守心)의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이다. 홍인은 이외도 '수일(守一)', '수본진심(守本眞心), '수본정심(守本淨心)등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한편 도신이 '수일불이(守一不移)'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언급을 했다면, 홍인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홍인은 '차수심자, 내시열반지근본, 인도지요문, 십이부경종지종, 삼세제불지조(此守心者, 乃是涅槃之根本, 人道之要門,十二部經之宗, 三世諸佛之祖)'라고 하였다. 이것은 홍인의 '심(心)'의 중요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편 그가 말하는 '수심(守心)'을 닦는 것에 대한 선행조건으로 본인 스스로가 본래 청정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한 연후에 비로소 '수본진심(守本眞心), '수본정심(守本淨心)'을 하면 망념이 불생하고, 아소심(我所心)이 멸하며, 자연스럽게 불과 같이 평등해질 것이라고 여겼다. '수심(守心)'을 닦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端坐正身, 令氣息調(다정히 앉아서, 기를 조절하는 것이다)'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같이 '동산법문'은 홍인의 많은 제자들에게 전승되어서 정중종(淨衆宗), 선습종(宣習宗), 노안선문(老安禪門), 법여선문(法如禪門) 등의 종파를 파생시켰으며, 더욱이 혜능과 신수로 대표되는 남돈, 북종이라는 선종의 역사적인 분기점 마련의 초석을 다졌으며, 이러한 홍인의 선법은 중국선종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용해되어서 지금도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동국대 강사〉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조립식 도량장엄등설치

전문인력, 장비없이 조립·해체 가능
다목적 활용으로 경제적
기둥을 최소화하여 공간활용 극대화
도량 면적과 형태에 따른 다양한 연출
법당연등 자동승강장치

법당 고정식 연등설치

천불전

인 등

위 패

공단등

만월등

불기등


사찰 고유의 디자인으로 제작 가능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영원한 자유와 행복의 화두… '마음자리 찾는 길'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무량수전 사자후

근일 스님 지음/뜨란 펴냄/1만 5천원

이 책은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원이자 제 16교구 본사 고운사 조실로 영주 부석사에 주석 중인 근일 스님이 30년간 사부대중에게 설한 수많은 법문 가운데 11편을 골라 엮은 첫 법어집이다. 경봉 · 향곡 · 전강 · 구산 · 성철 스님 등 한국불교의 대표 선지식들에게 직접 참선지도를 받은 근일 스님은 "철저하게 버리고 철저히 수행하라"는 용맹정진의 가르침으로 오랫동안 대중을 이끌어왔다. 무상과 무욕의 길을 몸소 실천해온 스님이 일생의 수행으로 깨친 환한 지혜가 이 법어집에 온전히 담겨 있다.

〈무량수전 사자후〉서 스님은 생사해탈을 위한 마음자리 찾기와 수행의 중요성, 실제적인 참선 방법 등을 쉽고 명쾌하게 설명한다. 이 시대의 조주설(趙州說), 임제할(臨濟喝)로 일컬어지는 근일 스님의 법문을 접하면 왜 참선 수행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칠 수 있다. 그리고 아침저녁 잠깐이라도 바르게 앉아 자신을 고요히 하고 마음의 근본자리를 찾아가는 수행하는 삶을 실천하게 된다.

1980년 경북 의성의 고운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였으나 퇴락하고 낙후된 사찰이었다. 근일 스님은 세수 마흔 살에 본사 주지로 임명받아 난행과 고행을 거듭하며 대작불사를 이루어 고운사를 중창했다. 외면만이 아니라 내면도 놀랄 만한 변화를 이뤄냈다. 스님은 철야 참선법회를 시작해 사부대중의 공부를 철저히 지도했다. 한 달에 한 번 매주 마지막 토요일마다 1박 2일간 사부대중이 더불어 참선하는 수행이었다. 당시 다른 사찰에서는 보기 드문 수행풍토였다. 안거 때도 고운사 스님들은 여느 사찰보다 열흘 먼저 시작해 하루 17~18시간씩 백일 동안 용맹정진 했다. 재가자들도 그렇게 매진하는 출가자들의 모습을 보고 더욱 신심을 내어 정진에 동참했다.

철야 참선법회는 직장인들을 배려해 밤 9시에 시작됐다. 근일 스님이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 정도 법문을 하고 나면 참가자들은 전각으로 흩어져 참선 했다. 수행 도중이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근일 스님을 찾아가 질문하고, 스님은 하나하나 자세히 일러주었다. 새벽 세 시에 도량석과 새벽예불을 한 뒤 아침공양을 하면 공식적인 참선 법회가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다음날까지 남아 개별적으로 기도와 수행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당시 고운사는 개울을 12번 건너야 닿을 수 있을 만큼 환경이 열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선법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났다. 극락전의 해운정사와 혜암 스님의 해인사 원당암 등이 대표적이다.



조계종 원로의원 근일 스님이 참선을 하고 있는 모습.

저자, 아름다운 깨달음 선시 17편

"부처님 중도 진리 그대로 시에 담아"

참선공부에도 목표가 필요하다

근일 스님의 법문은 평범한 촌로부터 명성 높은 지식인까지 모두를 감동시켰다. 나이든 할머니들은 열흘 전에 부석사에 당도해 저마다 기도와 예불을 올리며 법회를 기다렸다. 어쩌다 경내에서 근일 스님을 만나면 서로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고, 종종 소참법문이 열렸다.

전국의 수행단체와 사찰, 공공기관 등에서 초청이 쇄도했다. 스님은 여력과 시간이 허락하는 한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법문을 다녔다.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참선법회였기에 그 사이 스님의 법문을 듣고 싶은 이들을 위해 녹음테이프가 배포되었다. 사람들은 테이프가 늘어날 때까지 반복해서 법문을 들었다. 명창 안숙선 선생도 그중 한 분이었다. 그는 우연히 선물받은 스님의 육성테이프를 열 번이나 듣고, 자비로 100개를 더 만들어 주위에 나눠주었다. 시간이 흘러 테이프는 시디로 바뀌었고, 나아가 음성법문 이외에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접할 수 있는 법문집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빈번하게 들어왔다. 그러나 스님이 허락하지 않아 법문집 출판은 매번 미뤄졌다.

근일 스님은 1980년 처음 철야참선법회를 시작할 때 사부대중에게 30년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 그 기간을 다 채우고 2010년에 스님은 오랜 세월 이어온 참선법회를 마감했다. 그리고 그동안 못다 한 개인의 수행에 더욱 정진하였다. 재가자들은 자발적으로 1박 2일 철야정진을 계속해가면서도 더 이상 법상에 오른 스님을 뵐 수 없게 된 것을 무척 아쉬워했다.

이제 스님은 1년에 단 두 번, 결제와 해제 때만 법상에 오른다. 근일 스님의 명법문을 들을 수 없게 된 출가자와 재가자들은 누군가 녹취를 풀어 인터넷에 게시한 법문을 읽거나 유튜브 등에 공유된 음성법문을 들으며 갈증을 달랬다. 불교TV에 올라온 수많은 법문 가운데 근일 스님의 법문 조회수는 30만 회가 넘는다. 보통 조회 수가 몇 천에서 많으면 몇 만임을 감안하면 스님의 명성이 어느 만큼인지 짐작할 수 있다.

세월이 흘러 근일 스님의 상좌모임인 봉황선회는 은사스님에게 꾸중 들을 각오를 하고 맏상좌 호성 스님(고운사 주지)을 필두로 법문집 출판을 감행했다. 큰스님의 감로법을 듣기 원하는 이들의 바람을 더는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상좌스님들은 그동안 정성스럽게 모아둔 법문 테이프의 녹취를 풀고 정리하여 그중 11편을 우선 간추렸다. 근일 스님의 첫 법어집 〈무량수전 사자후〉는 이렇게 세상에 선보였다.

"佛法은 남녀, 노소, 빈부 등 차별 없는 공평무사한 가르침"



번뇌를 위한 자비는 없다

우 빤디따/케이트 훨러 엮음
윤승서 · 이승숙 번역

전 세계 위빠사나 명상의 위대한 스승

"해탈의 가능성을 품었기에 우리 모두 아름다운 것이다. 그 잠재력을 실현시키는 것이야 말로 사람의 일생에서 지고의 가치를 지닌다"

'위빠사나의 성자' '위대한 성인' '법(Dhamma)의 거인' …. 우 빤디따 스님을 소개할 때 붙는 수식어들이다. 스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데엔 여러 이유가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전해오는 명상 수행법인 위빠사나를 전하며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이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데 열정을 쏟은 이유 때문일 것이다.

20세에 구족계를 받은 스님은 29세 나이로 미얀마불교의 고승(高僧) 마하시 사야도로부터 사띠빠타나 수행에 입문한 상수제자이다. 마하시 사야도의 입적 후 마하시 센터 원장을 역임했고, 이후 빤디따라마 센터를 열어 많은 제자들을 배출했다. 그 대표적 인물로 현대 서양 명상계의 유명 지도자 조셉 골드스타인, 잭 콘필드, 샤론 살즈버그 등을 들 수 있다. 혹자는 말한다. 스님의 등장으로 인해 서양에서의 위빠사나 명상 지도와 수행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말이다. 국내의 경우 이들 서양 명상 지도자들의 위빠사나 수행 지침서나 연구물이 다수 소개된 상황에서 중요한 대목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스님이 처음 서양 땅에 발디딜 당시 세랍 63세. 적지 않은 나이에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가르침을 펴 온 스님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이 시대 최고의 명상 지도자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그런 스님이 2003년 5월, 미국서 진행한 사띠빠타나 위빠사나 법문을 엮었다.

삶은 왜 고통스러운가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무엇인가? 불교에서는 그 원인을 '번뇌(kilesa)'라고 말한다. 이 책을 관통하는 주요 키워드 역시 번뇌이다. 우 빤디따 스님은 수행의 목표가 우리 삶의 고뇌와 고통의 모든 요소들, 즉 번뇌를 끊어 냄으로써 해탈(vimutti)을 이루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우리 내면서 일어나는 온갖 번뇌를 가장 위험한 것으로 규정한다. 욕망, 미움, 어리석음 등의 내적 번뇌는 외적 번뇌의 원인이다. 결국 내적 번뇌로부터의 해방은 모든 번뇌의 원인을 제거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번뇌는 모든 고통의 시작이다

'잔인하고 사악한 지배자'인 번뇌는 결과적으로 삶의 모든 찰나서 일어나는 윤회의 순환을 만들고, 고통스런 삶을 반복적으로 일으킨다. 윤회(輪廻)는 태어나고, 죽고, 존재하는 순환을 말한다. 윤회를 못 벗어나는 것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피할 수 없음을 뜻한다. 노화, 부패, 사망은 단지 삶이 끝났을 때만 겪는 것이 아니라 매 찰나마다 일어난다. 삶 자체가 고통이다. 스님은 어린 나무의 비유를 통해 이 과정을 설명한다.

어린 나무는 몸 안서 일어나는 수액의 흐름에 의해 성장하고, 어느새 열매를 맺는다. 다 여문 열매는 땅에 떨어져 또 다른 싹을 틔운다. 여기서 나무 안 수액의 흐름은 곧 번뇌의 순환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맺는 열매는 행위의 순환, 그리고 그 열매가 떨어져 새로운 생이 시작되는 것은 결과의 순환을 나타낸다. 이 비유서도 알 수 있듯이 윤회의 순환 과정 모두는 결국 번뇌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그 근본 원인인 번뇌를 제거해야 한다. 중생의 번뇌 끊기에 대한 간절함은 스님의 신조서도 드러난다. "번뇌에게 베풀어 줄 자비는 없다" 이 책 제목인 이 명제를 통해 우리가 숨쉬는 이 순간, 모든 찰나에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

해탈은 특정 인물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해탈'을 특정 인물이나 이룰 수 있는 특수한 수준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스님은 이 책 서두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해탈의 가능성을 품었기에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 잠재력을 실현시키는 것이야 말로 사람의 일생에서 지고의 가치를 지닌다"라고. 불교서는 붓다가 자신이 깨달은 바를 중생에 전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우리 모두가 부처의 가능성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런 맥락의 이야기는 불교의 여러 경전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 빤디따 스님 역시 해탈을 이루는 데는 그 어떤 차별도 작동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불법은 남녀, 노소, 빈부 등의 차별이 없는 완전히 공평무사(公平無私)한 가르침이다.

하지만 우 빤디따 스님은 불교의 가르침으로 모든 사람이 해탈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인 답을 한다. 불교의 가르침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는 해탈할 수 없는 일. 그것은 오직 자기 스스로 앎과 실천의 길에 들어 나아가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번뇌를 물리치는 궁극의 수행법

스님은 해탈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사띠빠타나 위빠사나 수행'을 제시한다. 이는 몸과 감각, 마음과 모든 현상(사물)의 생멸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리는 사념처 수행을 근간으로 한 마음챙김 수행법이다. 스님은 사띠빠타나 위빠사나 명상의 과정과 의의는 물론, 수행의 흐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장애나 꼭 잊지 말아야 할 점 등을 꼼꼼히 지적한다.

불교 근본 교설과 사띠빠타나 위빠사나

이 책서 눈여겨 볼 부분 중 하나는 도덕성과 집중, 지혜, 즉 삼학(三學)의 관계가 체계화 된 점이다. 도덕적인 삶(戒)은 충동에 따른 행동을 억누른다. 그러나 무조건 억누르면 내부 충동이 더 깊어질 수 있는 역효과를 낸다. 이때 우리는 집중을 통해 마음을 돌림으로써 강박에 빠지는 것을 막는다. 김주일 기자

대승불교 수행의 핵심 가르침!

親友書 친우서

용수보살 지음
수다지 캔뽀 한역 및 강설
지엄 편역 / 신국판 양장
504쪽 / 값 25,000원

친구(왕)에게 보내는 편지

제2의 붓다로 불리는 용수보살이 친구인 왕에게 경전의 요점과 수행의 비결을 게송으로 풀어 가르친 것으로, 대승불교 전체의 교리와 수행체계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모든 것은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윤회와 인과의 실제 이야기

지난 역사 속에서 발생하였던 윤회와 인과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역사적 진실성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들만을 골라 엮었다.

석운광 지음 / 국판 / 200쪽 / 값 10,000원



우리말 팔천송반야경

반야경전 중 가장 오래된, 대승불교의 근본 경전!

일상에서 흔히 쓰는 현대 우리말로 쉽게 풀어 옮겨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마치 설법과 대화의 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듯한 생생함을 느낄 수 있다.

박이오 역 / 신국판 양장 / 368쪽 / 값 17,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뮤지컬로 만나는 만해 스님

만해 스님 추모 뮤지컬 '심우'
심우장 6월 16일~29일, 7회 공연

극단 '더 늠' 제작 2014년 초연
일제강점기 심우장의 만해 스님 일화
만해 스님 74주기 추모다례재 진행

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누구보다 나라와 민족을 걱정했던 만해 스님이 함께 했던 친구의 쓸쓸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노래한다.

만해 스님을 추모하는 뮤지컬 '심우'가 공연된다. 서울 성북문화원은 창작 뮤지컬 '심우(작 · 연출 차지성, 음악감독 · 이보람)'를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성북구 심우장에서 총 7차례 공연한다.

만해 스님의 입적 74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공연은 성북문화원이 만해 스님이 심우장에 머물던 시절의 일화를 발굴해 기획했으며, 극단 '더 늠'이 제작해 2014년 초연했다. 전 공연 무료로 공연되는 뮤지컬 '심우'는 1937년 당시, 만해 스님이 옥사한 독립운동가 일송 김동삼(1878~1937) 선생의 장례를 심우장에서 치르게 된 일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1937년 봄, 신흥강습소 설립에 참여하고, 서로군정서의 대표를 역임한 독립운동가 일송 김동삼 선생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사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위대하고 숭고한 일이었으나 일본 제국주의의 눈치를 보느라 그 누구도 일송의 거룩한 생을 칭송하지 못했고, 주검조차 수습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 때, 일송의 주검을 거두고 장례를 치른 이가 있었으니 바로 만해 스님이다. 만해 스님은 친구인 일송의 주검을 자신이 머물고 있는 심우장으로 옮겨 5일장을 치른다.

"오늘이 참으로 닷새째인가? 몇 명이나 다녀갔는가?"

"스무 분 정도 다녀가셨습니다."

"5일 동안 장례를 치렀는데, 스물이라. 나라를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그 마지막 길이 스물이라…. 내가 죽어서 자네 얼굴을 어떻게 볼까."

일송 선생의 빈소를 다녀간 이는 고작 20여 명 뿐이었다. 어쩔 수 없는 민족의 슬픔 앞에서 만해 스님은 절규한다.

"한 나라의 큰 별이 떨어졌는데, 한 사람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네"

아픈 현실 앞에서 절규하며 절망하는 아버지를 딸 한영숙 여사가 따뜻하게 위로한다.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심우장이지만 백 년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올 것"이라고. 지금은 볼 수 없는 만해 스님에게, 또 만해 스님을 기억해야 하는 지금의 우리에게 말한다. 30분짜리 짧은 뮤지컬 '심우'는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라는 힘들었던 시기에 심우장이라는 역사적 장소에서 5일 동안 일어난 역사를 또박또박 적고 있다.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아무도 찾지 않았던 심우장을 찾고, 잊어서는 안 되는 지난날의 아픔을 기억해 달라고.

"님이여, 사랑하는 나의 님이여…"

누구보다 나라와 민족을 걱정했던 만해 스님이 함께 했던 친구의 쓸쓸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노래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는다.

"그대들이라면, 이 시대의 그대들이라면 나를 찾아올 수 있겠는가?"

뮤지컬 '심우'는 거창하게 민족을 이야기하고 종교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저 지나간 시절의 아픈 이야기를 들려줄 뿐이다. 그 이야기 속에서 많은 것들을 듣고 가라고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심우장이라는 작지만 큰 마당에서 열리는, 짧은 공연이지만 큰 뮤지컬 '심우'다.

29일 공연은 오후 4시에 진행되며, 30일은 오전 11시와 1시 총 2회 공연한다. 29일에는 만해 스님의 74주기를 맞아 추모다례재가 진행되고, 오후 4시부터는 '추모예술제'가 열린다.

국립중앙박물관 불교회화실 정기 교체

6월 19일부터, '무병장수', '극락왕생' 주제 개편
불교회화 · 경전 · 불상 등 19건 20점 새 모습
'현왕' 등 북한 지역 불교회화도 선보여


'아미타불을 모신 작은 집'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6월 19일부터 상설전시관2층 불교회화실의 전시품을 교체하여 전시한다. 이번에 전시되는 전시품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가운데 '무병장수'와 '극락왕생'의 바람을 담은 불교회화와 경전, 불상 등이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미타불을 모신 작은 집'이다. 나무로 제작된 불감 안에 홍색 비단을 덧대어 선묘로 아미타삼존불을 그린 독특한 형식을 하고 있다. 작고 가벼워 개인적인 공간에 봉안 되거나 이동할 때 들고 다닐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감에는 불감이 늘 사람들 가까운 곳에 있었던 흔적들이 곳곳에서 남아 있다. 문을 열고 닫는 문고리 부분은 정성스럽게 다듬은 금속 꽃장식으로 아름답게 장엄되어있다. 문을 열면 피안의 세계, 아미타불의 극락정토가 펼쳐질 듯하다. 극락정토는 시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사람들이 죽어서 가장 가고자 염원했던 곳이다. 아미타부처님의 중생을 생각하는 미소와 손짓을 볼 수 있다.

아미타부처님께 극락왕생을 기원한다면, 무병장수에 대한 기원은 약사부처님이다. 약사불이 다스리는 유리광정토는 질병의 고통이 없는 세계이다. 이번에 전시되는 '약사정토에서 설법하는 약사불'은 가르침을 설하는 약사불과 약사불의 말씀을 듣는 보살, 제자, 사천왕이 표현되어 있다. 약사불은 병을 고쳐주는 부처님답게 약함을 들고 있다. 전시에서는 약사신앙의 근본이 되는 경전도 함께 선보인다. '약사신앙의 근본이 되는 경전'은 약사불이 유리광정토의 교주가 되어 12가지 서원을 세우고, 모든 중생의 질병을 치료한다는 내용이다.

새롭게 교체되는 이번 전시에는 함경도 함흥 성불사에 봉안했던 '제석과 여러 신', '현왕' 등 북한 지역의 불화도 선보인다. '현왕'은 보존처리 과정에서 발견된 발원문을 통해 '제석과 여러 신'과 같은 해, 같은 곳에 봉안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두 점의 불화가 함께 전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접하기 어려운 북한 지역의 불화를 볼 수 있는 기회다.

이번 전시는 그 밖에도 장수를 기원하며 조성한 '불법을 수호하는 여러 신', 죽은 남편의 천도를 위해 발원한 고려시대의 〈묘법연화경 사경〉, 명부전에 봉안되었던 동자상 등 총 19건 20점의 불화를 새롭게 선보인다.

박재완 기자

'동해, 독도지도 108선-정각 스님 소장 귀중지도' 특별전

아람누리(갤러리누리 제1전시장)
6월 27일(수)~7월 1일(일)

동해와 독도 및 한반도 초기 지형과 관련된 고지도를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그 동안 독도와 동해 관련 지도를 수집해온 정각 스님은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고양시 아람누리(갤러리누리 제1전시장)에서 자신이 10여 년간 수집해온 독도와 동해, 한반도 초기 지형과 관련된 200여 점의 고지도 중에서 108점을 전시한다.

108점의 지도는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대한민국〉에서는 서양 고지도에 한반도 지형이 처음 등장한 후 다양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15점의 지도를 통해, 한반도 지형의 변천 과정을 보여준다.

두 번째 〈동해〉에서는 서양지도 중 동해(Mare Orientale) 표기가 처음 등장하는 1528년 보르도네(B. Bordone) 지도와 최초로 한국해(Mare di Corai)가 기록된 1646년 더들리(S. R. Dudley) 지도로부터 1893년 'Gulf of Corea' 표기 지도에 이르기까지, '동해'가 표기된 53점의 서양 지도를 통해 서양 지도에서 '동해' 명칭의 변천 과정을 살펴볼 수 있게 했다.


'독도'가 처음 표기된 당빌의 중국전도.

세 번째 〈독도〉에서는 서양지도 중에서 '독도'가 처음 표기된 1732년 당빌(D'Anville)의 중국전도를 비롯해 울릉도를 처음 발견해 표기한 1797년의 라 페라즈(La Perouse)의 항해도, 독도가 명기된 머리(M. F. Maury) 및 페리(C. Perry)의 항해도 등을 선보인다. 그 밖에도 1895년 포지오(Pogio. M)의 조선지도와 1898년 프랑스 군지도제작소에서 간행한 강릉 군사지도 등 독도가 한반도 영토에 귀속된 것임을 알려주는 12점의 지도를 보여준다.

네 번째 〈일본지도〉에서는 1785년 일본의 실학자 하야시 시헤이(林子平)가 간행한 〈목판본 삼국접양지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지도에는 독도가 '조선의 소유'라고 인쇄되어 있다. 그 밖에도 동해를 '조선해'로 표기한 1838년 간행의 한국전도, 1844년의 '신제여지전도', 1853년의 '신정지구만국방도' 등 동해를 '조선해'로 표기한 일본 지도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지도들이 전시된다.

다섯 번째 〈한국지도〉에서는 1611년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실린 '독도' 표기 지도로부터 1899년 학부(學部) 편집국에서 간행한 〈대한지지(大韓地誌)〉의 부록 〈대한전도(大韓全圖)〉에 이르기까지 독도 및 동해 관련 '한국지도'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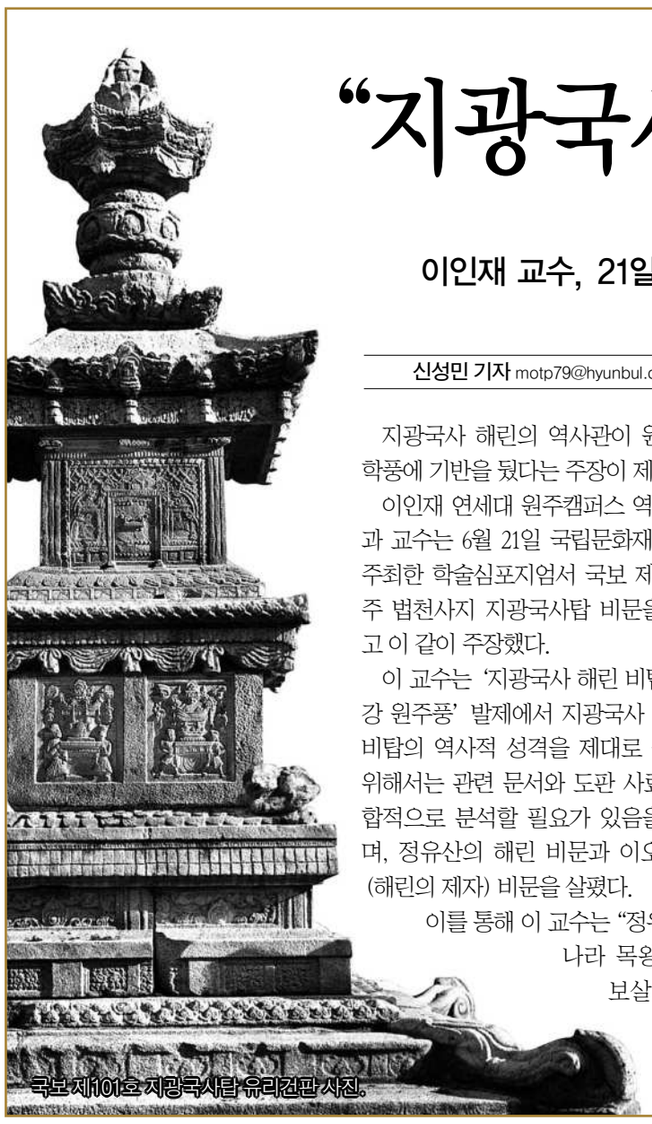
박재완 기자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주 · 야 상담합니다
조형물 · 동상 · 작품 모든 주물 가능함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 031)641-2747, 010-5302-1022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0여분 전시중!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국보 제101호 지광국사탑 유리건판 사진.

"지광국사 역사관, '원주 학풍'에 기반"

이인재 교수, 21일 지광국사탑 학술심포지엄서 주장

원주 원씨 후손인 지광국사
집안 가풍따라 복희역 연구
'기자고도' 주장, 가풍 영향

승탑비 상단 묘사된 이상세계
고구려 · 고조선 등 역사상 구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지광국사 해린의 역사관이 원주 지역 학풍에 기반을 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인재 연세대 원주캠퍼스 역사문화학과 교수는 6월 21일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주최한 학술심포지엄서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비문을 분석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광국사 해린 비탑과 남한강 원주풍' 발제에서 지광국사 승탑원과 비탑의 역사적 성격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관련 문서와 도판 사료들을 복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하며, 정유산의 해린 비문과 이오의 소현(해린의 제자) 비문을 살폈다.

이를 통해 이 교수는 "정유산은 주나라 목왕을 문수보살이 돕고, 양나라 무제를 미륵보살이 도왔듯이, 지광국사 해린이 고려 현종의 고려 중흥과 문종의 불교국가 건설을 도왔다고 판단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교수는 "고려 문종의 불교국가 건설은 대장경 각경 사업 주도로 해석되지만, 고려 현종의 고려 중흥을 어떻게 도왔는지는 분명치 않다"면서 이에 대한 해답으로 지광국사가 1021년 평양 중흥사 법회에서 '기자고도(箕子古都 · 기자조선의 옛 수도)'를 주창한 사실에 주목했다.

당시 고려는 거란과 경쟁을 하고 있던 시절로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서는 기자조선-고구려-고려로 이어지는 역사적 정통성 확보가 중요했다. 지광국사는 현종을 보좌하며 이 같은 역사적 전통성을 확립하는 데 일조했고, 이는 자신이 성장한 원주 원씨의 가풍과 지역 학풍에 기반한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실제 지광국사의 할아버지는 음양학에 조예가 깊었고, 증조부 · 고조부는 모두 복희역을 연구했다.

이 교수는 "지광국사는 가문에서 배운 역학과 음양학, 역산학 등을 토대로 기자조선-고구려-고려로 이어지는 역사 계승의식을 확보했다"면서 "그 결과 현종은 고려 중흥주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고, 문종은 거란에 대해 고려는 기자 조선을 계승한 왕조라는 점을 당당히 설명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승탑비와 승탑의 제작자들은 지광국사 역사관들을 반영했다고 추정했다. 특히 승탑의 상단에 표현된 이상세계는 "용화세계 구현보다는 기자 조선과 고구려, 단군 조선의 역사상을 구현해 놓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고려 미(美) 상(想), 지광국사탑을 보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심포지엄에서는 △'고려중기 법상종(자은종)과 지광국사 해린'(남동신, 서울대) △'고려중기 법상종 사원의 불교조각'(최성은, 덕성여대) △'탑비를 통해 본 남한강 유역의 불교미술'(정성권, 동국대) △'지광국사탑 장엄의 이해'(박지영, 국립문화재연구소) △'지광국사탑의 외래적 요소와 성격'(박대남, 국립문화재연구소)이 발표됐다.

한편, 지광국사탑은 국권침탈 직후 일본인에 의해 국외로 반출되었다가 반환됐으며, 한국전쟁 당시 포탄의 피해를 보았고, 10여 차례의 해체와 이건(移建) 과정에서 본래의 모습을 일부 상실한 상태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16년 지광국사탑의 보존처리를 위해 탑을 해체하고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보존 · 복원 과정에서 석재의 산지를 추정하고 과거 복원에서 뒤바뀐 옥개석 도상의 위치를 바로 잡는 등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

석학들에게 듣는 '동양철학 방향성'

동양철학회 7월 10일 좌담회

불교와 유교, 도교 철학 석학들에게 동양철학이 나아가야 할 길을 듣는 좌담회가 열린다.

한국동양철학회(회장 신규탁)은 오는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종로 숭인동 묘각사서 '한국 석학에게 듣는 동양철학'을 주제로 하계 학술발표 좌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좌담회는 '동양철학의 의의-보편학과 지역학 사이'와 '동양철학의 현재성-철학사와 철학 사이' 두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첫 주제에서는 동양철학 분야에 오상무 고려대 교수가 한국철학 분야에 이봉규 인하대 교수가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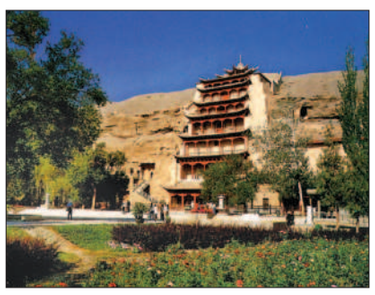
두 번째 주제에서는 불교와 유교, 도교 철학의 방향성을 되짚는다. 불교철학에 대해서는 허우성 경희대 교수가, 유교철학은 김성기 성균관대 교수가, 도가철학은 김성환 군산대 교수가 좌담자로 나온다.

신규탁 한국동양철학회장(연세대 교수)은 "이번 좌담회를 통해 한국철학과 동양철학을 연구하는 것이 과연 보편학에 대한 추구인지 지역학에 대한 고수인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며 "아울러 유 · 불 · 도 삼교로 대표되는 동양철학이 지금 바로 여기의 우리에게 어떤 나침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되짚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韓中日 학자 '돈황사본' 의미 살핀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6월 30일 국제학술대회

中런민대 · 日도요대와 공동 돈황 문헌 연구 성과 확인


중국 돈황 막고굴 석굴 입구 전경.

중국 돈황사본 문헌에 대한 한국과 중국, 일본의 불교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조망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김성철)는 오는 6월 30일부터 7월 1일 양일간 조계종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돈황사본과 불교학'을 주제로 제7회 한 · 중 · 일 공동 국제불교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는 중국 런민대(人民大) 불교와종교학이론연구소와 일본 도요대(東洋大) 동양학연구소가 공동 주최한다.

한 · 중 · 일 삼국의 돈황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한국은 차상엽 금강대 교수가 '종교의식 매뉴얼과 마하연의 선지(禪旨)'를, 최근 지론종 연구로 학위를 받은 이상민 동덕여대 교수가 '지론문헌 내 〈본업영락경소〉(S.2748)의 위치'를, 금강대에서 박사를 수료한 신사임 박사가 '북주(北周) 도안(道安)의 〈이교론〉과 당(唐) 법림(法琳)의 〈변정론〉과의 관계'를 발표한다.

중국 측에서는 장원량(張文良) 런민대 교수의 '남조 성실종(成實宗)의 이제설(二諦說)', 스징펑(史經鵬) 중앙민족대 교수의 '중국초기불교의 상속사상(相續思想)-상박3317호, 백2980호와 백3291호를 중심으로', 양위페이(楊玉飛) 의춘학원 교수의 '조법사(照法師)가 찬술한 〈승만경소(勝　經疏)〉(S.524)에 관하여'를 발표한다.

이와 함께 논평자로는 9명의 발표자에 대해 최연식(동국대), 김지현(서울대), 김성철(금강대), 나우권(고려대), 조영미(성균관대), 간노 히로시(菅野博史, 소카대), 오카모토 잇페이(岡本一平, 게이오대), 이부키 아츠시(伊吹敦, 도요대)가 참여한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는 "3국 3개 대학 연구소가 학술대회를 순회 · 개최하는 방식은 동아시아 학술연구 · 교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자평하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그동안 연구소가 이뤄낸 지론종 관련 돈황사본 문헌에 기반한 연구 성과를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강대와 런민대, 도요대는 10년 동안 '불교의 동아시아적 수용과 변용'이라는 주제로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다. 지난 2012년 6월 서울에서 '동아시아에 있어서 불성 · 여래장 사상의 수용과 변용'을 주제로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했으며 제2회 '남북조 시대의 불교사상'을 중국 북경 런민대에서, 제3회 '동아시아 불교에서 대립과 논쟁'을 일본 도쿄 도요대에서 개최한 바 있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대학기본역량진단 통과

서울 · 경주 캠퍼스 모두 207개 예비자율개선대학 포함

동국대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가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될 전망이다.

동국대(총장 보광)는 "서울 · 경주 양 캠퍼스 모두 교육부가 실시한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舊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통과되어 자율개선대학으로 예비 선정 됐다"고 6월 20일 밝혔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교육 여건, 대학 운영의 건전성, 수업 ·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교육성과 등 기본요소와 관련된 정량 지표와 정량적 정성 지표에 대한 진단 결과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부는 1단계 평가 결과, 전체의 64% 정도인 207개 대학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예비 선정됐다고 밝혔다. 최종 확정통보는 8월말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동국대 서울캠퍼스는 2015년 실시된 1주기 평가에서도 장학금 지원, 취 · 창업지원, 교육비 환원율 등 모든 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아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종학연구소 UCLA서 간화선 학술대회

동국대 종학연구소(소장 정도)는 오는 7월 17일 미국 UCLA(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에서 제6회 간화선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선과 현대사회'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공모를 통해 선발된 총 7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주요 발제로는 스티븐 하인 플로리다 국제 대학 교수가 선종의 역사와 사유에 대해 발표하며, 알버트 웰터 아리조나대 교수가 송대 불교문헌을 중심으로 한 중국불교에 대해 조명한다.

또한 '현대사회에서의 불교와 선'이라는 주제로 로버트 버스웰 교수를 비롯한 세계적인 불교학자들과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의 좌담회도 예정돼 있으며, 수불학술상 시상식도 진행된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티베트역경원 티베트어 무료 특강

방학 맞아 6월 27일부터

티베트어 기초부터 회화까지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강좌가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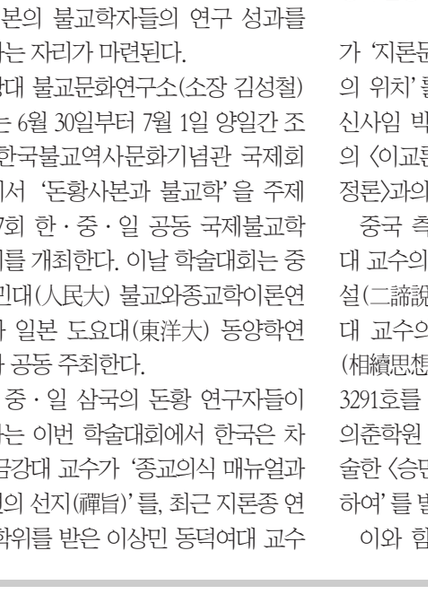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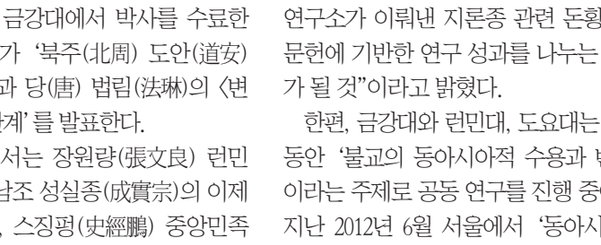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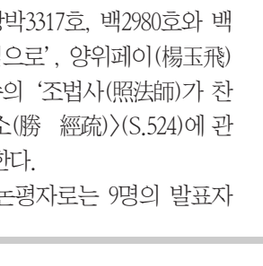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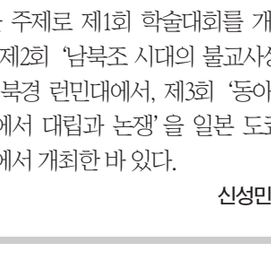
동국대 경주캠퍼스 티베트대장경역경원은 6월 27일부터 8월 22일까지 매주 수요일 교내 백주년기념관 D408호에서 '티베트어 무료 특강'을 개최한다.

티베트어 저변 확대를 위해 실시하는 이번 특강은 현대 티베트어와 고전 티베트어로 나눠 진행되며,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특강은 양승규 티베트대장경역경원 연구원이 회화 위주의 현대 티베트어 초급과 중급을, 정상교 연구원이 티베트 고전문헌의 기초 문법 위주로 고전 티베어를 강의한다.

문의 (054)770-2893 신성민 기자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14-406호
대 고 제 작
www.yangjikukak.com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사형수 포교 50년
삼중 스님의 남기고 싶은 인연
⑫ 재일교포 사형수 손유형

간첩죄로 사형 언도…"報恩보다 자신 사상만 앞세워"

재일교포인 사형수 손유형의 고향은 제주도였다. 당시만해도 제주도 사람들은 바다건너 가까운 일본에 가서 장사와 사업 등을 하느라 많이들 드나들곤 했다. 오늘 소개할 사형수 손유형도 일본으로 건너가 자수성가한 사업가 였다. 정확히 무슨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는 생각보다 많은 부를 축적했다.

그러던 그가 아마 조총련에 관심을 가진듯하다. 당시 일본서 한때 조총련으로 재일교포 출신들이 많이 몰려 들었다. 손유형도 당시의 시대상을 비껴가지 못하고 조총련에 가입 했던 것 같다. 그러다보니 그는 자주 북한을 오가며 심지어는 북쪽에 돈을 대주기도 한 모양이었다. 지금만해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회담을 하는 평화적인 분위기이지만, 5공화국 당시 그의 행동은 분명 국가보안법 위반인 중죄였던 것이다.

국가정보기관서 손유형의 행적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가 한국을 방문한 어느 날 정부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이 골프 초청을 했다. 그길로 그는 곧바로 중앙정보부로 끌고가 취조를 받고 간첩으로 몰렸다. 판결된 죄명이 간첩죄라 손유형은 사형을 언도 받았다. 김일성에게 돈을 갖다 바쳤다는 것이 중죄의 이유였다. 손유형은 사형 선고를 받자 자신은 공산당이 아니라며 억울하다고 강경하게 발악을 했다.

사형수가 된 손유형을 내가 만난 것은 1981년경 서울구치소에서 였다. 손유형에게는 독실한 불자였던 노모가 제주도에 계셨다. 하지만 아들의 비보를 듣고 불행하게도 노모는 자결을 했다. 손유형 하나 보며 그를 의지처로 삼고 살았던 금쪽같은 아들이 하루아침에 간첩으로 몰려 사형수가 되자 그 충격으로 목을 맨 것이다.

교화를 위해 손유형을 만나자 그는 나에게 이렇게 울부짖었다. "내가 설사 감형이 돼서 풀려난다해도 저는 절대로 한국에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게 이북에 돈 대준 사람이라 사상이 불순하다고 간첩을 만든 한국과 남북이 대치된 우리 조국의 분단 현실이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절대 저는 간첩이 아닙니다."

누명을 썼다고 계속 주장하는 손유형은 그래도 운이 좋았다. 그가 사형수가 된 시기는 전두환 대통령이 일본에 국빈 방문이 예정돼 있을 때였다. 방문 전 일본에 선심을 써야 좋은 상황이라 일본 국적의 사형수인 손유형을 살려주는 것도 일본에 생색을 낼 수 있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정부에선 판단하는 분위기 였다. 일단 나는 그를 면담하고 그가 억울하게 사형을 언도 받았다고 판단해 사법부에 감형해 달라는 간절한 탄원서를 올렸다.

그리고 몇 년 뒤 어느해 여름, 일이 있어서 일본 오사카를 방문 했다. 그때 나는 오사카서 잠시 상상을 했다. "내가 탄원서를 올린 손유형이 사면 받아 이 오사카에서 다시 만났다면 얼마나 반갑고 감격스러울까?" "오사카서 유명 사업가인 그가 내 탄원으로 인해 출소됐다면 이 더운 여름날, 내가 편안히 일을 볼 수 있게 배려해 주지 않았을까" 등등. 이런 생각을 하니 순간 마음이 가벼워짐과 동시에, 하루빨리 그가 감형 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겠다고 다짐했다.

북한에 돈준 간첩죄로 사형수된 손유형
일본 국빈 방문 등 시대 상황 덕에 감형돼
사상이 다른 차이가 불러온 사형수 포교

내가 일본을 다녀오고 얼마 안돼 전두환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손유형은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는 대구교도소로 이감됐다. 그후 1988년 11월 전두환 대통령이 권좌에서 물러나 광주민주항쟁의 진실규명을 위한 5공 청문회를 피해 백담사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접했다. 나는 그 다음날 칩거하고 있는 전두환 대통령을 백담사로 찾아갔다. 전 대통령에게 손유형 사면에 대한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였다. 백담사 요사채 맨끝 2편 남짓한 조그만 골방에서 전 대통령에게 내가 자신을 찾은 연유를 설명하자 그는 반갑게 나를 맞았다. 방에 앉아 상황 설명을 하자 자신은 사면 기억이 안나지만 그래도 즐거운 표정을 지으며, "스님, 저도 사람을 살려준 적이 있습니까?"라고 나에게 되물었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새벽 1시까지 자신이 독경중인 〈금강경〉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다.

다음날 내가 백담사에 다녀온 것이 신문에 보도 됐다. 그것을 대구교도소에 수감중인 손유형이 본 모양이었다. 내가 그를 면회하기 위해 대구교도소를 찾아가자 손유형은 나를 보자마자 대뜸 호된 질책을 했다. "왜 전두환을 만나고 왔습니까"라며 강경한 어조로 나무라는 것이었다. 순간 나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존경해서 만나러 간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을 살려줘서 고맙다는 인사만 전하러 갔다 왔는데 왜 그런 섭섭한 말을 합니까. 당신을 살려준 은혜를 대신 갚기 위해 먼길을 다녀온 것이에요"라며 나도 쏘아붙였다. 어떤 이유에서 인지 짐작은 갔지만 그래도 너무 하다 싶을 정도로 반복해서 나를 질책했다.

순간 내가 왜 이 사람을 위해 간절히 탄원 운동을 했을까하는 후회감이 짙게 밀려왔다. 그를 구명한 이유는 우선 첫째로 불자인 손유형의 어머니가 자결한 것이 너무 안됐고, 단지 돈이 많아 북쪽에 갖다준 것이지 그 사람의 사상이 불순하고 공산주의를 흠모해서 그런것이 아니란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감형돼 대구교도소에 있으면서 그는 오히려 공산주의 사상에 물이 많이 들은 것 같았다. 모든 것이 적개심에 불타 있었다. 그래서 보은의 도리를 모르고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면을 해준 이의 고마움 마저도 저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저지른 것이다.

"나는 그때 인간 손유형에게는 측은지심이 있었지만, 그가 신봉하는 공산주의에는 환멸을 느꼈다. 자기가 믿는 절대적 사상만 옳다고 고집하는 그를 보며 인간적 실망감이 컸다. 솔직히 사형수 포교를 하면서 느낀 첫 배신감이었다."

이후 그와는 대화와 소통이 되질 않아 자연히 나와 인연이 끊겼다. 그 뒤로 몇 년에 한번씩 연하장을 보내줬지만, 그 뒤로는 소식이 없었다. 형기를 다 마친 그는 아마 지금 일본 오사카 어디서엔가 잘 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남긴 여운은 아쉽다. 당시에는 나도 섭섭한 마음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지만, 지금은 그가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사형수 포교를 하면 반드시 보람있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끔 해준 포교 일화다.

정리=김주일 기자



이란 보살의 '밥 짓는 소리'
⑪ 종진 스님 · 무주보살



부처님께서 가정법회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었다. 가까운 도반들이 모여 경전을 공부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고자 노력했다. 가정법회는 한 달에 한 번 20여 년을 한 차례도 거른 적 없이 얼마 전까지도 이어졌다. 법회 횟수로 말하자면 1년에 12번씩, 20년만 했다 해도 240회 이상 가정집에서 법회를 본 셈이다. 각자 전생의 연(緣)이 있어 귀한 불법을 만났다고 생각한다.

이 공부 모임에서 조그마한 심부름이라도 한다는 사실이 쉽지는 않았다. 그래도 반드시 해야만 하고 세상 어떤 일보다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말할 수 없이 행복했다.

'인생도처유상수(人生到處有上手, 우리 삶 어디든 고수들이 있다)'라 하던가. 절과 절을 잇는 산길을 걷다 가벼운 인사를 나누며 주고받는 짧은 문답이 '줄탁동시(啐啄同時)'가 되어 한 수 듣고 배우는 것도 큰 즐거움 중의 하나이다. 그 때, 노보살님은 나에게 앞으로는 글을 쓰게 될 것이라고, 쓰는 글은 울림이 있고 날개가 있을 것이라며 많이많이 날려 보내라고 덕담을 하셨다. 민들레 홀씨 되어 날아가듯이, 그 말씀 한마디 또 하나의 씨가 되어 날아간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www.btn.co.kr
부처님과 가족이 되는 가장 빠른 방법
부처님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1855-0108
아버지 저 오늘 붓다회 가입했어요
잘했구나! 나는 벌써 붓다회 가입했단다
이제 우리 모두 붓다회 가족이 되어봐요~!
일팔오오 영일영팔 맞지?
BTN 어플과 BTN 불교라디오 올림 어플은 스마트폰(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편〉
BTN 은 케이블TV(아날로그/디지털), 스카이라이프, IPTV 모든 플랫폼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skylife 181번 olleh HD 233번 Btv HD 305번 U+TV HD 185번 케이블TV 채널안내 : BTN홈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02 3270 3300 문의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 진언

그림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귀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145㎝ 가정용 45×110㎝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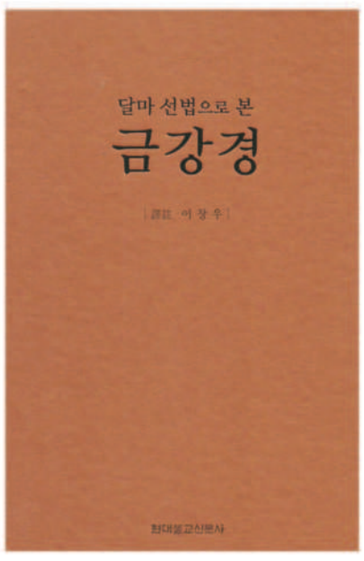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쟈못쟈'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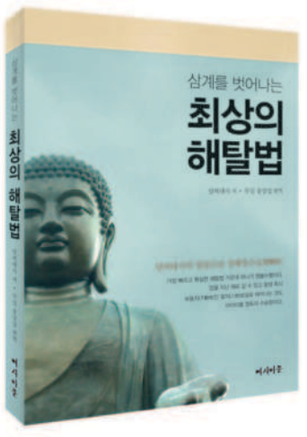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
19,000원 | 여시아문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는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이 책은 참마음, 참나, 참자기, 본래면목, 불성, 자성, 진여일심, 한마음을 찾는 달마선법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풀이(주해 및 강의)한 책이다. 저자인 이창우 거사는 조계종 한마음선원장 대행 선사의 재가 제자로서 오랫동안 대행 선사의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고 마음공부를 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오늘의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냈다. 저자는 "마음에 몰록 놓는 삶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 같지만 발 가는 곳에 마음이 머무는 곳에 진리(부처)가 있으므로, 생활을 도량으로 삼으면 살아서는 안내자가 되고 죽으면 구세주가 되므로, '참자기'를 스승으로 삼고 '참마음'을 등불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탈의 돈법
삼계를 벗어나는 **최상의 해탈법**
담허대사의 염불론과 정혜쌍수(定慧雙修)



담허대사 저 · 송상섭 편역 | 신국판 | 부분칼라 | 232쪽 | 12,000원 | 여시아문
전국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출판 및 구입 문의 : (02)2632-8739

중국의 고승 담허(倓虛,1875~1963)대사의 명저인 『염불론』을 무심 송상섭 선정수련원 지도원장이 번역하고 해설한 책. 옛 중원(中原) 오종(5宗: 선종, 교종, 밀종, 율종, 정토종)의 진액을 하나로 모은 법문을 읽으면 누구나 낙오 없이 왕생극락하여 해탈하게 되어있다. 이 책은 또한 염불을 통해 일념, 무념에 들 수 있는 방법으로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를 동시에 닦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설명하면서, 선정(禪定)의 힘을 얻는 방법도 체험적으로 일러주고 있다.

아미타불 48대원
– 무량수경 · 아미타경과 정법개술 –



아미타불 48대원
- 무량수경 · 아미타경과 정법개술

연관스님 · 보정거사 번역 |
46배판 | 부분칼라 | 250쪽 |
10,000원 | 비움과소통

곧바로 불퇴전지에 올라 성불하는 묘법!

이 책은 『무량수경』 상권의 아미타부처님의 48대원을 서술한 한문과 번역문 및 해설, 보정 서길수 박사가 산스크리트어로 옮긴 『아미타경』 한문 원문과 번역문, 극락정토에 태어나는 법을 개술한 대만 방륜거사의 『정법개술(淨法概述)』 번역문으로 이뤄져 있다. 『정법개술』은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을 역임한 연관스님이 번역한 염불수행의 중요한 지침서이다.

염불이 살아나야 불교가 살아납니다!
비움과소통은 정토불서 발행을 통해
아미타부처님의 대원大願을 일깨우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도서출판 비움과소통
비움과소통은 여시아문의 자매 브랜드입니다.
불교쇼핑몰 비움과소통 몰(www.bns-mall.co.kr)
불서전문 책방 비움과소통(02-2632-8739)

여시아문 도서출판 여시아문 | 전화 : 02-2004-8213